朝鮮日報
夕刊 二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元紀祭

宮中元旦諸御儀
各國大公使拜賀式도擧行

大和民族의 御淵源을 景仰하는 紀元式年의 元旦 宮中에서는 午前五時半 四方拜를 奉始하사 빗나는 新年의 御儀를 執行하옵서다 恐懼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午前五時지나 綾綺殿에 渡御 黃櫨染御袍의 御束帶를 가주옵시고 三條掌典長御先導로 神嘉殿南庭에 下御 庭燎가 빗나는 가운데 伊勢神宮 神武天皇의 山陵 四方의 神祇를 御遙拜 皇室의 御繁榮 國運의 隆昌을 御祈念하옵시고 四方拜의 嚴儀를 終了 同五時四十分부터 賢所皇靈殿神殿에 御親拜 嚴肅한 歲旦祭의 嚴儀를 執行하옵서다 그리고 同午前八時 陛下께옵서는 鳳凰間에 出御 新年의 御膳에 着御하옵시고 午前十時 皇后陛下와 同列로 鳳凰間에 出御 秩父宮同妃兩殿下를 奉始 各皇族과 御對面 新年의 賀를 바드옵시고 다시 各皇族妃殿下와 함께 正殿에 出御, 두번이나 阿部首相以下 文武百官의 拜賀를 바드옵서다 이리하여 午後一時부터는 米國大使 그루氏以下 各國大公使同夫人에 謁見을 賜하옵시고 元日의 拜賀式을 終了하옵서다 그리고 二日은 有爵者가 參賀하엿다

社說 日蘇問題解決의曙光

一

日蘇의 懸案이오 極東政局全面에 커다란 癌이던 日蘇漁業問題는 지난 三十一日 莫斯科에서 東鄕大使와 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과의 間에 잇선 暫定協定의 調印을 보게되엇고 그와同時에 亦是 多年 蘇聯의 日賣條件이 되어오던 北鐵讓渡에 關한代價金問題도 一擧에 解決을보게되엇다 그런데 漁業問題는 의선暫定協定을 締結하는데 끗첫스나 新年初부터 이에代할 元條約締結의交涉이 續行되기로되엇스며 北鐵代價金問題도 여러가지 意見을 가질수는 잇스나 어떠튼 그交換金의 三分之二에 不下하는金額으로써 日滿兩國에서 物資를 購入하게되는것은 現下의 情勢下에서는 機宜의 外交라 아니할수업다 그리고 이와同時에 亦是 日蘇間의 重大懸案인 國境問題協定交涉도 이미 치타會議를거처 新年初부터 滿洲國哈爾濱에서 續行하게되엇는데 어느것이나 모다 交涉은 圓滿進展의 曙光이 보이는듯하다.

二

도리켜 생각컨대 近來 日蘇問題는 漁業權問題에 잇서서의 漁區問題, 樺太에잇서서의 拔田權問題를 비롯하여 張鼓峰, 노몬한事件等 其他一般的蘇滿國境問題, 拔擢問題는 한글가지 帝國의生命線과 부딕치는問題들로서 한때 우리는 日蘇開戰까지도 不可避視하여왓다 그런데 이제이 問題들이 一擧에 解決될氣運에 싸이게 되엇다는것은 兩國을爲하여 또全極東政局의 安定을 爲하여 慶賀하여야 할일이다. 勿論 今後로도 諸問題의 交涉進行에 잇서서의 難關과 또 蘇聯의 對極東政策의 伏線을 豫想치못하는바 아니나 現在 兩國을 싸고 잇는 空氣는 確實히 戰爭보다 平和, 無理한 手段보다 서루 意思를 疏通할수잇는 會談으로써 일을 處決코저하는것이 事實이라할것이다 그러다고하면 百年의平和는 몰나도 또반드시 帝國에만 有利한 條約이 아니라고하드래도 이때에잇서 兩國間에 어떠程度의安協의길이열여 日蘇問題는 解決의曙光을볼可能性이 잇다고 볼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생각지안허서안될問題는 年來로强硬一方의 極東政策에 始終하든蘇聯이 무슨까닭으로 이와가치 妥協의態度를 取하기에 일으럿는가하는點이다.

三、

蘇聯이 極東에서 눈을돌린것은 西部國境確保에 着手한以後의일이오 그것은 獨蘇協定締結後 歐洲戰爭勃發과함께 出發하엿다 그동안 이미西部國境의一部를 波蘭中部에까지 延長하엿고 발틱三國을 亦是 自己權內에 끄러넛는데 成功하엿다 그러나 蘇聯이 이事業으로그람은 아직도 完成의域에 達하지못하엿다 첫재 交戰中의 芬蘭問題를 收拾치 안흐면 안될것이오 또 루마니아와의 國境問題 黑海問題 한거름 더 나아가서 對土耳其問題는 蘇聯焦眉의問題들이다 蘇聯은 이問題들의 解決을 못내기前에는 일는 極東에까지 注力할 餘裕가 업다. 이것으로써 蘇聯의 對極東策이 妥協的態度로 놉흔 理由는 明瞭하여지거니와 日蘇懸案解決의 曙光裏面에는 이와가튼 事情이 伏在하다는것을 看過하여서는안될것이다.

重大한變化업는限 既定方針대로邁進
首相、各閣僚에게決意披瀝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一日午前宮中에서의 拜賀式終了後 各閣僚를 남어잇게하고 衆議院有志代議士의 反政府運動을 圍繞한現下 政局에 關하여 이가튼 運動에 依하여 政局이 左右되는것은 將來에惡例를 남기는것인즉 今後重大한變化가 이러나지안는限이에拘泥치말고 既定方針대로 再開議會에 臨할생각이다 라고決意를 披瀝하엿는데 各閣僚도 모두이를 諒解하엿다 그리고 政府는 右議會再開까지에 五黨首와도 懇談을하는等 局面打開에努力할 方針이다 (寫眞은阿部首相)

六日臨時閣議開催?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事變處理에 一段略를 劃할 中央政權樹立에 따르는 處理方針에 關하여 지난 十一月一日 興亞院會議에서 決定한 要綱에 基하여 現地에서 折衝中이던바 이지음 具體案을 어덧스므로 오는六日 臨時閣議를열고 正式으로 決定한후 必要한 手續을 取하기로 되엇다

昨年中 海軍에의獻金 三千七百萬圓

【東京電話同盟】海軍省에들어온昨年度 獻金은 十二月二十二日까지의 統計가 二十七日 作成되엇다 이에依하면 總額이 一千五百八十三萬二千六百八十三圓二錢으로其中 飛行機其他兵器製作에 充當된 國防獻金은 七百二十七萬三千二百六十四圓三十九錢 將兵慰問, 遺家族慰勞金等 恤兵金은 七百七十二萬六百四十九圓五十六錢 興亞技術獎勵金은 八十三萬八千七百六十九圓七錢으로서 事變以來 累計는實로 三千六百九十三萬四千六百五十七圓의 巨額에 達하고 또慰問袋雜誌其他慰問品은九百五十六萬二千三百七十六點에 達한다 그리고 獻納兵器數는 事變以來 飛行機二百五十二 自動車八 內火艇三十五機 銃類 九十四 通信機百三十六臺 聽音機六 觀測車二 戰車九 砲類 二十八 其他多數에達하엿다

昨年中本邦對外貿易概算額

【東京電話同盟】昭和十四年一月以降十二月二十五日까지의 本邦對外貿易概算은 如左하다 (單位一千圓)(△印減少)

▲輸出

	十四年	前年比較增(率)
內地	三,四五六,三五七	八四五,〇九六(三三%)
朝鮮	三六六,八三三	一〇〇,四五六(六%)
臺灣	八二,七七七	四六,三九六(三三%)
合計	三,八四四,四五六	九九一,八八六(三五%)

▲輸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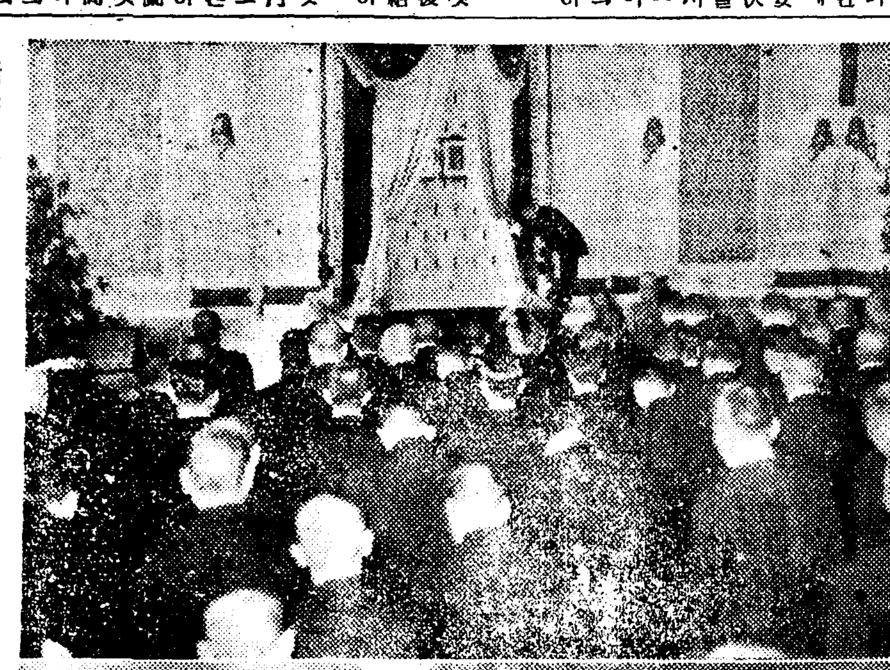
	十四年	前年比較增(率)
內地	三,八五六,七六九	三六,八五五(九%)
朝鮮	一,五五六,六九二	三六〇,九六(三%)
臺灣	四九九,〇二三	三三,一〇六(三六%)
合計	三,〇四三,〇〇七	三〇七,九二一(一〇%)

▲輸出入合計

	十四年	前年比較增(率)
內地	六,三一九,八六五	一,〇六三,七五四
		(二一%)
朝鮮	四三三,三六八	三六,五五三
合計	六,八〇〇,四六三	(四三%)

▲差引出超(△印入超)

內地	六〇二,九九五(八三%)
朝鮮	二三,一七六
臺灣	三一,七一四
合計	七三三,四四九



朝鮮神宮歲旦祭
南總督以下官民多數參列

皇紀二千六百年元旦 朝鮮神宮에서는 午前零時十分부터 奉納神樂 午前六時부터 阿知和宮司以下奉仕裏에 新年拜禮式이잇섯고 午前八時부터는 歲旦祭를 執行하엿는데 南總督以下文武百官이 參列하엿다 同九時國民奉祝時間에는 "싸이렌"에마추어 參列者一同이 東方을向하여 宮城을遙拜하고 聖壽無窮과 皇室의 彌榮을奉祝하엿다

總督府서拜賀式 領事團受賀式도擧行

昭和十五年元旦總督府에서는 午前十一時十分부터 第一會議室에서 南總督以下各高等官과 在京外國使臣參列下에 拜賀式이 잇섯고, 이어 同十一時三十分부터는 判任官의 拜賀式이 잇슨다음 이어 大"홀"에서 聖壽萬歲를 奉唱하엿다 (寫眞上은 朝鮮神宮歲旦祭, 下는 總督府拜賀式光景)

北鐵讓渡金問題 互讓精神으로解決
滿洲國外務當局談發表

【新京一日發同盟】北鐵讓渡金問題圓滿解決에 關하여 滿洲國政府는 一日午後一時二十分外務當局談形式으로써 如左히 發表하엿다

北鐵代價金最終割賦金支拂에關한 當局談

滿蘇間에懸案中의 北鐵代價金最終割賦金支拂問題는今般北鐵代價金支拂保證者인 日本政府의斡旋에依하여 蘇聯政府가 受領할 最終割賦金은 六百萬圓에 利子及北鐵讓渡協定約款에依한增金을 加한額과滿洲國의受領할對蘇請求額約百三十萬圓과對等額으로相殺하고 蘇聯政府에 支拂하여 問題를解決하기로 妥協이되엇다 本問題는過去二十個月以上에亘한 滿蘇間의重大懸案이엇는데 이重大懸案이今般 如左히互相 그主張을互讓의 精神으로써 容認하기로되어 圓滿解決을 보게된것은 今後의 滿蘇關係改善에 寄與함이 적지안흐리라고밋고잇는터이다

歐洲大戰月誌

十二月一日 芬蘭新內閣成立 ▲[illegible] ▲米[illegible] ▲伊[illegible]
二日 蘇、芬蘭民主政府와 [illegible] 條約締結 ▲芬蘭[illegible]
三日 芬蘭[illegible]
四日 蘇、芬政府和平提議拒否
五日 芬蘭軍 蘇聯軍六十機[illegible] ▲英外相戰爭目的再闡明 ▲米[illegible]
六日 蘇、百七十萬大軍으로芬蘭攻擊開始 ▲芬蘭大統領國民激勵
七日 米政府英의[illegible] ▲丁、諾、瑞典三國外相會議共同聲明 ▲伊파시스트黨大會서 獨伊同盟 嚴正中立維持言明
八日 蘇政府各國大公使에 芬蘭全海岸封鎖通告 ▲米[illegible]
九日 英第二回[illegible] 廿五萬[illegible]
十日 伊가이다氏 伊의立場을 闡明 ▲米國[illegible]
十一日 獨政府對芬軍事援助說否定 ▲新[illegible]
十二日 瑞典、芬蘭援助聲明 ▲
十三日 英佛[illegible]
十四日 蘇聯除名[illegible] ▲英外相上院 外交討議에서 [illegible]
十五日 芬外相[illegible] 對蘇休戰條約表明 ▲우루과이政府 [illegible]
十六日 차노伊外相外交政策을 闡明 ▲米海軍兵員大擴張說
十七日 몬테비데오港外서 [illegible] ▲英飛行士[illegible]
十八日 獨介께號[illegible]許可拒否
十九日 [illegible]
廿日 [illegible]
廿一日 在伊[illegible]
廿二日 伊首相[illegible]에게和平 [illegible]
廿三日 獨政府中立[illegible] ▲中南米二十個國에 [illegible]
廿四日 ▲蘇對英佛聯盟除名을 反駁
廿五日 土耳其對蘇防禦準備說 ▲蘇聯[illegible]
廿七日 루大統領[illegible]法王에게特使派遣 ▲獨蘇航空協定成立
廿八日 [illegible]
廿九日 獨軍司令部[illegible]

鹽販賣價格引下
各等級百斤에五十錢式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低物價政策遂行을 爲해서 今回食鹽價格引下를 斷行하게되어 十二月二十七日 政府와 中央物價委員와의 懇談會에서 다음과가튼 內容을 決定發表하엿다

大藏省發表

政府는 今般低物價政策의 一環으로 元賣捌人에의 賣渡價格引下를 昭和十五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하엿다 그引下는 가장 널리 使用되는 內地鹽과 及 輸移入四等鹽에 對하여 現行賣渡價格의 約一割을 目標로하여 各等級을 一率로 百키로그람 當五十錢으로 하엿는데 右 政府의賣渡價格引下에伴하여 賣捌人으로부터 一般消費者에의販賣價格도 引下하게될것이나 賣捌人의 手持品關係上 그實施는 아마遲延될 모양이다 그리고右引下에依한 政府의損金은 四百三十九萬圓으로서 從來의 鹽專賣損金을 合算하면 約一千萬圓의 損이다 政府의 元賣捌人에의 賣渡價格(百키로그람當)

種類	等級	包裝別	現行價格	改訂價格
內地鹽	一等上等	三十五키로그람	五圓六十五錢	五圓十五錢
〃	三等	〃	五圓五十錢	五圓
〃	三等臺灣	〃	五圓二十七錢	四圓七十七錢
移輸入鹽	一等	五十키로그람	五圓六十錢	五圓十錢
〃	三等	〃	五圓三十九錢	四圓八十九錢
〃	四等	〃	五圓十四錢	四圓六十四錢

八面鋒

◇金剛山大火는 不幸中多幸으로 名勝被害가 僅少로判明。
◇凶報를傳하던 金剛山四大刹의一인 神溪寺도健在。
◇風致의損傷도 輕微함을傳하니 더구나 快中快。
◇火因은 未判이나 이번災害를 計機로 保勝施設에 萬全이 必要。
◇첫재、盜伐黨의驅逐、特殊警防施設、保勝法規强化가若何。
◇朝鮮의金剛山이아니라 世界의金剛山임을 責任지자。
◇前代 現代가 가진 金剛이 아니오 百代千代까지 옴겨줄 金剛임을 새로깨닷자。

三華鎭을占領
翁源東方敵軍根據地

【廣東一日發同盟】廣東省東北山岳地帶의 頑敵을 制壓하면서 進擊을 繼續하고잇는 我精田、石原、上田、中野各部隊는 三十一日午後六時四十分 翁源東方二十키로 三華鎭에 侵入하여 이를 完全히占領 余漢謀軍의前線本據를 覆滅하엿다

武漢地區第一線 元旦奉祝攻擊

【漢口一日發同盟】皇紀二千六百年의 빗난瑞光은 勇士의 외치는凱歌에따라 第一線에도 차저왓다 歷戰의老兵、新銳의武者들로 配下하여 戰力이 益益旺盛하고 國魂이불타오르는 我等의精銳가 敗戰鋼鐵의 謀略作戰인 敵의 冬季攻勢를 徹底的으로 破碎하고 確信의 元旦은 感激이 一層기픈바가잇다 元旦午前八時 第一線의勇士는 全線一齊히 銃을노피들고 大元帥陛下의 萬歲를奉唱 戰勝의봄을 祝하엿는데 江北、江南에亘한 實로一千五百키로의 我第一線鐵桶陣으로부터 일어나는 萬歲의大波濤는 敵抗戰陣營의 心膽을 寒冷시켯다 나아가 我勇士는 江北 江南의 處處에서 彷徨하는 敵冬季攻勢의 殘部隊를 探求하여 "元旦奉祝攻擊"을 敢行하여 이날終日我銃砲聲은 山野를 震撼하여 聖戰第四年의 戰史劈頭를 裝飾하는 빗나는戰果를 거두엇다

中南支方面戰況

【上海二十九日發同盟】艦隊報道部發表

中支方面戰況

지난二十七日 我艦隊는 安徽省 貴池南方의 敵據點及 香口鎭東北 下隅畈附近에서 蠢動中인 敵部隊及 揚林磯에서 鐵大砲를가진 敵約百을 各各 砲擊하여 多大한損害를주엇다

南支方面戰況

海軍航空部隊는 二十六日부터二十八日까지의 三日間 廣西省省內 左記各地를 攻擊하여 甚大한戰果를 거두엇다

一、柳州에서는 同地飛行場、格納庫及附屬倉庫를爆擊 그大部分을 破壞하엿다
二、九塘、馬嶺墟附近에서 根氣지게抵抗하고잇던 敵地上部隊를爆擊하여 大損害를주엇다
三、保平에서는 敵彈藥庫에命中彈을퍼부어 이를爆破 炎上시키고 또同地新飛行場을 猛擊 同軍事施設多數를 潰滅하엿다 本戰鬪中 敵戰鬪機十二機와交戰하여 其中二機를 確定히擊墜하엿다

我軍의猛反擊으로 敵軍南寧奪回挫折

【廣東三十日發同盟】南寧奪還을 謀하고 蔣介石은 多數兵力을同方面에 集中하고 再三逆襲을하엿스나 이에對하여 我軍은 每方面에서 猛烈한 反擊을加하여 我部隊의果敢한 攻擊과 陸軍獨特한 進擊으로 이를擊破 十二月中旬以降同月二十九日까지에 判明한 方面을確保하고잇는데 敵의損害는 九塘前面만으로도 我○○砲及 空爆에依하여 擊滅한 敵砲兵七個中隊를完全히 擊滅하엿는데 敵遺棄死體는 一萬三千五百으로算定된다

人事·集會

▲尹泰彬氏(江原道知事)金剛山火災人事次來社

今日의本紙附錄內容

歐洲新秩序來觀(附錄其六一面) 李相昊
事變處理大方針의解剖(同七面) 特輯
무슨事業을할까(同三面) 特輯
大陸在留同胞의現地絕叫(附錄其七一面) 申基碩、韓曹容、金瑛載各氏論文
"쌀과金"(同二三面)特輯
"우리志願兵"(同其八面一)特輯
七道旱害現地報告(同二面)特輯
最近百年間陰陽曆對照表(同四面)
低物價政策과商界(同其九一面)特輯
庚辰年의새課題(同二面)特輯
"내가만약歐洲에進軍을한다면"(同其十一面)娛樂特輯
"學藝朝鮮의前進譜"(同三面)特輯

不再錄號外發行

本報는 金剛山火災事件으로 三十一日及二日 各一回의 不再錄號外를 發行하엿습니다

今日本紙附錄 合二十四面

3日封切
東寶 御存知東男 ロッパの新婚旅行
東寶豪華新春映畫
原作 邦枝完二 監督 岡田敬
長谷川一夫 特別出演
山田五十鈴 主演
東寶ロッパ新春特作 山本嘉次郎作品
古川綠波・三益愛子・川田義雄 主演
若劇

四日ヨリ 暖流 后篇 銀の卷
佐分利信 德大寺伸 高峰三枝子 槇芙佐子 水戶光子 齋藤達雄 共演
原作 岸田國士 監督 吉村公三郎
磊落な青年と、近代女性の異なった二面を代表する智的な二人の若き處女の感情の交流を描く 松竹大船文藝大作!!
美男の人氣者テイラーが裸になって颯爽ご躍動!! グローヴをはめてテイラーの輝かしくも新らしき男性美!!而もリンクに火花散らすテイラーの爆發する人情ごロウマンスごスリルの華!!
ロバート・テイラー モーリン・オサリヴァン エドワード・アーノルド 主演
リチャード・ソープ 監督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 特作
群集の歡呼
午前十時開演
明治座

賀正
龍
キッコーリウ醬油

新富座
一日·二日·三日マデ 毎日午前十一時ヨリ
美人床
美枝子の兄
大船超特作

東洋劇場
劇團靑春座新春特別大公演 正月一日낫부터
方仁根先生原作 李雲芳脚色 魔都의香불 四幕七場
새해에福많이바드십시오 금년에도變함이업는愛護를바람니다!
次週上演豫告 李雲芳作 눈물의天使 三幕七場
近日上演豫告名劇本! 金相洙先生原作 金承久脚色 情火 四幕七場
南宮雲作 人生大學 四幕五場
金健作 愛情의花園 四幕五場
電話光二一五四番 四四九五番

京劇
新春豪華番組 五日ヨリ封切
新興東京特作 街の花賣娘
新興東京特作 里見八犬傳
新興京都總動員映畫
第一回十時 第二回一時 第三回四時 第四回七時
新興京都花形スター實演と御挨拶六日限
實塲まり 草島競子

優美館
一月二日より大公開
ファストテビジョン 超特作日本版 レッドワゴン
チャルス・ビックフオード主演 クレタ・ニッセン助演
コロムビア社超特作日本版 雷電惡魔地獄
チャレス・スタレット主演
新興キネマ東京大作 女難突破 藤井貢 美鳥まり 立松晃 山口勇 大共演
事變ニュース

大陸劇場
自30至4日より日間上映時間表

	純情二重奏	ニュース短篇
1•	10•40—12•46	10•00—10•37
2•	1•36—3•42	12•56—1•33
3•	4•32—6•33	3•52—4•29
4•	7•30—9•33	6•50—7•29

次週 ボルカの歌姬 娘の問題

金剛靈峯大山火詳報

本社特派員 李鍾模手記

四男妹일흔警防團員

神溪寺萬歲樓를건진僧侶들의活動

災難속에서보인協同精神

외금강화재때에 자기의 위험을무릅쓰고 용감히 활동하여사실 미담은 여러군데서 들을수잇섯다 경방단원들은 자기집은조금도 돌보지안코 모두산에서나려올리는 불길을 막고자 힘쓰기에노력하엿다 도고성군서면외우리(高城郡西面外雨里)에사는 김모(金某)는 동리에 부른 불붓고러나가서 활동하는동안에 삼섭일밤에자기집이 타버렷스며 집이라는바람에 미처피하지못한 그의 어린자녀사남매는 참혹히도 불속에서 타죽어버린 사실도잇다 일일에 회재현장을 순시한 강원도지사와 경찰부장은 고성경찰서장에게 자세한 사정을 조사하여 보고하게하여저장차 표창하기로 되엇다 또신계사(神溪寺) 감사(監事)승려 김원미(金元眉)씨는 그절 만세루(萬歲樓)전경에 불이붙은 것을보고 단신으로 사다리를노코전경을들고 천정안으로 드러가서 용감히 힘을다하여 불을꺼서 그귀중한 건물을구원하엿다 그는 바로 그근처에 자기집이 잇섯지마는 자기사사집보다도 절집을 태워서는 안된다는생각으로 사사는 이저버리고 공사를위하여 용감히 활동하엿슴으로 그와함께불끄기에 활동한 김일산(金一山) 김병률(金秉律)두승려등 세명에게 대하여 일반의 칭찬이자자하다 외금강공립심상소학교 좌등(佐藤)교장도 그학교주위에불이 에워싸여서 강풍으로 학교집에 거의 불이붓게되엇는데직원과 함께 도끼로써 정신업시 닥치는대로 나무들을 베어넘겨버려서 참으로 위태한지경에서 그학교를 안전히 건저내엇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그릇전한 그학교전소되엇다는 소식을 막아버렷다 더욱이 온정리에서는국봉(國峯)경방단장이 굿세게 단원들을 지휘하엿기때문에 온정리상백호부락을 안전히 불속에서 구조하여내게된것이라하여이곳 주민들이 모두찬양하고잇다

(사진은 만세루 불을끄려한 김원미씨)

도하고 부락민들 손수인솔하여 지휘에노력한외금강번영회장문명진(文明鎭)씨는이번사회를지루고나서다음과가치기자에게말하엿다

산화가 단순히산화에멋치지안코 민가여러채까지 태워버리게 된것은 한층더 마음아픈 일입니다 우리생각가태서는 사람보다에서 낙엽(落葉)…

避難民沙汰의長箭

무시무시한災地慘跡

外金剛에서 元山支局 劉東敏手記

봉금강산이 불붙에잣것다! 하는 놀라운소식파아울러 온정리를비롯하여 외금강에부터잇는마을이모두 위협하다는소식을 안고 기자가 동해북부선에 몸을실엇슬때에는 벌써 장전방면과 온정리로가는사람 그리고 금강산사찰에편게될 가지고잇슨 수다한승객들이모두 근심에차여 …

"火焰속의溫井里"

奇蹟的으로救出되기까지經過

외금강화재에대한 전후이야기와 주민들의 피란당시상황에대하여 외금강경찰관주재소 삼천(三田)순사부장의 이야기를 드르면 이러하다

처음에 불은 삼십일오전세시쯤에『가는골』송선도골현장부근에서 낫다 현장은 온정리로부터 약사리(조선리수로사삼리)가량되는데 처음에 경방단원파주민백명을 출동시켜 현장으로가서 오후두시에 우선 불을진정시켯다 그런데 다시 불이 나서 그때에 바람이 사십미돌이나되는 속력으로 통남으로향하여 맹렬히 부럿다 도저히 인력으로는 감수업는 상태이고뿐 도루 온정리로 경방단 일행은 데 불길은 첨첨세여서 사람보다 불이먼저압섯다 근근히 온정리로 도라왓다 그때에 벌써 온정리의 압뒤산에는 불이붓터 서 온정리주민들 피란 활길 도조차 막히엇다 때는바로 삼십일오후 일곱시쯤이엇다 이불은 한편으로는 편물봉을 넘어와서 온정리방면으로 번젓고 도하갈때는 신계사방면으로 도하갈때는 옥류동(玉流洞)으로 …

흘는거니떠

가시ー집【名】"처가"(妻家)의 낮은말

가오리【名】말리어 놓은 홍어(洪魚)

카리1 통발 비슷하게 대로 엮거만든 고기잡이 가구

十年積功의金字塔

朝鮮語學會의辭典編纂事業

結實의가을도드디어追頭

❷

探勝고쓰以外

外金剛驛前舍長 文明鎭氏 談

新年劈頭에大火

京町太陽製油會社全燒損害四十萬圓

江西郡下大火

三十四號全燒

住民三名火傷生命危篤

大和號羅馬着

【羅馬卅一日發同盟】삼십일일오전여섯시십오분 로ー도스섬을출발한 이태리 발렌진선기 대화호는 일일오후로마로향하여 동일오후 아호시오분(일본시간섭일오후 한시오분)로마의아라트르티오 비행장에안착하엿다

스포ー츠

成城高校를一蹴코 城大豫科快勝

全國高校蹴球二日

天氣豫報

京城府龍頭町二三〇番地 新療 病 速治劑 肌丸本舖 東都製藥合資會社 電光 三三三七番 振京 三〇〇四三番

㊉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 京城府古市町十四番地

京城中學町 東亞合同木材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〇二〇番

京城府竹添町二丁目二番地 漢城精米所 主 曺秉學

オフセット印刷 秀英社印刷所 京城府禮智町二〇〇 電光③一八五九番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七四 金潤濟商店 電話本局②一八三三番

賀正

李先根小兒科醫院 京城府壽松町二六番地 電話光化門二〇〇八番

京城 金弘琯內科醫院 京城府中學町二六番地 電話光化門三一三番

京城府寬勳町一二二番地 書籍文具卸小賣 東光堂書店 李晶來 電話光化門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二二番

京城府寬勳町一二三〇 鍾路會館 電話光化門二三三四番

京城府寬勳町五五番地 咸濟醫院 金明汝 電話光化門一四六六番

各種織物商 京城永樂町二丁目七十二ノ九 辻久商店京城支店 電本局六四二七三番

大西拓殖株式會社京城營業所長 常務取締役 奥田德信

京城府堅志町二一〇 神祐製藥所 振替京城二四四八二番 電話光四三〇四番

京城サービス 鄭亨默

麒麟麥酒株式會社 京城支店

朝鮮麥酒株式會社

京城府寬勳町二五九 海東ホテル 電話光化門二三八九〇番

光東書舘 金永完

京城府寬勳町二七五番地 鐵南紙物舖 金貞烈 電話光化門一一七六番

京城府通仁町一〇番地 大明鑛業所 鄭明善 電光三〇二五番

絹織物商 興亞洋行 京城府貫鐵町 電話光3 二三七番地 二〇三〇番

朝鮮京城府長谷川町一二番地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電話本局二三三四番 振替京城六〇〇五番

京城府京町十一番地 東亞工業株式會社

中央舘 大石貞七

東京建物會社京城支店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 社長 矢島杉造

朝鮮電力株式會社 京城府太平通一ノ一九

京城府瑞麟町一番地ノ一 朝鮮水產開發株式會社

京城府太平通一丁目十九番地 三中井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內藤熊喜

漢江水力電氣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二ノ一九三

妙案과秘策을듣는座談會

慶南道篇 ①

작년 중남조선각도를 엄습한 미증유의 한재피해상황에 대하여는 벌써세인주지의 사실이다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책과 재민들의 당국을 신뢰하는마음과 한해극복에 불타는 자분자려의 엄세정신은 전화위복의 성과를 나타내고잇거니와 새해를 마지하여 한층더 철저한 결심과 분투노력을하여야할 현하에 노여잇스므로 본사에서는 각도관민의 파거체험담 아프로의 새로운 결심과 대책을 지상에 소개하여 참고에 공하기로한다

吳敬一 여러분이 되어서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처럼 참석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번의한해는 사상(史上)미증유의 대한이라합니다 이한발의 해를입은 수만흔 이재민은 한해와 굳세게 싸우고잇습니다 이한해극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조흔의견을 배청하고저 오늘밤 이좌담회를 연것입니다。한발의 일대시련을 어떠케 타개하며 어떠케건설하여 가는지 당국측의 지도와대책 민간측의그에대한 비판의의견을 기탄업시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먼저천전 내무부장께서 우리도의 한해에대한 실정을 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增田 간단히 말삼하겟습니다 금년남조선의 한발은 아시다시피 미증유의것입니다 지금부터三十八년전의 이태왕(李太王)삼십이년에도 대한이잇섯는데 육십년래의 한해라합니다 명치구년으로부터 백년래의것이라면 순조삼십이년부터를 말하는것입니다 역사로보면 육십년전인 명치구년에서 백년래의 한해가 한번잇섯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이래의 참담한 한발은 내지의 천보기근(天保飢饉)이 참혹하엿고 이번 한해는 그에지지안케 참혹하나 그러나 이번은 한발대책이 조와잇슴과 이재자의 정신적이 그참상을 백년래의 참상으로 나타내지 안는것입니다 예를드러 황정(荒政)을잘하고 잘못하는 그나라정치에 지대한 관계잇슬수잇다고합니다 오늘날의 한해대책이 잘된것은 조선총독부가 조와잇는것을 증명하는바로 지나사변상면째에 한번민심에 동요가 잇게된다면 안될것입니다 총독, 총감, 지사, 참여관의 지도가 조화되엇다 그부하가 일치협력하게된 것과 현명하엿던 탓입니다 어 관리만이아니라 일반민중도 그처지를 잘이해하여 일대시련이라생각하고 한해를 극복하려는것을 몹시감개무량합니다 조선에서 미곡수확은 이천사백만석인데 금년은 일천사백만석으로 천만석이 감소된것입니다 이나 강하하엿고 경남은예년 이백사십만석이던것이 반분이 나가수확량이나 미작이안정된것은 기범을 마지안습니다 유심변적인 이태왕삼십오년의 한발에는 칠순조삼십이년의 한해가 누누이잇스며 천보기근도 참상을노엿서고 천명(天明)기근이란 아사자가 속출하엿다합니다 인도에서는 일팔백칠십칠년부터 일천구백년의 이십오년간에 기근이 십팔회나 잇섯고 그사이에 이천육백만인의 아사자를 내엿다고 합니다 이런데 비하면 금번의 조선정치가 훌륭한것과 민중의 신이 고상한데 감격할바입니다 그러나 한해의 정파가가 다 심각이 나타나는것은 이장 동해출공기 즉 사오월입니다 당국으로서는 이러한점을 배려하여 한해대책사업으로서 토목 토지개량 사방 임도개설의 대책사업을 세운것입니다 그러치만 일반농으로서도 금일의 한해에 출곤한 각오로써 훌륭히 극복할 각오를가지기바랍니다 식량대책에 대하여서는 산업부장주관이니 산업부장에게부탁합니다

遠藤 이제송전지사으로 내무부장께서 말슴하셧슴니다 주로식량문제에 이일하엿스므로 나는 주로식량문제를 말하겟슴니다 금번경상남도의 미곡은 평년이나 감수하엿슴니다 그러면 본도에서는 일년에 쌀이얼마나먹는가? 기왕 삼개년의실적을 조사하여보면 한사람이매 소화십삼년에는 오두 십이년에는 칠두 십삼년에는 팔두씩으로 매년 미곡소비량은 증가하엿습니다 이것을 평균하면 일년에칠두오승을 먹는셈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쌀이부족하므로 그대신 잡곡을보충하여야됩니다 칠두도정 절미로써 부족미곡의 보충에 노력하면 량에는 걱정이업겟슴니다 경남에서는 도에 곡물배급통제조합을 설치하고 충분보충할 여 각군부의 신업에따라 매월소요수량을 배급하게됩니다 이리하여 부족식량 약사오십만석의대책으로 잡곡을먹으면 십오년시월까지는 문제업슬것입니다 금번에 대용작에서 이심만석의 수확이잇서스므로우선그것으로 당분간 먹을수잇습니다 십오년 오월까지만 어떠케하여먹는다면 그다음부터는그에요할 대책이 서잇습니다 즉 보리농사가 그것입니다 경남에서 맥작의 신규확장은 오천정보인데 그것에 이터이므로 그보리가 익는날이 식량은 문제업슬것입니다 다음 이보리가익을때까지 수입을위하여 토목, 사방, 토지개량, 입도하사에 부업을장려 [illegible] 가를 청하엿는데 내지에서 주문이잇스면 경남에 보내줄로 생각합니다(계속)

日時	昭和十四年十二月十八日午後六時半
場所	釜山鳴來閣

出席者

官廳側=遠藤(慶南產業部長)、增田(慶南內務部長)氏

民間側=金秉圭氏(道會議員、東萊酒造組合長)、尹炳浩氏(釜山府會議員)、金璋泰

本社側=吳敬一(慶南文社長)、吳旺(慶南支社總務)、下村甲(本社慶南特派員)

對策은이미確立!

雜穀等代用食徹底勵行으로食糧걱정은僅免

[illegible] 하고잇습니다 [illegible] 각 [illegible] 본도의 [illegible] 가마니짜기를 장려하기로 하엿습니다 이가마니는 한매 만매를 더바틀작정으로 요컨

(사진은 좌담회)

解消되는入學難

適齡兒童收容力一〇〇%

平壤府內初等教育界의明朗譜

【平壤支社發】평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금춘사월에 제이특별경제(조선인)급계소학교에 입학할 적령아동은 사천오백여명으로작년보다삼백여명증가하리라한다 이에대하여 금춘에는 사학급을 신설하여 전부를수용하게되엇는데 작년봄에도 이부제교수학급을 구학급계획하엿다가 오히려 삼학급을 감축하엿든만으로 충분하엿던사정으로 미루어보와 비록이적령아동이 한명도 빠지지안코 입학을 지망한다하여도 그전체의 수용이 염려업는일이라고 부당국에서는 낙관을하고잇다

開城新蔘逐出廻

今年生産은十四萬斤

【開城】개성명물인 고려인삼도 금후로는 도지사의 허가를맛고 그허가된협정가격에 의해서 판매하기로 역제되어 실찌기 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에서는 금년산삼에 대한 소매협정가격을 도당국에 인가신청중이더바 지난이십일 무사통과되어정식인가가 나오게되엿다 시인삼판매조합창의 팔십여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할당사정을 마치고 또는 개성삼업 주식회사의 주연회의 승인을 엇기까지 열흘동안이 걸려서 지난달 삼십일에야 창고에가치엇던 백삼은 상품시장에 지출을 보게되엇다 따라 그출매시기는 작년보다 십오일간이나 느젓스며도 한 그생산수량은 본삼(本蔘)미삼(尾蔘)합해십사만여근으로 작년보다 약삼만여근의 감소를보앗다 이가치 생산은적고 가격은더욱더곳산에비해 저렴하여 출회시로 꼿매지되고말것이라고 일반은 말한다

金黃海知事赴任

記者團에第一聲

【新義州支社發】신임황해도지사김병태(金秉泰)씨는지난달 삼십일 오후세시삼십분해주역착 열차로 단신문하게되엇는데 이를리이에는 부내각관공서 직원각단체각학교생도 민간유지등 수천명의 출영자가 잇섯다 이보다먼저 도중에 출영한 기자단에대하여야 래와가치 말하엿다 도정에대하여서 기금부터이라 지안테 여러분의후원과 부탁말할수업다 그야말로 전연백지이다 파문부에 어그러짐이 업도록하기 위하여 연구노력하겟다 취미라고는 아무것도업다 시간이잇스면 독서하는것이 취미라할까 (술은수년래 중지하엿스나 때로는 상당히먹을수 잇다 해수는 듯건대 바람과 물과 말이 (風多、石多)만타는데 나에게대한말이 만치안코 록가의후원을바란다

大端川企畫進展

今月中旬에工事着手

【咸興支社發】대단천기획의일부 공사자의설계가 지난달 이십칠일함남도토목과에서 꿋마치스므로 새해에는책상우에서부터 실지공사에착수하게되엇다 그설계의내용은 엄비에부처서 자세히는알수업스나 측항은 내항(內港)개선 암벽(岩壁)이 육백미돌 수심十미돌로써 유천톤급의 기선네척을 동시에입항케 할수잇게하며 일년의하역(荷役)은 백만톤으로잡고잇다 또 어항은 암벽이 일천사백 오십미돌 수심은삼미돌반 바파제는 육백이십미돌로써 도내제일큰어항이된다고한다 도당국에서는 이월초순 도지사의 이름으로 공공수면매축과 굴착(掘鑿)인가 신청을 드릴터이며 공사는 십오일부터 착수할터이라고한다

國防獻金

東亞貿易會社서

【永興】함남영흥(永興)동아곡물무역주식회사(東亞穀物貿易株式會社)에서는 자진하여금일천원을 동영흥경찰서에 기탁하여왓다고 한다

가륵한特志家들

千圓을義捐

金在奉氏의美擧

【義城】지난십이월이십오일의 성봉국동(義城邑竹洞)김재봉(金在奉)씨는 중남조선 이재민에게 나누어달라고 현금육백사십삼원과 대추 삼백오십칠원어치와합하여 천원을 순수 의성면사무소에 가지고온 갸륵한일이잇다 그에대하여 김씨는 왕방한 기자에게 다음과가치 겸손한태도로 말하엿다 일상연두에는 잇섯스나 원래 생활이 그리 넉넉지못하여 언제든지 기회만기다리고 잇섯는데 요즘와서는 장사도 경기가조치못하나 겨울을당한 이재민을보고나중에 남흔것보다 위선이것이나을까하여 소액이나바친것입니다

韓鍾燮氏의特志

【金浦】김포읍내 공의 한종섭(韓鍾燮)씨는 지난십이월이십육일에 김포군사회과에 오십원과 김포군공구지원회후원회에 오십원 합계일백원을 기부하엿다한다

廢品回收하여 旱災義捐

海星學院學童들이

【興南】흥남해성(海星)학원아동들은 그들이손수회수한 폐품매각금륙원십사전을 미증유의 한재로말미아마 궁경에 처해잇는 중남조선이재민에게보내달라고 본사 흥남지국에 기탁하여왓는데 비록액수는적으나 어린이들의가륵한 순정의발로라서 누구던지 칭송안흘이 업다한다

咸陽郡下에小火

【水東】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쯤 함양군수동면화산리(水東面花山里)노판상(盧判相)씨의 다섯살과여섯살되는 두아이의 불작난으로인하여 화재를일으켯는데 당지경방단의 맹렬한활동으로대풍중에도 일직지화시켜 돼지우리(豚小屋)한채를 태우고마럿스나 일반부모들의 조심이 필요하다고한다

南船北馬

신경특별시공서에서는 벌써부터 시내남호(南湖)서남주에 건설하여 국도신경의 기관을 장식하는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체조등의 기풍을노피기위한 『예술촌』창설을 계획하고잇던중 이미약삼십만원의 금비에 오십만평의 구역을 정하고 착수하기로 되엇다한다 ▲그결과 풍광명미한남호반에국립음악당, 야외극장, 무용연구소, 체조연구소, 미술학교, 음악체조학교 아치리에 등예술의전당이 뒤이어설립될것인바 각부문마다 지도자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계의권위자를 일본에서 초빙해오리라고전하며 ▲미술방면에는 벌써일본화단의제일인자 천단룡자(川端龍子)화백을 초빙하기로내정하고 씨와교섭중이라는바 멀지안하 실현되리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실현되는날이면 관옥부시장의말과가치 『국도의기품』도 자연 노파질것이나 일본에도 아직 이러한것이업는 소위〃예술촌〃을근거로 동양의 예술가가모여들어서 만주국 특유의 색채에빗나는 순란한예술의 꼿츨보여줄것을 확신할수잇는 동시에 ▲동서양의 예술정화인 신대륙의 예술촌에서 그열매를매즐것을 상상하고도 남음이잇다 (新京)

三國志 【56】

韓雲譯　熊超畫

曹操의復讐戰(六)

현덕이 가서 공손찬을 보고 서주를 구원하고저 하는일을 말한데 공손찬이 말하되 『조조가 그대로더부러 원수가 업거늘 어찌 피롭게 남을위하여 힘을쓰고자 하느뇨』 『내가이미 허락하엿스니 감히 신을 일을수가 업노라』 『그러면 마보군 이천을 빌려주리라』 『다시 조자룡을 빌리기를 바라노라』 공손찬이 허락하니 현덕이 운장과 익덕으로 본부인마 삼천을 거느려 선봉이되게하고 조자룡으로 이천군을 거느려뒤에 따르게하여 서주로 향하엿다 미축이 돌아가서 공융이가다시 유현덕이 청하여 구원을 [illegible] 보하고 청주의 전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며 오는일을 보하니 도겸이 저오기 아니하엿다 원래 공융과 전해의 두길군마가 조조의 형세를 두려하여 멀리 산을 의지하여 진을치고 감히 가벼이 나가지 못하니 조조가 두길의군사가 오는것을 보고 또한 군사를 나누어 감히 나아가 성을치지 못하엿다. 유현덕의 군사가 이르자 현덕이 공융을보니 공융이 말하되 『조조의 형세가 크고 또 조조가 군사를 잘쓰니 가벼이 움직이지 못할지라 아직 동정을 보다가 차차 치우리라』 현덕이 대답하되 『성안에 양식이 업서서 오래 지탱하기가 어려울까 두려우니 운장과 자룡으로 하여금 사천군을 거느려 공의 부하에 잇서서 서로도웁게 하고 나는 장비로더부러 조조의진을 뚤코 성에들어가 도공과 상의하리라』 공융이 크게 기뻐하여 전해의 군사를 모아서 서로 응하게하고 운장과 자룡은 군사를 거느려 량편으로 구원하게 하엿다. 그날에 현덕이 장비로더부러 일천인마를 거느리고 조조의진 갓을 직처들어갈새 진안으로부터 북소리가 일어나며 군마가 조수가치 나오는데 앞선 대장은 우금이라 말을세우고 크게 소리치되 『어느곳 미친무리가어데로가 느뇨』 장비가 그것을보고 말이업시 곳 우금을 취하여 두어합을싸울새 현덕이 쌍고검을 들고군사를몰아 크게나가니 우금이패하여 달아나는지라 장비가 앞서 직치며 곳 서주성 아래에 이르니 성위에서 붉은기에 『평원유현덕』이라 크게쓴것을 보고 도겸이 급히 성문을열게하였다. 현덕이 성에들어 [illegible] 로 대전하고 하편으로는 군사를 호궤하엿다. 도겸이 현덕을보매 모양과거동이 훌륭하고 말하는것이 활달한지라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미축으로하여금 서주태수의인수를 현덕에게 사양하니 현덕이 놀라며 도겸을 향하여 『인제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임금의 벼리가 떨치지 못한지라 공은 한나라의 종친이니 마땅히 힘써 사직을 부뜰것이오 나는 나이 늙어서 하잘것이 업스니 원컨데 서주로써 사양하노니 공은 사양치 말지어다 마땅히 스스로 표문을써서 조정에 보하리라』 현덕이 자리를 피하여 두번 절하고 『나는 비록 한나라의 종친이나 공이 적고 덕이 여터서 평원상이 된것도 오히려 분수에 지나고 지금 큰의를 위하여 서로 도음이어늘 공이 이러한 말씀을 내는것은 내가 무슨 욕심이 잇는줄로 의심하는것이 아니뇨 만일내가 그러한 생각이 잇스면하늘이 도읍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의 진정이로라』 도겸이 두세번 말하나 현덕이 질기어 듯지안는지라 미축이 말하되 『이제 군사가 성아래에 임하엿스니 마땅히 적을 물리칠 계교를 상의할것이오 서주를 사양하는일은 일이 평정한뒤에 다시 상의하는것이 올흔가 하노라』 현덕이 그말을 올히여겨 『내가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어 회해를 권하여 만일 조조가 듯지아니하든 싸우는것이 늣지안타』하고 각진에 격서를보내어군을 올리지 안케하고 사람을 보내어 조조에게 편지를전하엿다. 조조가 진중에 잇서서 모든 장수로 더부러 일을 의론하더니 사람이 보하되 서주에서편지가와다 하거늘 조조가 떼여 보니 그것은 유비의편지엿다.

오다라

二日(火)

▲午後六時 童話劇『새해의첫꿈』 京城童話會 作과演出 朴仁範

▲同六時三〇分 講演 新年展望(一) 韓圭復

▲同六時四五分 講演 新年展望(二) 張德秀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빠이올린協奏曲 D長調 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마에스토소 第二樂章 안단테·칸타빌레 第三樂章 론도 洪志裕 伴奏 金元福

▲同八時 라디오小說『太陽과가치』 村文雄作 金鮮英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 一、關山戎馬 二、긴아리 三、打鈴 四、긴難逢歌 張鶴仙 白牡丹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言編樂 四、羽樂 五、編樂 六、編 七、太平歌 (男唱)李炳星 (女唱)金花香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明長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番組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三日(水)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時報 오늘의料理

▲午後零時五分 (京)피아노獨奏 紀元二千六百年·奉祝行進曲 비로조·치마치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 解說 金聖泰

▲同六時 (咸)傳說童話『都連浦와龍馬』 朴應燮

▲同六時三〇分 講演 新年展望(三) 每日新報社長 崔麟

▲同六時四五分 講演 新年展望(四)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總督府社會敎育課長 李源甫

▲同七時三〇分 獨唱과二重唱 一、歌劇『魔笛』中의二重唱 모-차르트作曲 二、歌劇『椿姬』中의二重唱 베르디作曲 三、마스네-作曲 中의獨唱 四、歌劇『誘惑』中의二重唱 五、歌劇『토스카』中의소프라노獨唱 푸치니作曲 全彩紅 李光彩

▲同八時 京畿歌謠 一、小春香歌 二、달거리 三、排鋪四 五、朴淵瀑布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부러진날개』 李達作 DK드라마研究會 男 洪開明

▲同九時 南道歌謠 一、六字배기 二、興打鈴 三、報念 開고리打鈴 朴初仙 朴初月 안시어머니어이해 出演 金卜崔 金永鍊

▲同九時二五分 時調와謠唱 一、時調 二、三設記 李文源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番組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京)피아노 ▲同一時(東)講演 ▲同一時四〇分(東)歌舞伎 ▲同六時(大)唱歌劇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大)合唱 ▲同八時三〇分(東)드라마 ▲同九時五分(東)長唄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三番地 鍾路洋服店 李斗鎔

住宅新築 土木建築 一般請負 和洋式設計 李工務所 主 李春石 京城府城北町一二四ノ四 電話光化門③二〇四六番

國際大東貿易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浩然 京城府城北町五五ノ三

京城府會議員 城北町內總代 李信龜 京城府城北町一八六ノ五

京城府敦岩町 內科·小兒科 外科 皮膚·外科 産婦人科 一般 金大鳳醫院

京城敦岩町 處方調劑、有名賣藥 高級化粧品 仙壽堂藥局 藥劑師 [illegible]

朝鮮總督府指定農具工場 工場設計請負業 成農社 代表 成洛顯 京城驛前 電話本局②七〇七九番 振替口座京城四〇五六番

賀正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一一五番地 大陸化學工業株式會社 東邦工業株式會社 社長 金景圭

京城府元町二丁目一二一番地 成工社製作所 京城鍍金工場 諸機械製作修繕 ホクリ 鍍金 ニッケル メッキ クロームメッキ 金屬製作一式 スケート製作 電話龍山④一四五八番 電略(ケメ)又八(セイ) 振替口座京城二一〇四九番

京城府花洞町一一七番地 鎭痛鎭靜劑 ネオモヒナール 元賣 春信藥業社 元徽常 元雲常

京城府阿峴町七七番地 小兒肝氣 散製通丸 普生堂藥房 電話光三〇九五番 振替京城一九六五八番

京城府元町一丁目九三番地 兩進商會 電話龍山①一〇六五番

京光式精米機製作發賣元 京光社 李永完 京光社奉天出張所 李光淑 京城府漢江通二丁目 電話龍山⑨九六二番 奉天西塔大馬路三丁目 電話②四六九〇番

大陸ゴム工業株式會社 京城ゴム工業所 中央商工株式會社 朝鮮ゴム工業所 太平商工合資會社 世界ゴム工業合資會社 ソウルゴム工業社 瀨戶ゴム工業所

京城府阿峴町 府議員 車相鎬

京城府大島町三八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京城府竹添町三丁目五五 電話光化門③一二四三番 株式會社 生業共助社

京城府竹添町七四番地 ライオン藥業社 大陸公司藥品部

大陸化學工業株式會社 廉台振

麻浦公設市場 海產物及米殼果 姜鳳秀 製菓業 鄭雲龍 海產物 崔完用 果物及同 申順龍 飲食業 安上吉 菜 安上根 豚肉 高奉仁 精肉 李仁榮 精肉 李昌仁

京城府鍾路二丁目一九番地 高級洋品 布木 毛織物 金海織物合資會社 電話光化門③二三四番

京城府齋洞町二丁目 府會議員 李相殷

綿布 布帛 商 京城府孔德町一六六 相信洋行 振替京城一五七七七

京城府社稷町八二番地 白玉堂本舖 株式會社藥有堂 朝鮮配給所

京城府阿峴町一三三ノ四 朝鮮高粱酒株式會社 京城出張所 電話光七一一三番 振替京城一三五〇五

ネオテルダイン發賣元 九鼎公司藥品部 京城府唐珠町七番地 電話光③三五五五番 振替京城三一二四八

京城府積善町九二〇番地 大成產業株式會社 電話光三三九四番

京城府樓上町一六六ノ一三四 韓永錫 電話光三三九四番

京城府阿峴町 鮮人貸座敷組合 電話龍山三六五番 外組合員一同

京城府麻浦町一二六番地 龍江汽船株式會社

京城府元町三丁目 府議員 金應純

京城府安岩町一二三 柳海昌

京城府興農町六〇〇ノ一 朝鮮化學產業研究所 金 電話光龍九三九 起

京城府寬勳町一五一 京城土地改良開墾業組合 朝鮮家畜業組合 組合長 吳泰根 職員一同

京城府淸凉里町一 時兆社 京城府敦岩町二六 京城療養病院

京城府敦岩町 泰昌織物株式會社

京城府安岩町一二四 吳奎泳

京城府敦岩町三一九番地 回生醫院 醫師 崔日黙

西橋合井望遠町會 總代 金相敦 役員一同

延禧精米所 主 李敏台 京城府老姑山町 電話光三一六七番

吉州工業補習學校 職員一同 電話一四二番

吉州穀物商組合 咸北吉州邑吉州洞一二三ノ八番地 電話一二二番 發電略號(キ)又八(キコ) 受電略號(キッシウコク モツセウクミアイ)

吉州邑吉州洞 私立英新學校

吉州邑事務所 電話七番

吉州邑長 道慶寅一

テンキとラヂオ 電光商會 盧龍基 吉州邑驛前通り 電話一三八番

長白金融組合 電話十九番

咸北吉州驛前 金山自轉車商會

文具 書籍 文化書院 主 朴英燦

咸北吉州邑 吉州邑西門外 北鮮寫眞館 主 金承鎬

電氣 寫眞 夜間撮影 咸北吉州驛前 ホシ寫眞館 電話呼一〇九番

雜貨 食料品 咸北吉州邑內 一角貿易商 電話八一番 振替京城二一六番

泉屋洗染所 電話一四九番

朝鮮運送株式會社 吉州營業所 電話一八番

吉州金融組合 電話三三番

金升文

明月館 主 沈元洽

咸一商事株式會社 電話四三番

府會議員 李寅永 京城府合井町二八三 取次電光三一六七番

朝鮮耶蘇敎長老敎會 長老 金泰和 京城府西橋町五五番地

京城府 姜容杓

總代 張泰榮 延禧東橋町會 役員一同

毛糸編物 メリヤス 經木 帽子 製造販賣 金產商會 主 金哉英 京城府大峴町一一八ノ一 振替京城二五八三三番

永一製瓦工場 永一建築社 主 崔義植 京城府合井町二六一 取次電話龍山一三〇三番

京城府大峴町 李鍾會

漢藥洋藥 賣藥 化粧品 回春堂藥房

喪中欠禮 兄弟酒店 金金金 允允允 文明興

滿洲開拓民小說

大地의아들 (57)

李箕永 作
崔木朗 畫

歡心 (十)

언 공일날이엇다。황식은아침을 먹고 밖그로 나왓다。그는 귀순이의 태도를 물려서 은근히 몸이 다렷다。복술이를맛나볼까 하는 생각으로 술을내려가다가 다시 모든생각이 드렷든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을뒤 언덕으로 올라갔다。거기서보면 앞뒤들이 훤하게 내다보인다。

『두!두!저놈의 돼지나와라! 귀순아 어서 들루 모라내라 낫새밧속신다구 낭한테 욕먹을나!』

그러자 조금잇자니까 귀순이와 귀남이가 돼지떼를 몰고나온다。

『올타、인제 되엇다!』

황식이는 얼김에 부르지젓다 그는 이기회를 타서、궁금한속을 알아볼심산이엇다。

귀순이 남매는 돼지떼를 몰고 앞들로 나간다。황식이는그들이 가는 방향을 지켜보고잇다가 슬슬 마을로 내려왓다。

그는 이런길로 향하여 천천이 그들의 뒤를 밟어갓다。마치혼자 산책을 하는 사람처럼 도야지들은 꿀꿀거리며 한데로모여간다。가다가 뒤떠러진 놈이 잇스면 귀남이가 쫓저가서 채쭉으로 몰아너엇다。귀순이는 귀남이보다 떠러저서 천천이따로간다。그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머리를 숙이며 걷는다。황식은 그들에 방짝 쪼첫다。

『귀순아、돼자 모리나왓니?』

황식은 짐짓 인제야 보섯하며 이쪽으로 풀밭속을 뛰여온다。

『뭐?』

귀순이는 깜짝놀래서 고개를 처들엇다。그는잠시당황한빗으로 황식이를 바라본다。황식이는우선 귀순이의 두손보러 훔터보앗다。바지는 또안이였다。

(별일이다!)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속으로 생각해본다。정말로 바지는 저의 모친이 무서워서 안꺼슬까?

귀순이는 그대로 섯기가 열적어서、

『어디 갓다오니?』

하고、한마디를 무러본다。그리고 두눈을 치떠서 황식처다보는데 마조치는 순간의 시선이 여전히 쌀쌀하다。

『저기까지 나왓다가 네가 잇는걸보구 이리와다』

귀순이는 더할말이 업서서 귀난이잇는데로 도라서가랴한다。

그러나 황식이도 그어플로 부러갓다。

『뭐라구 물어볼까?』

황식은 가슴이 울렁인다。반지를 왜 안꼇느냐구 물어볼까? 그랫다가 고게또 성을내면 어찌할까?그래 황식은 잠깐 망서리다가 이러케 운을떼엇다。

『너 복술이한테 반든것이지?』

『뭘바더?』

귀순이는 고개를 외 도리키며 매정스럽게 톡쏜다。

『밖구서두 공연이……바덧스면 어떨것 뭐잇니?』

황식이는 싱그레 우스며 귀순이의 눈치만 본다。

『맛긴 뭘바덧다구 그러니?그애는 참 우서죽겟네』

귀순이도 더한층 새따리가치 시침을 뚝딴다。

『뭐?정말루 안바덧서!그러디가 잇나…』

황식이는 진가를 알수업섯다 그러나 그는 종시 귀순이가 부러그러는 줄로만 알엇다。

『너 부그러워 그러지?…그까짓걸 묵그러긴뭐…』

『이애가 미첫나베! 밧긴 뭘바덧다구그러니?』

『반지말야! ─ 복술이가 요전에 주거말야……』

『저애가 미첫나 실성햇나!애 ─ 그러렴정한 거짓말은 하지두마라…』

귀순이는 성이나서 푸르르하여 핵도라서간다

『아니 정말루 안바덧서?』

『저애가 아마 허패에 바람이 드럿나바!』

황식이는 한동안 멍─하니 그자리에 부러섯다 이게 도무지 웬일인가? 멀정한 사람을 미친놈으로 만들다니 복술이가그럼 거짓말을한것인가? 그럿타면 요놈을!……

그는 그길로 복술이를 차저갓다 사방을 허매야 복술이는 간곳업다。

『이자식이 어디로 갓나 정말 이자식이 거짓말을 햇다뭡인가?』

황식이는 동리아이들을 만나는족족 물어본다 그러나 모른다는것이다 나종에 여러사람에게 조사한결과 그는 만인거리의 호떡집에가 드러박힌것을차저내엇다。

『너 여기서 뭘하니?』

황식이는 복술이를 이러케에서 차저냇기 더욱 의외인만큼、더욱 그에대한 의심이 더하엿다 그러나 지금 복술이는 일전에 황식이가 준돈으로 혼저 몰래 술을 먹고잇섯다。

大邱

大邱府壽町一八 朝鮮料理 西洋料理 海東園 電話 六五四 一一九八

料亭 八千代 大邱東本町六二 電話特一二八二

喪身中缺禮 達城郡玄鳳面上洞 郭洙得 達城郡玄鳳面上洞 郭洙鶴 達城郡玄鳳面下洞 郭洙龍

朝鮮大邱府七星町五三一 石鹼曹達製造 ○○三共合資會社 特電話九七七番 發信電略(サ)ヌ八(サケ) 受信電略(サンキヨウ)

大邱東雲町二五七ノ九 金一基

大邱府本町 織物貿易 金聖在商店 電話長二二八九九

大邱府尹

大邱府院垈洞 三南고무工業社 三南被服工場

慶北無盡株式會社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大邱支店

大邱製絲株式會社 片倉紡織株式會社 大邱製絲所 朝鮮生絲株式會社

大邱上西町 達城券番 電話特九六九 三七九

大邱府京町一ノ八四 辯護士 金完燮 電話特六三二

大邱府德山町壹百貳拾六番地 朝鮮料理 大東食道園 電話九六二 〇二〇六一番

中樞院參議 張稷相 大邱府南山町

大邱府上洞 秦相龍

大邱 慶北貨物自動車株式會社

大邱朝鮮酒酒造組合

大邱雜貨商同友會

大邱下西町 朝鮮料理 西洋料理 琴湖館 電特三六八 九二一〇

大邱府市場町一五番地 三和護謨株式會社大邱出張所 主任 金禮俊

大邱府德山町二二七番地ノ二 東亞興業株式會社 電話二二二三番

大邱府村上町四九 不二乃家內 お笑太郎染 電話一〇三五番

大邱府醫師會

大邱府東城町三ノ九 金相台

大邱 三中井

大邱府市場町一八一 興亞物產商會 金在彰 電話長六四二番

達城郡玄風面下洞一一八 司法書士 徐漢秀

達城郡玄風面下洞 金潤奎

達城郡求智面 面議員 醫生 金命祚

中樞院參議 徐丙朝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慶北支部

慶北內務部長 瀨戶道一

大邱府新町 啓聖學校

大邱金曜會

慶北產業部長 具滋璟

大邱府錦町二丁目 大邱商工社 電話特三五九番

共榮自動車株式會社

大邱府內官公立中等學校長會

大邱府西城町一ノ二三五 藥業 金孝善 電特一七二八

大邱府東城町 大邱府會議員 朱秉煥 電話六〇〇番

大邱府達城町七ノ四 東亞釀造株式會社 電話九一七番

達城郡教育會員一同

喫茶 花月 大邱中央通リ 電話四七八番

大邱商友會

大邱稅務監督局

大邱本町一丁目 達西洋靴店 電話八七九番

高級紳士服 共信 大邱德山町 電話五九四番

大邱府横町 秋秉和

慶北道會議員 大邱府會議員 坂本俊貧 大邱本町二丁目

大邱府 杉原合資會社

大邱府市場町 大邱カレンダー商會 主 鄭松億 電話三一四番

達城郡玄風面 玄風酒造株式會社

達城郡玄風面下洞 安右洙

大邱醫生會

大邱 慶北商工株式會社

大邱府南城町 藥種貿材 金弘祖藥房 電話一五二八番

朝鮮大邱府南城町 大邱紙物商會 金弄春 電話長六八一番 振替京城一〇七六六番

大邱府市場北通一五〇ノ三 靴下メリヤス 既成服 製造卸商★ 石川商會 主 姜相文

大邱府會議員 李相烈

大邱府村上町 料理旅館 水戶家 電話三七四

大邱府横町 料理 明月館 電話特五三三番

邱一不動株式會社

徐廷浩

慶北道議員 林尙助

製油原料 各種油油粕 製造及貿易 大邱製油所 營業所大邱府德山町一六三 電話特九七八番 發電略(タイ)ヌ八(タイコ) 振替釜山五五〇五番

大邱府南城町 朝鮮藥業株式會社

大邱東雲町 大東酒造株式會社

達城郡 解顏面職員一同

達城郡求智面 ゴム商 金二祚

達城郡論山面 事務所職員一同

達城郡廳

神秘丹本舖 景春堂 大邱達城公園前 電話九四番

大邱府錦町一ノ二五 全大東運送店 電話特八〇八〇

大邱府元町一ノ四〇 山本自轉車店 電話八〇四番

大邱府市場北通 金潤得

大邱府西千代田町四五 趙誠完商店

達城郡 瑜伽面道議員 瑜伽面協議員 郭東寔

大邱府市場町二二七番地 各種材木製材 松丸太 山林直營 正信材木店 主 金錫柱 電話長一四六六番

大邱府本町二丁目 調度 布木 金昌錄商店 電話特一三八番 二五八番

達城郡玄風面 警防團副團長 李聖熙

大邱布木商組合

大邱府京町 金在煥

大邱本町二丁目 洋靴原料 大昌皮革店 主 尹南龍 電二二〇七

大邱稅務署 懇話會

大邱府會議員 鄭雲用

慶尙北道農會 慶北米穀統制組合聯合會

慶尙北道廳 食堂員一同

大邱府東町一番地 朝鮮自動車興業株式會社 大邱出張所

慶尙北道知事 上瀧基

慶北警察部長 山村正輔

大邱信明學校

大邱府新町一二五 胡麻油 元料肥料 物問屋 貿易 東洋製油商會 電話一七八八番 振替釜山六六〇五番

大邱下西町 鄭海鵬

大邱横町 李柄學

大邱府新町一〇二番地 大邱オイル商會 朴在寬 電話二二九八

大邱公會堂食堂 大邱八五三二番

大邱東千代田町 東光醫院 電話八五五

大邱府 復陽堂醫院 金觀濟 電話八六番

大邱府會議員 徐錫現

大邱德山町一〇六 高級絹織 花城商會 主 徐丙烈

達城郡壽城面 面長 許東龜

大邱實修學院 院長 朱德根

大邱府德山町 織物商 林福秀 電話特一三六一番

大邱府上西町一七 崔鍾達

大邱 慶尙北道立醫院

大邱錦町一丁目 荷主合同運輸組

大邱府京町二丁目六六 徐丙元

大邱 市場町 織物貿易 陸致雲商店

大邱京町二丁目 救世醫院 院長 李在瀅 電話五七〇番

達城郡玄風面下洞 金顯謨

大邱府西城町九八 趙環濟 電話二〇七

達城郡玄風面會議員 徐昌和

達城郡求智面長 郭在淳

達城郡玄風面 事務所職員一同

連山

忠淸南道議員 姜永植

連山驛前 李重珪

連山驛前 金愚鉉

連山邑內 金駢鉉

連山邑內 金圭鳳

豆溪 辛晚植

豆溪 鄭智永

論山郡連山面 職員一同

論山郡陽村面 職員一同

論山郡連山面校村里 文雲鶴

連山邑內 連山酒造場 尹濬

連山邑內 綢緞布木和洋雜貨 蔡先君商店

論山郡豆磨面道谷里 金永老

連山邑內 朝鮮料理 黃城屋 主 金永奎

論山郡連山面松山里 崔鳳熙

連山邑內 米穀 肥料 連山商會 金永濟 都相郁

豆溪市場 合名會社 鷄龍酒造場

論山郡陽村面鳴岩里 李泓九

連山邑內 三星寫眞館 主 李明熙

連山邑內 本田大禧

連山邑內 尹善福商店

連山邑內 李大植

連山邑內 司法書士 崔榮範

連山邑內 鍼灸院 李宗純

連山邑內 李洪濟商店

連山邑內 古物商 尹相洙

連山邑內 連豐商會

湖南線連山驛前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連山營業所

連山邑內 穀物貿易 金泳泰商店

湖南線連山驛前 代行營業所 代表者 李民濟

連山邑內 連山精米所 主 李順平

論山郡陽村面仁川里 李憲植

連山邑內 鄭基伍商店

論山郡陽村面新興里 金永斌

連山驛前 湖南食堂

論山郡陽村面仁川里 林醫院

湖南線連山驛前 大田旅館

連山農業倉庫 金昇漢

湖南線連山驛前 運送店 主 鄭在

論山郡連山面松山里 李永宰

論山郡連山面官洞里 宋洛在

豆溪 金晚洙

朝鮮日報

新年號 其六

米、伊、蘇軍備現勢。 米國陸軍七十三萬三千、空軍二千機、海軍三五五隻、伊太利陸軍百五萬、空軍五千機、海軍二四九隻、蘇聯陸軍二百十五萬、空軍八千五百機、海軍一八一隻 (以上昭和十二年末現在)

近代戰의深刻한波動

國際秩序變革은必至

今次大戰의結末은?

古代戰爭의 原因을 살펴보면 簡單하게도 一國主權者의 感情에서 出發되는것이 通例엿다. 이感情이란 內容은 英雄的霸氣도 될것이오 封建的決意도 될것이요 歷史的 復讐도 될것이오 征服的野慾도 될것으로 언제나 一方的感情衝動에 基因된 征服形式에서 흔히 戰爭이란 事態를 자을수잇섯다. 그러나 近代戰爭이란 이가치 一君主 一主權者 一英雄의 一方的征服慾 또는 私感의 發露만으로는 決코 戰爭勃發의 原因으로 成立되지 못할것이오 적어도 一國家又는 數國家群의 全般的利害衝突을 原因으로 하여 이 利害의 矛盾을 解決함에는 政治秩序又는 社會秩序, 나아가서는 國際秩序의 變革乃至 改造를 要求하는 事態에서야만 戰爭의 勃發을 期約할수잇슬것이요 함께 그原因이될수잇슬것이니 여기서 古代戰爭과 近代戰爭原因의 素性이 다름을 發見할수잇는同時에 戰爭의 意義와 性格까지 判異하게된것을 차즐것이다. 戰爭의 原因만이 그런것이아니다. 結果에 잇서서는 古代戰爭에잇서서는 戰敗國으로서 犧牲은 戰敗當事國만이 戰勝國에게 倂合又는 隸屬化되는 境遇도 잇던하면으로 戰勝國의 征服慾을 滿足시키는 程度에서 屈辱的인 賠償國又는 附庸國으로 戰爭結果를 매젓다.

이에反하여 現代에잇서서는 兩國又는 數個國間의 戰爭結果는 戰爭當事國에만限하여 賠償又는 倂存等條件으로 團圓이되지안코 戰爭當事國以外의 中立國이라도 深刻한 波動을 입게되어 大規模의 國際秩序에 變革을 이르키는하면으로 甚하게는 國內政治秩序의 變革乃至 社會秩序의 變革까지 招來하게되는것이 常例로서 第一次歐洲大戰結果로 中歐諸小國의 離合分裂과 北歐諸小國의 新誕獨立과 아울러 國際聯盟의 誕生等은 國際秩序上 變革을 이르킨事實로 獨逸、伊太利、西班牙、土耳其等諸國에서 君主制의 改廢 獨裁政治의 出現等은 國內政治秩序의 變革을 보인實例로 帝政露西亞의 崩壞와함께 사베트社會主義 聯邦共和國의 出現은 國內政治秩序의 變革과함께 社會秩序의 大變革까지 招來하게된 實例가될것이다.

따라서 今期歐洲大戰의 結果에잇서서도 아즉 戰爭의範圍 戰爭의適否 交戰各國 戰爭目的의 限度等이 確然히 表示되지 안흔以上 戰爭의 結果로 나타날 國際秩序의 變異를 妄斷할수는 업스나 歐洲의 現情勢에 立脚하여 斉然히 將來를 展望하는 程度에서 今後의 大局的動向을 記述해볼까한다. (寫眞은 筆者)

國際道德頹廢論

道德的義務에等閑

列國은利만쪼차動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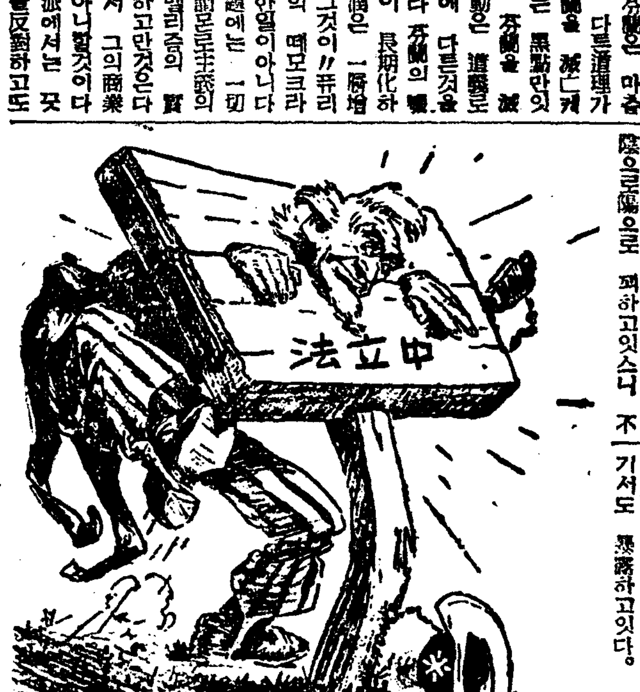
② 金明植

從來芬蘭은 蘇聯의 舊屬土로 베르사이유 體制에 編入된것이니 蘇聯이 베르사이유體制를 肯定할 義務가 업슬뿐만아니라 芬蘭은 英佛等과 狀을通하여 北歐의 安定을 威脅하는것은 蘇聯의 關心을 惹起치아니할수업다 그러나 그間蘇聯에서는 그의 獨立은 侵害치안코 入倍大의 領土로써 領土의 交換을 꾀하여 一方으로는 北歐의 平和를 保障하고 또一方으로는 交戰國의 戰略에 利用하여 長期戰의 態勢를 阻止함을 應援하엿다 그리고 芬蘭의 態度도 처음에는 그와가티 强硬한것이 아니엇는데 英米等國의 煽動에 依하여 마츰내 蘇芬關係는 惡化되고 말엇다。

그런대 現在와가치 蘇芬間에 戰爭이 생기지 아니하고 蘇聯이 발트海를 制覇하게되엇스면 獨逸은 北海를 制覇할수잇서 北歐諸國의 步調가 散亂치아니할것이오 또그와가치되면 英國의 封鎖政策은 何等의 效果를 나타내지 못할것이니 英國은 長期戰의 態勢를지을 成算이 잇슬수업다 그리하여 犧牲도 勝敗도 업시 戰爭이 終結하엿슬면 얼마나 人道와文明에 貢獻할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米國의 比較的出로 말미암아 實現되지 아니한것을 米國의 政治家은 道義論으로 放送하고잇다 그는 먼저 米國은 못까지 芬蘭을 救해줄것이냐 하면 決코 그러한 道義는 米國에 期待할바이니 芬蘭은 마츰내 滅亡하는것밧게 다른道理가 업다 그러므로 波蘭을 滅亡케한 英國의 行動에는 黑點만이잇는것이 아니지마는 芬蘭을 滅亡케하는 米國의 行動은 道義로 辯護할 殘忍性以外에 다른것을 發見할수업다 그러타 芬蘭의 犧牲에 依하여 戰爭이 長期化하면 米國은 商業利潤은 一層增大할것이다 그러나그것이 "퓨리탄"의 傳統이오 米國의 떼모크라시라하면 자랑할만한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歐洲의 問題에는 一切介入치안는다는 所謂몬로主義의 傳統이란것이 마카벨리즘의 實現綱領인것을 暴露하고만것은 다웃달國際關係에잇서서 그의商業利潤에 影響이 업지아니할것이다 그러므로 所謂孤立派에서는 꼿까지 中立法의 修正을 反對하고또 戰爭에 介入할 一切行動을 阻止할을 꾀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리고 米國의 比較的地位로말하면 戰爭을 調整할만한 實力이 잇슬뿐만아니라 그 責務와 道德的 義務가 잇다 그러나 어제 米國은 戰爭을 調整할생각은 조금도 업고 오직 戰爭이 長期化할 것만 際으로 傷으로 꾀하고잇스니 不幸히 戰爭이 長期化하다가 마침내 大殺戮이 演出되고 그리하야 戰爭의 慘禍가 지난世界大戰보다도 크게된다하면 人道上 米國의 責任이 큰것을 어찌서는 아니된다 勿論米國이 가만히 英佛에 加擔치 아니하여도 戰爭은 長期化할수업고 또米國이 積極的으로 調停의 勞를 取한다하면 戰爭이 解決될것은 交戰國雙方의 內外情勢로보아 分明한일이다 그러나 米國은 이러한거룩한일은 하려하지안코 도로혀戰爭을 煽動하여 商業利潤이 增大할것만 꾀하고잇지아니하나 그리고 蘇聯도中立을標榜하고 獨逸을 援助하고잇스나 最近英國과도 通商條約을 締結하여 親善關係를 保持하고잇다 그러나 米國은 獨逸과 一切交通을 拒否하여 저의中立이 反中立인것을 여기서도 暴露하고잇다。



勿論米國이 獨逸과交通을拒否하는것은 저의自由이다。

그러나 그와가튼政策을取할려면 中立을 標榜치말고 獨逸에 對하여 國交斷絶을 宣布하는것이 올치아니한가 그리고米國이 英佛側을 援助하는것은 그의勝利를爲한일이 아니면아니되겟는데 現在와가튼 相互의 援助로는 英佛側이 能히 勝利하리라고 생각할수업다 설사 그러타할지라도 一層積極的으로 英佛을 援助하여 戰爭을 速히 終結시키는것이 올흘일이오 또現在와가튼 微溫的援助로는英佛側이 勝利할것을 누구도保障할바아니니 今次戰爭에 對한 米國의 行動은 徹底한 마카베리즘으로 박게 說明할수업다。

여기서 그러면 道德이란무엇이냐하는 問題가 생긴다。"비단즈"는 그著『道德의原理』에對하여「道德이란」는 小冊子에서"대개 누구나 自己의 道德的價值判斷에 對하여 絶對的의 普遍妥當性을 要求하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그러나仔細히 그것을 點檢해보면 저의價值判斷의 內容은 이미 사람마다 差異가 잇슬뿐만아니라 다시 民族을 따리하고時代가 바꾸어짐을 따라 一層甚한 差異를 表示하게되므로 各人이 如斯한 確信을 固執하는 以上 道德의 價値判斷의 普遍妥當性的 原理를 發見하는것은 全然期待할수업다」하고 또『義務意識은 그것이 道德的生活을 可能케하는 最高의 制約인限에 잇서서 道德의 原理이다 무엇이 義務이냐하는것은 當時의 事情, 民族 又는 時代에 依하여 各各다르다 그러나 어떠튼 義務가 承認된다는것은 分明한일이다。무릇 人間에 對하여 一個의 道德的命令이 잇는것을 否定코자하는 사람 卽如何한 義務도 承認코자하지안는 사람은 곳저스스로도 모든 價値判斷을 斷念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오 또 他方에잇서서 我等은 如斯한 心術에서야말로 絶對的 不道德의 存在를 認定할것이다」하엿는대 이제 米國이 저의 行動에 對하여 저스스로는 어떠한 價値判斷을 내리우고잇다할지라도 今次戰爭에 對하여 調整할 道德的 命令이잇는것을 否定하여 如何한 義務도 承認코자하지안는것은 비단즈의 道德原理에서 不道德으로 指摘된것이 아니라할수업다 그러므로 米國은『곳저스스로도 모든 價値判斷을 斷念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오』『또 他方에잇서서는 我等은 如斯한心術에서야말로 絶對的不道德의 存在를 認定할것이다』한것은 一般에 對하여 조호한暗示가아니면가한다

歐洲新秩序未來觀

李相昊

中立國의今後動向

米國

大海軍力을背景

輿論은反獨으로統一

먼저 現在進行中에잇는 歐洲의戰亂이 現狀대로進行되다가 英獨어느側이고 屈伏이되어 媾和가 되겟느냐 或은 全面的으로 擴大되어 現在보다 數倍複雜한 形態에서 結末을告하겟느냐, 하는 두가지豫測에서 判異하고 懸殊한結論을 차게될것이며 이에 따라여기서 大戰의 形勢를 決定的으로 左右할 大國들의動向과 向背를 打診하기로하되 我國은 大戰勃發當初 阿部首相의聲明과가치 東亞新秩序建設의重任을 目前에두고 一路事變處理에 邁進하는限 歐洲戰亂에 不介入主義를 闡明한바잇섯스니 輿論을 保留하고 今回大戰과 地理的으로 又는 歷史的으로 가장 密接한 關係를가진 米、蘇、伊三大國의 今後動向은 大戰의 結論에 決定的 影響을 줄것이며 따라以上三大國의 今後向背를 檢討하기로 하겟다.

米國은 歐洲戰爭이 勃發되자 九月五日 루즈벨트大統領의 名義로 米國의 中立을 宣言하는 同時에 中立法發動을 正式으로 公布하엿다 이어서 歐洲戰爭에 對處키爲하여 九月二十一日 特別議會를 開催하고 루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 臨席하여 現行中立法의 修正을 要請하는 敎書를 朗讀한後 따는만 上院外交委員長은 現行中立法에 代할 新中立法案을 提出하게되엇다.

第一次大戰當時를 回顧하면 當時米國으로서 參戰할 可能性은 매우 稀薄하엿스니 그條件을 들면 첫째로 윌손大統領의 中立宣言骨子를보면 『米國은國家로서만 中立을嚴守하여야 될뿐아니라 米國民으로서는 個人의言動으로서도 嚴然한中立을 要求한다』는 意味의 嚴格한中立宣言을 發表하엿슴과 둘째로 當時米國民의 輿論은 雖然하여 이나라國情의 所致로 英系、獨系、佛系、伊系等各系民衆은 各各 自系祖國의 便을 드러 손쉽게 輿論의 統一을 보기 어렵게되엇고 세째로 當時의 米國軍備는 實로 不過十萬이요 海軍大擴張案도 一九一六年에 겨우 議會를 通過하여 海軍力도 微微하엿슴에 따라 參戰에 當할 自負力이 적엇든것이다.

그러나現在 米國의 處地를 두고 보면 루즈벨트大統領이 中立宣言을 하엿스나 內心뿐만아니라 外勝까지도 當初부터 民主主義國家에 公然加勢하여 『余는 米國民은 良心까지 盲目的이되라고 强要할수는 업다』고 大統領自身이 國民의 反獨輿論을 煽動하는 反面 一般國民의 輿論도 壓倒的으로 反獨, 反나치스 一線에 統一되어 再論할 餘地도업시되엇스며 더구나 軍備에잇서서는 世界一의 海軍力을 背景으로 空軍과 陸軍에 이르러도 一流國의 地位를 占領하엿음을 보아 戰爭參加可能性은 一次大戰當時에 比하여 百倍나 센 成熟되엇다고 볼수잇슬것이다.

그러나 一面으로 米國이 歐洲戰爭의 參加로 무엇을 어들것인가 하는 問題를 考慮치안흘수업는것이니 아무리 米國이 第一次大戰에 參戰할 當時 唯一한 戰爭條件이 『人道의 敵을 擊滅하라』는 軍號아래서 出發하여 數百億戰費와 數十萬生命을 犧牲하고 此돈만흘 고도라선例가 잇섯다고 하드라도 國際道德觀과 國際利害觀에 顯著한 變遷을 보게된 今日에 잇서서 亦是 同軌의 措置에 나올것인가하는 疑問도 無勢하나마 孤立派의 中立擁護運動과함께 再檢討할 戰爭回避條件으로 三年間 參戰을 안코 局外에서 잇슨 果報로 一次大戰當時 列國의 疲弊와 反比例로 一躍强國으로 飛躍한 前驗을 參考로 今期戰爭도 機會를 잘보아 再開하여 安全工作을 取치 안흘가하는 觀測도 有理한 觀測이 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米國으로서 以上의 戰爭加擔條件과 戰爭迴避條件을 對比하면 前者는 勢力化한 進行態로 볼수잇는 反面後者는 姑息的이오 抑制的인데서 兩者의 實現性과 可能性은 自明해질것이다.

여게서 米國의 參戰實現에 조호起動을 摘發한다면 그는 다른것이아니오 現象的으로 睡眠的인 現在戰況이 무슨 契機로던지 一次飛躍을 試하여 獨逸이 積極攻勢에 나와 傳統的인 U 뽀트戰術의 激化와 아울러 空軍의 全面的活動이 開始되어 英佛側에 憂色이 돌고 各大洋에서 反人道的事故가 續出될 時機가 米國이 參戰할 最高潮期일것이다.

蘇聯

正體모를"크레믈린"

傍系的經略으로勢力伸張에全力

主力線에進出은疑問

다음으로 蘇聯은 今次戰爭에잇서서 嚴正한 意味에서中立國인가 交戰國인가? 現代戰爭이 實的으로 또는 形態的으로 特異한 變態를 보게되엇다면 國際秩序에 잇서서 中立이란 性質도 奇怪한 變化를 보게 되엇다고 할수 잇슬것이니 過去에 잇서서 中立을 規定한 國際法의 明文을 보면 『中立은 戰爭에 參加치안흔 國家의 地位이오 雙方의 交戰國에 對하여 公平한 無援助를 主義로 할것』이라고 하엿는바 果然現代의 中立國家로 이明文에 逸脫치안흔 態度를 取하는 中立國家가 잇슬까? 이로서 國際法上 中立이란 槪念도 어림업는 變化를 이르키고잇는것을 차즐수잇슬것이나 더구나 今次戰爭에잇서서 蘇聯과가튼 地位는 더욱 複雜微妙를 極한者로 九月中엔 波蘭의 一部를 完全히 武力占領하엿고 現在도 芬蘭과 激烈한 交戰을 하고잇슴을보아 이는 辯白업는 交戰國이다 그러나 今次戰爭에잇서서 對峙의主宗 獨逸對英佛交戰關係에서본다면 勿論蘇聯은 獨逸과 特殊協定을가지고 獨逸을 支持하고잇스나 그러타고 英佛이 正面으로 蘇聯을 敵對國으로 看做하여 對應치안코 一種의 敬遠關係로 保留하므로보아 蘇聯으로서도 此點變態的中立性을 띠고잇슴은 看過할수업는 事實인 同時에 現在 英獨戰과는 傍系로 芬蘭과 交戰中에 잇는 蘇聯의 態度를 가르처 完全히 大戰에 插入되엇다고는 볼수업는 點에서 더욱이 蘇聯의 中立性과 交戰性이 混亂하여 定義的 判別을 내리기는 困難하나 今次大戰의 將來를 左右할 資料로보아서 이點이 蘇聯은 언제든지 今次大戰을 機會로 傍系的經略에만 始終하겟느냐 主力線에 進出하여 本格的으로 參戰이 되겟느냐는 兩個疑問을 解明할 一種의 機微로 重要한 檢討를 要求하는 포인트가 될것이다

그러나 客觀的事態는 如何함에도 不拘하고 蘇聯自身은 英獨交戰關係에 關하는限 언제나 最高當局者는 中立을 宣明해왓스니 蘇聯이 至今까지 宣明해온 中立의 意義란 實로 微妙하여 蘇聯中立의 眞意를 여기서 解明한다면 武力交戰보다도 中立이란 地位의 利用이 自國의 利益을 圖謀하는데 더욱 有能有效한 手段이 되는 點에서 武力交戰以上의 敵意와 鬪志로 中立利用戰에 나올것으로밧게 볼수업슬것이다.

여게서 蘇聯은 奇怪한 中立性을 利用하여 戰爭勃發後 不過 月餘에 電光石火的 外交로 발틱三國을 完全히 制覇하고 그手法그대로 芬蘭에 向하여 幾多條件을 提出하여 脅迫을 하다가 畢竟 武力使用에까지 나와지마는 蘇聯의 行動을 미루어 蘇聯이란 元來가 國情부터 人類歷史의 傳統을 脫却하고 생긴나라다 그行動이 無軌道的이요 常識에 버서나고 不可解한 點도 만흐며 今年十一月七日 革命記念日에 恒例的이나 모로토프의 演說을 보면 蘇聯의 對世界政策 今後의 向路를 無難하게 推斷할수잇슬것이니 모로토프演說要旨를 들면

一、今回의 戰爭은 資本主義戰爭이라고 規定할것.
二、世界는 아직도 資本主義的 制覇아래잇슴에따라 될수잇는대로 戰爭을 長期化시켜 그基盤을 轉覆케할것
三、資本主義戰爭에 蘇聯은 오디까지라도 中立을 固守하다가 屢隙이 나는대로 攻勢에나아가 勢力範圍를 擴大할것
四、國防力充實에 萬全을 期할것
五、蘇聯式平和政策을 固持하여 最後의 勝利를 獲得할것

等으로 列擧할수잇는바 이로미루어보면 蘇聯은 現在 芬蘭과 干戈를 交하여 傍系的經略은하고 잇스나 絶對로 本格的戰爭渦中에 捲入은 避하여왓고 自國勢力이 伸張과 地盤獲得에 支障되는 列國은 他列國의 손을 비러 處置를해버린다는것이 蘇聯의 唯一한 眼目으로 究竟의 目標는 이나라의 理論的國是인 世界赤化를 標的으로 資本主義國家群의 戰爭을 最大能率的으로 利用하겟다는것이 크레믈린의 定石的메뉴로아니볼수업슬것이다.

朝鮮土木株式會社 常務取締役 張箕弘 常務取締役 鄭世薰 舍宅 水原邑高等町

水原燐寸株式會社

京畿道水原城外 株式會社 富國園

水原郡守 許 燮

水原郡廳

水原郡農會

朝鮮運送株式會社 水原トラック荷扱所 主任 金光南 李漢夏 電話一二〇番

水原邑 李昌鎔齒科醫院

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田川常治郎 專務取締役 內藤眞治

水原邑

水原警察署長 黑沼力彌

水原醫師會

朝鮮京釜線水原驛前 株式會社 万種園 電話水原局長三三〇番 三七六番 振替口座京城四六四番 私書函水原局(九)四番 電信略號(マ)又ハ(マン)

朝鮮水原邑本町四丁目 運動具 書籍 水鄕堂 電話三五六番 振替京城一〇七九六番

京釜線水原驛前 三成材木店 電話一三番 電略(セ)又ハ(ヤマサン)

水原郡水原邑宮町七四番地 朝鮮中央無盡株式會社 水原支店

水原金融組合

華城金融組合

水原細柳公立尋常小學校 校長 印牧美雄

食堂と 百味堂 水原邑 電話三一四番

水原邑梅山町 金珉基

京城電氣株式會社 水原支店 支店長 島谷禮二

水原邑 車載潤

水原驛前 劉泰元 權翼洙

水原郡水原邑本町四丁目三三一 華城興産株式會社 常務取締役 李愼

朝鮮運送株式會社水原出張所 所長 寺澤捨三郎

水原窯業 寺澤捨三郎 李健裕

水原自動車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湯淺伊平

京釜線水原驛前 化粧品 藥品 各種新藥 工務藥品 卸商 八達洋行 丙應鎬

水原邑本水原驛前 建築材料 石油揮發油 農具機械 共榮商會 申正基

水原土木管區 職員一同

水原驛前 太西洋服店 崔相熙

水原 華城券番 電話三九番

水原邑本町二丁目 絹布商 興信商會 電話三七五番

水原驛前 全根在

水原邑本町三丁目 華城鐵工所

水原邑本町三丁目 各種織物商 洪商會 電話二〇三番

京釜線水原驛前 水原運送店 李容成

水原梅香女子尋常小學校 校長 金泳來

水原郡水原邑池野町 穀肥料 東一商會 李學圭 電話一六四番

水原邑仁徳町 馨光精米所 申樂均 電話三二七番

水原邑梅山町 大豐精米所 金德昱 電話四一三番

朴松雲鐵工所 電話三二五番

水原驛前 兄弟商店本店 電話三七二番

水原邑內 朝鮮料理 第一館 電話一五三番

水原驛前 和洋料理 仕出し 友月 電話三五二番

水原邑南町四八番地 北京料理 高等迎賓館 電話一六八番

京釜線水原驛前 株式會社 東洋種苗會社 電話水原局長三五七番 振替口座京城六四六番

水原驛前通 各種賣藥各種化粧品 タカ波神秘丹代理店 八水堂藥房 電話(取次)一四四番

水原邑南町 水原織物工場 金學培

漢城銀行水原支店 支店長 千甲辰

水原邑南町 朴容在齒科醫院

朝鮮麴子株式會社水原支店

水仁線古索驛前 水仁釀造場 電話三七番

南北綿業株式會社 水原繰綿工場 工場長 西嶋倉市

銘酒 龍鶴華虹 醸造元 水原酒造株式會社 電話三五番

株式會社 第一社水原支店 梁奎龍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水原支店

水原農場 朴德榮 電話三六番

水原局私書函第八號 朝鮮運送及丸計交計店 水原荷主運輸組 代表者 朴勝根

絹綿布、絹織物商 民衆商會 水原驛前通

水原驛前 第一旅館 電話三二八番

水原邑南水町 朝鮮和洋料理 華城館 電話三七三番

朝鮮中華料理 永樂館 電話三一〇番

水原邑本町 中華料理本店 東興樓 電話三一一番

水原邑南水町 中華料理別館 恒山館 主 李文恒 電話一七八番

水原驛前 和洋料理 仕出し 富久美 梅山町一丁目三七 電話三七四番

水原邑本町一丁目 水原精米業荷受配給組合 電話三六七番

苔灘 苔灘釀造場

鷄林材木商會 黃海道苔灘市

黃海道長淵郡苔灘市 福盛長

信成醫院 院長 黃達順

黃海道苔灘 穀物 肥料 三和商會

金澤信商店

金台鉉

布木商 李進源商店

苔灘和信連鎖店 田允稷

苔灘醫院 院長 趙啓星

海西藥舖 張德均

長淵郡加川面長峴里 姜信忠

苔灘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江亭 林尙傑自轉車舖

釜鼎商 愼旭晟商店

雜貨卸賣商 李秉璇商店

苔灘齒科醫院 朴嚴重

精米業 李仲會

宋奎成

東一商會 主 李昌浩

黃海道苔灘 藥品問屋 萬壽堂藥局 藥種商 李澤龍

賞味堂製菓店

綢緞布木 興來商店

金盛商會 主 金成洛

事變處理大方針의解剖

長江一部開放提議

米國의認識을是正

日米通商交涉前途에曙光

昨年七月二十六日 米國政府가 突然六個月의 豫告로 一九一一年二月二十一日 華盛頓에서 締結된 日米通商航海條約의 廢棄를 通告한以來 이로變해도 日米兩國의 經濟關係에는 無條約狀態의 實現을 想像할만큼 暗影이 떠돌어오던바 昨年十月十九日 歸國하엿다가 돌어온 그루米大使가 日米協會主催의 同大使新迎會席上에서 『米國民은 支那의現實事態로보아 新秩序下에서는 米國의 歷史的在支權益이 剝奪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잇다 米國輿論은 現在日本의軍事的行動結果로서 米國의 正當한在支權益에 對해行해지는 慢辱, 侮辱, 殺傷, 干涉行爲에對하여 擧國一致憤激하고잇다 米國民은 日本이亞細亞大陸의 廣大한部分에 對하여 支配權을確立하고 日本一國의利益을爲하여 領國的經濟機構를確立하려하고잇다고信確할만한 證據를가지고잇다……然則 我等은 率直히 그原因을探究하여 그原因中 除去할수잇는것은 除去하여 日米兩國間에 良好한關係를 再建하기를希望한다』는 重大演說을한것을契機로 日米兩國關係者는 日米國交調整에關한 對策을 眞摯하게 硏究하게되엇다. 이리하여 野村外相은 十一月四日 그루米大使를招致하고 日米國交調整에 關한 米國側意向을 打診하는一方 日米關係打開를爲하여 米國이重大한關心을가지고잇는 支那에잇서서의 現實事態中 이에所用이될수잇는것을 愼重히考慮하여오던中 揚子江의一部를 一定한條件下에開放하기로 決定하고 十二月十八日外相官邸로 그루米大使의來訪을求한後 上海南京間의 揚子江一部를 一定한條件下에 開放할意向이잇스며 珠江開放도 將來考慮中이라고 重大提議를 하는同時에 帝國政府는 日米國交打開를爲하여 公正한條件을 참어가면서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友好的眞情을 傾注하고잇는 뜻을披瀝하엿다. 이提言에 그루米大使도 자못滿足한뜻을 表하고 곳本國政府에 請訓한結果 米政府도 帝國의眞意를 諒解하고 若干協調態度를 表示하여 一月廿六日 日米通商航海條約이 失效하게되더라도 兩國의通商關係는 現在와가치 아무障害도업시 繼續하게할 措置를 곳取하겟다는回答을하여왓다. 이리되어 兩國의交涉은 圓滑히進捗될曙光이 보여젓스므로 兩國政府는 東京에서의 野村・그루會談에 倂行하여 華盛頓에서도 堀內・헐會談을 行하기로되엇는데 米國外務省은 條約失效後도 日本品에 對하여 當分間은 從價一割의差別關稅를 賦課치 안케되엇다고 十二月廿二日各新聞에 通牒하엿다고 傳하여 이에 支那事變勃發以來 一路惡化의길을 밟어오던 日米關係를 打開할 日米交涉은 本格的으로 展開되게되엇다.

그러나 米政府가 再昨年十月六日, 十二月三十一日 二回에걸처 在支權益保障과 支那에서의 通商上의 差別待遇撤廢를 要求하는 通牒을하여 事變前의事態에 適用하던 門戶開放과 機會均等主義를 固執하여온것을 보면 日米新關係이 [illegible] 여러가지點으로보아 米國政府가 [illegible] 東亞의新事態를 正認하여 日米國交를 調整하고 나아가서 東亞新秩序建設에 協力을 할지는 자못疑問으로 日米關係前途는 樂觀을 不許한다.

더구나 歐洲에 戰爭이 勃發하여 英佛이 東亞에 注力하지못하게되자 米國은 太平洋沿岸의 軍備를 强化하여 在支英佛利權의 擁護까지 代行하려는 態度를 보여왓음에랴! 그러나 歐洲의 戰爭狀態가 더 길어질수록 米國의 中立을 維持하여야할 米國으로서는 日米通商條約의 廢棄는 日本에게 加擴케하는것이라 하여 日本의 對蘇接近을 憂慮하고 또日米間에는 根本的으로 兩立할수 업는 原因이 업는만큼 交涉方法如何에依하면 米國이 어느程度까지 帝國의 要求에 應할수잇는 可能性도 업지는 안타. 然則 政府는 正正堂堂히 東亞新秩序建設의 眞意를 說明하고 또新秩序建設에 背馳되지안는 第三國의 權益은 正當히 尊重한다는 保障을하며 그間의 經濟된 未解決懸案을 一括解決하여 米國으로 하여금 誠心으로써 帝國의 東亞新秩序體制樹立에 協力하도록 誘導하여야할것이다.

(寫眞은野村外相과 그루米大使)

東亞新事態認識이 日英友好前提條件

「英國은 東亞新秩序의 意義를 充分히 理解하고 帝國의 意圖에 協力하며 帝國과의 國交를 調整하는 關鍵이 된다 天津租界問題에 對한 日英會談은 中止된채로잇는바 天津租界問題에 關한 我方의 主張은 前番會談時에 充分히 英國側에 徹底히 알려저잇슬것이므로 今後의推移는 英國側의 我方에對한 諒解程度如何에 달렷다고 할수잇다」라는 野村外相의 對英外交方針에 關한 表明이다. 天津租界問題를 中心으로 日英關係를 打開하기爲하여 七月十五日부터 開始된 日英東京會談은 英國이 支那에잇서서의 戰鬪行動狀態를 認定하고 占領地帶에서 日本을害롭게하고 支那를 利롭게하는行動은 一切하지 아켓다는 原則協定이 成立하엿스나 具體的問題討議에 들어가서 現銀引渡와 法幣流通禁止等 經濟的問題를 英國側이 拒絶하여 八月十五日 加藤・크레기會談으로 日英會談은 事實上決裂되어 中止된채 오늘까지 지내려온것은 周知하는바어니와 英國은 九月三日對獨宣戰布告를 斷行하여 對獨戰爭에 東亞까지 돌볼餘力이업고 또事變以來 꾸준히 繼續하여오던 援蔣行爲도 더繼續할수업게되자 機會만잇스면 日英東京會談을 再開 天津問題를 解決하여 日英關係를 調整하기를希望하여 東京에서 그간 谷크레기會談도 二三次잇서서 日英會談再開의 氣運이 濃厚하여지던차에 谷外務次官은 野村外相이 그루米大使에게 揚子江一部開放을 言明한바와가치 크레기英大使에게도 一定한條件下에 南京上海間의 揚子江을 開放할뜻을 提議하여 英國側도 자못好意를가지고 本國政府의 決定을기다리고잇는模樣으로 머지안하여 日英交涉은 本格的展開를보게될것으로 想像된다.

支那에잇서서 가장만흔利權을 가진 英國은 [illegible] 英國은 [illegible] 米國과 步調를 가치하여 [illegible] 英國의 對支政策은 [illegible] 英國側이 事變發生以來 東亞新秩序建設을 [illegible] 帝國도 [illegible] 日英會談에 [illegible]

(寫眞은 上은 크레기英大使 下는 日英東京會談一場面)

東亞協同體理論

─ 그世界史的意義와新文化創造 ─

⑵ 李甲燮

三木氏의 東亞協同體에 對한 理論的根據는 한마디로 말하면 東亞協同體라는 새로운 文化의 創造에잇고 이와가튼 새文化의 生命은 普遍妥當性을 가지는것이라야한다는點에 잇다 氏가 東亞協同體理論의 世界史的意義를 强調하는것은 추처 이까닭이거니와 以上 三木氏의主張은 支那事變의 屬바구니에서 생겨난 歷史的産物 東亞協同體思想은 비단目前의 支那事變을 處理하는 原理일뿐아니라 全世界 어데를 가다노래도 普遍이어야 하겟고 따라서 世界的問題를 解決하는 열쇠가 안되면안된다는말로 바궈 말할수도 잇슬것이다 氏는 이新文化가 가저야할世界史的意義를 强調하여 東亞協同體思想이 世界史의 統一的理念을 放棄하는날이면 그것은結局 反動的 意義밧게 가지지못할것이다 東亞라는말은 地域的인것이다 東亞라는말은 日滿支를 表示하고 現實的으로는 日滿支를 가르키고잇다 그러나 그러타고하여 이思想이 地域的分離主義 地域的閉鎖主義乃至 地域的 便宜主義 또는 地理的宿命論이어서는 안된다 單純히地域的인思想은 참된意味의 思想이아니다 中世紀 르넷상스時代에잇서서 敎會的 世界主義를 打破하고 發生된 國民主義는 비록 伊太利라는 一個地域에서始作된것이엇지만 伊太利國民主義는 그自體內에 近代的社會의 普遍的原理를 包含시키고 잇섯던 것이다 그와마찬가지로 東亞協同體思想도 東亞라는 特殊性을 가진것이면서도 單純한 特殊的인것이 아니고 同時에 普遍的인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러케함에 依하여서만 이思想은 東亞에限定되지아니하고 地域性을 離脫하여 世界的 新秩序에對하여도 指標가 될수잇고또이러케 世界的意味를 가지는限에 잇서서만 東亞新秩序의 建設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但 協同體理論의 超地域性을 論하며 그것은世界征服主義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文化의 內容과 그性質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例컨대 日本이世界를 征服하지 안흐래도 日本文化가世界的일수 잇슴과가튼일이다.

◇─◇

東亞協同體思想이 이와가치 世界史的 意味를 要求함에 이것은 空間的으로는 東洋統一問題의 解決에 時間的으로는 資本主義問題解決에 부딋친다 第一 資本主義問題는 現段階에잇서서의 世界史의 最大課題이다 資本主義의 모든 矛盾을 어떠케 克服하여 이 最大課題를 解決지켯느냐는 것이 東亞統一의 基礎가 될수 업슬뿐아니라 世界史的意味도 가질수업는것이다 東亞의 資本主義의 統一이라고만하면 그것은 이境遇에잇서 日本의 支那侵略이라고도 할수잇다 그런데 東亞統一의 目前의 障害는 白人列强의 帝國主義로 帝國主義의 問題는 資本主義의 問題이다 東洋에서 排擊할것은 白人이아니고 白人의 帝國主義인것이다 이러하여 東亞의 統一이라고하는 空間的問題는 資本主義의 解決이라는 時間的問題와 必然的으로 結合하게된다 그리고 이問題는 다시하면에잇서 民族主義의 問題와 어떠케 잇서 世界主義와의 關係를 뭇지안흘수업다 東亞協同體는 말하자면 超民族的인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그러타고 하여 民族主義를 否定하는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重要한意義는 새文化의 創造에 寄與하여야 된다 첫재 民族主義는 抽象的인 近代的世界主義로도 發見치 안흐면 안된다 主義도 아닌 國際主義를 克服하여 새로운意味의 世界主義의 發展을 可能케한다는 點에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東亞協同體라는 超民族的全體를 생각한다 하더래도 그全體가운데서 各民族이 또는 各國家가 各各 그個性과 獨立性과 自主性을 가저야한다는點에서 세재로는 어떠한 世界的 意義를 가진 事象이라도 어떠한 一定의 民族을 通하여서 비로소 實現된다는點에서 重要性을 가지고잇다.

◇─◇

그러므로 우리는 支那의 民族主義를 正當히 理解치아니하면 안된다 支那에 잇서서의 民族主義는 支那의 近代化에 對하여 歷史的必然性과 進步的意義를 가지고 잇다 支那의 近代化는 東亞統一에 잇서 絶對必要條件이다 三民主義에서 抽象的으로 民族主義를 抹殺하려고하는것은 反動的이다 日本에잇서 民族主義가 重要한것이라고하면 支那에 잇서서도 그와마찬가지로 重要한것이다 日本에서 民族主義를 强調하면서 支那에서 이것을 萬一抑壓하려고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矛盾이 아닐수업다 그러나 다만 東亞諸國의 民族主義가 協同體的이아닌 限에 잇서 그것은 日本에 잇서서나 支那에 잇서서나 한결가치 修正되지 안허서는 안된다 여게서 協同體的이라함은 東亞라는 全體의 아래에서 日支兩國이 各各 自己의 民族主義를 살리면서도 東亞라는 超民族的 全體를 形成한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오 그와 同時에 한거름 더나아가서는 새로운世界主義의 創造를 말하는것이다 그러면 民族主義가 民族主義이면서 어떠케 民族을 超越하며 또한 그것의 世界主義에의 進展은 어떠케 可能한가

─(未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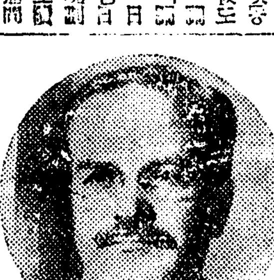
防共은絶對原則

懸案一掃에注力

旣得權益은斷乎確保

(對蘇方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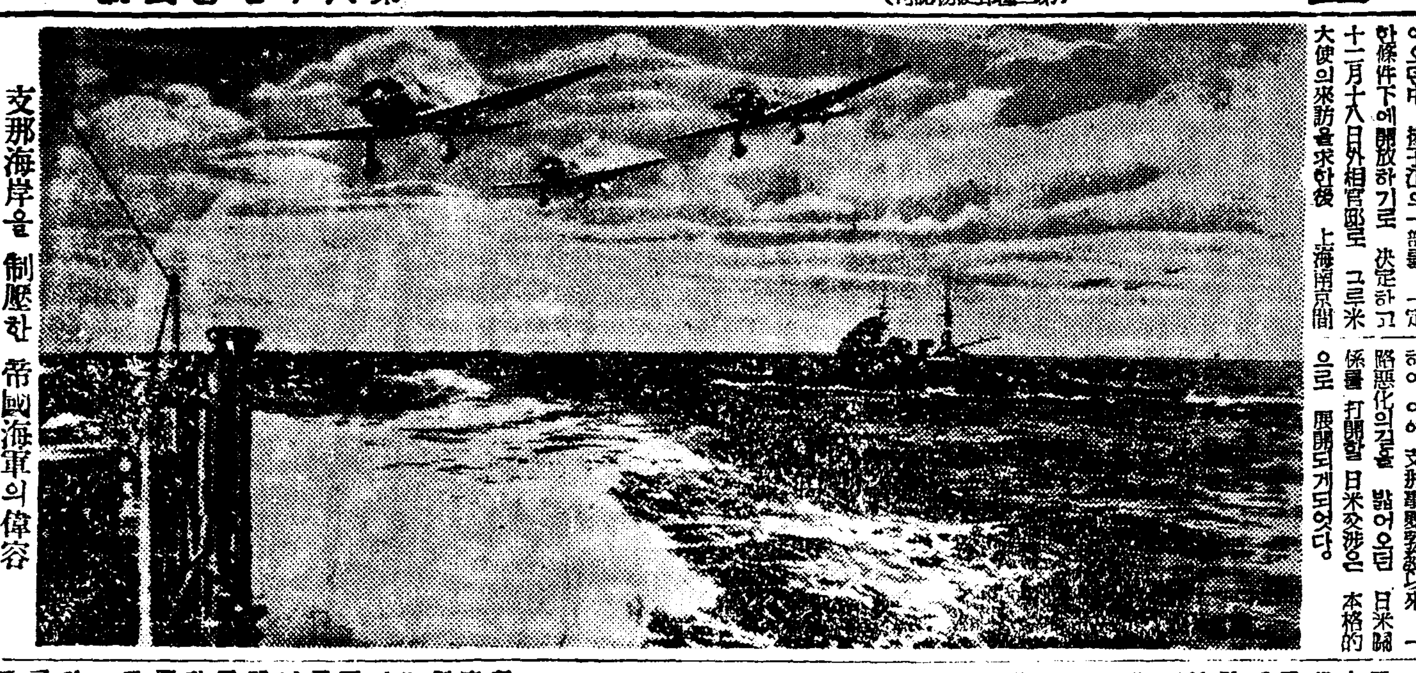
昨年九月十五日 日蘇停戰協定 成立에 依하여 五月以來 끌러오던 노몬한 紛爭事件이 解決된 機會로 日蘇兩國間의 懸案을 解決하려고 東鄕駐蘇大使는 모로토프蘇聯外務人民委員과 屢次折衝을 거듭한結果 오래동안 缺員中이던 駐日蘇聯大使도 새로 任命되고 노몬한 事件에 關係잇는 地方의 滿蒙國境劃定에 關하여는 國境劃定委員會를 開催하기로되어 十二月七日부터 치타市에서 滿蘇兩國委員이 會議中이며 北樺太石油利權問題에 關하여는 石油會社幹部의 抑留를 蘇政府가 取消하겟다고言明하고 日蘇通商交涉問題도 漸次進展되어 今月十日頃에는 正式交涉을 開始하기로되엇스며 漁業問題는 北洋代金支拂을 條件으로 長期條約締結을 意圖하고잇슴을 表明하여 交涉의將來는 아직樂觀을不許하나 如何튼兩國政府가 懸案解決에 努力하고잇는것은 事實이므로 新春劈頭부터 通商漁業問題를中心으로 本格的 交涉이展開되게되엇다.



蘇聯側은 [illegible] 張鼓峰事件 『노몬한』事件까지 비저내엇다. 이와가치 蘇聯側이 蔣政權을 支持하여 長期抗戰을 慫慂하고 [illegible] 中國의 赤化工作 [illegible] 日蘇兩國間의 [illegible] 防共은 [illegible]

日蘇兩國間의 懸案은 北洋漁業問題, 北樺太利權問題, 滿蒙國境劃定問題 [illegible] 日蘇國交의 [illegible] 旣得權益은 [illegible] 斷乎確保 [illegible]

(寫眞은上은東鄕大使 下는모로토프蘇外相)



支那海岸을 制壓한 帝國海軍의 偉容

賀正

江西

雙龍面 有志 朴鎭學

江西邑內濟生局長 朴益埈

自福市 三井燒酎公認特約店 和洋雜貨卸都賣 主 趙演植

江西邑內 中樞院參議 金晋洙

沙川市 日用雜貨各種食料品及メリヤス 黃錫權商店

沙川市 得日醫院長 黃得日

沙川市 有志 李德來

鳥耳里市前 三井燒酎公認特約店 生栗卸賣 雜貨卸賣 主 姜有興

平壤府 三和會 大平 平安 七星 大同 一手販賣元 三井物產株式會社

江西郡三井燒酎公認特約店 主 金井秀正

江西邑內 金信商會 主 金井秀正

朝鮮日報社江西支局長 金井秀正

文洞市 三井燒酎公認特約店 官廳御用 穀物貿易 肥料卸賣 和洋雜貨 主 金基鼎

江西邑 有志 金秉琦

江西申合會

江西邑內 日用雜貨卸賣小賣 錦城商會 主 金大根

江西邑內 有志 李憲瑾

文洞市 參事 鄭根七

江西邑內 支那料理 江南屋 サビス百% 主 金根實 皮禮根

甑山市 三井燒酎公認特約店 主 趙基勳

江西邑內 和洋諸紙 文具一式 各種印刷 日光社 社長 金雨軾

岐陽驛前 三井燒酎公認特約店 主 金丙暾

沙川市 燒酎肥料卸商 康濟豊商店 三井燒酎公認特約店

新井市 三井燒酎公認特約店 主 桂炳坤

平安南道江西郡雙龍面基里 壽重工業株式會社 壽鐵山

平南線岐陽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岐陽驛代行營業所

江西邑內 ラーヂ號 ライオン號 アサヒ號 キヤエム號 サンヤン號 謙興自轉車店 主 洪義謙

平南江西郡邑內 各種古物賣買 宋載鏡古物商店 出張所在地 甑山市

江西邑內 各種肥料 米穀 主 任弼宰

甑山市 中華民國新民會 會長 [illegible] 副會長 [illegible]

甑山市 有志 崔洛善

甑山市 有志 李東燁

甑山市 新和院長 白承玹

沙川市 平南鹽酒特設販賣所 三井燒酎特約店 主 金炳浩

沙川市 日用雜貨 各種メリヤス 西鮮商店 主 朴麟涉

沙川市 光東醫院 醫師 金鳳天

水山面千濟里 有志 姜泰周

文洞市 有志 鄭炳模

江西郡文洞市 朴鎭瀅醫院

平南江西郡邑內 司法代書 行政代書 高益柱事務所 江西郡江西面德興里

江西邑內 綿絲布木商 和洋家具店 主 朴翰洙

咸從市 三井燒酎公認特約店 主 金正淳

江西邑 朴潤亨

甑山市 康禮慶

甑山市 公醫 尹斗憲

江西邑內 有志 吳應九

文洞市 金貞浩醫院

江西邑內 司法書士 朴晋埈

班一里有志 曺賢天

甑山市 大同洋服店 主 [illegible]

海東醫院長 金東旭

江西邑內 有志 崔錫龍

甑山市 新彰學校 校長 [illegible]

江西郡新井市內 任桂院 院長 任桂宰

江西郡新井市內 兄弟商會 [illegible]

仁德醫院 院長 金仁德

南栗

南栗面事務所 職員一同

昌德學校職員一同

大英學校

津曲里 鄭龍補

協議員 李熙洙

協議員 金斗環

來鳳里 朴聖佖

方巖里 韓德均

津曲里 梁禹大

海昌里 金仁洙

農工併進政策의再檢討

農工跛行과그原因에對하여 【中】

李勛求

前述한바와가치 農業이 相對的으로 그地位를 保存치못하는理由는 說明을 不俟하고 農業以外 產業의 加速度的發展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리고 農業以外 產業中 重要한것은 工業이다. 그래서 只今이곳에서 工業이 어느程度로 發展하여가는가를 보기爲하여 大正十一年부터 昭和五年까지의 十年間을가지고 大正十一年을 百으로한 各該年을보면 工產額의 指數는 一〇四、一一二、一二五、一二四、一三五、一四二、一四六、一二六의 順으로 逐年增加하엿다 또 이增加速度는 農業의 그것에比하여 可驚할程度의것이어서 前記工業의 相對的關係에잇서서도 工業은 農業을 凌駕하고 잇섯다.

上記 事變中 特히 昭和六年을 前後하야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여서 東亞의 政治的 經濟的 또는 社會的 諸關係는 一大變革을 齎來한것이 사실이니 滿洲事變은 朝鮮의 經濟的諸關係도 莫大한 影響을 밧은것이 重要한 劃時期的 事實이엇다. 그리하여서 이事變은 朝鮮內 產業機構에도 적지아니한 變動을 招來하엿다.

上記方面의 變化를 第一考察하기는 餘白이 업스므로 工業上變動하거나와 兩者의 工業上變化를 考究하여보기爲하여 大正十一年의 指數를百으로하고 昭和六年부터 同十二年까지의 生產額을 算出하여보면 一一三、一三九、一六四、一九六、二七六、三三七、四三〇의 順次로 躍進되는데 이事實을 다시 보아도 昭和七、十一、十二、三年등안의 工業發展은 그야말로 驚嘆할만한 飛躍的인것을 알수가 잇는것이다.

이와反對로 農業 生產額을보면 大正十一年을 百으로하여 昭和十、十一、十二年度의 指數는 一三五、一三九、一八九에不過하고잇다. 그러므로 農業生產額은 大正十一年부터 昭和十二年까지 增加되지못하엿슨데 工業生產額은 約四倍餘나 增加하는 跛行的狀態를 表示하게된것이다.

그러면 이와가치 跛行의 原因은 어대잇슬가? 이問題의 解答에는 日政治的原因、日經濟的原因、日社會的原因의 三大別로나누어 볼수가잇다. 첫재 政治的原因에잇서서는 얼핏 日滿과 日支의 關係가 緊密化된以後에 帝國의 大陸前進基地로서 朝鮮은 絕對的 使命을 가지고 잇슨데 大正十一年頃까지도 朝鮮內治安이 確保되지못하엿스나 그以後에는 治安의確保가 百퍼센트로되고 더욱히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여서 滿鮮一如의 政策이 漸次로 具現化하여가고 朝鮮內治安은 極度로 安定되어서 總督의 施政은 一層

完全 히物資를 잇게되엇다. 어쨋든 그러므로 產業經濟上 施設이 새로히 그대로 前進을 매우수잇섯다.

第二 經濟的原因으로말하면 朝鮮의 資源은 內地資本이 工業的企業活動에 最適地로서의 여러가지 有利한條件을 具有하엿스니 그것은 곳 原料、動力、勞力의 豐富와 低廉한 勞力의 無盡藏과 海陸交通의 便利와 滿洲와 北支의 接近市場에 近接하엿슴과 農產物水產物 林產物 鑛產物 低廉한 原料品의 容易한獲得 등을 指摘치 아니할수가 업다 게다가 朝鮮內工業地域으로서 經濟的條件까지도 自然的 與件하여 現在 半島에 工業地帶로서 優越性을 示現하여잇는것이다. 셋째 社會的原因으로는 朝鮮內의 敎育의 普及을 따라서 內鮮人間의 理解가 增進되고 感情의 融化를 招來하여서 人情 風俗 習慣 言語等에 同化가

滿洲 事變勃發以來 內鮮人의 滿洲에의 進出이 急激히 增加하게되엇스니 資源의 開發이 자못 許多하게 된것은 否認치아니할수가 업는것이다.

以上에 말한바와가치 政治、經濟、社會의 諸般原因下에 朝鮮의 工業은 發達되어 內地의 資本은 朝鮮에 流入하고 工業勃興을 促進하게되고 또 그 朝鮮內에 大小 各種의 工場은 北鮮에서 南鮮까지 各地에 勃興을 보게되어서 北鮮을 비롯하야 從來 蕞爾한 地方이 工業地帶로 變하여 가는것은 다시금 新興工業地帶를 形成하고 잇는 것을 알수잇다.

[illegible]

무엇을할가

特產物의工業化와 輸出工藝振興策

朝鮮輸出工藝協會主事 赤松明

一、特產物의工業化는可能하나

朝鮮의產業分野를 多角化하고 特히軍需工業의 育成에力點을두어 軍工業 精密機械工業等의高度產業을 勃興시키는것이 大陸前進兵站基地로서의 朝鮮產業에 課題된 現下의使命인이때 特產物의工業化는 어떠한 觀點에서 論할수잇슬까?

鑛物資源、農、林、水產等의工業原材料의 半島에 賦存되어잇는것이 最近飛躍開發의 步調를 速하게하고 電力、勞力等의豐富와 相俟하여 朝鮮의大工業의 勃興을顯著히 特徵지고잇는데 如斯한近代工業에 直接相結되는 資源的特產物에 關하여서는 敢히여기에서 觸할수업다 傳統的인在來手工業에 關係한 範圍內에서 檢討코자한다.

李朝末期로부터의 在來手工業은 內地에의食糧及 工業原料供給 內地로부터의 工業製品移入이라는施政以來의 朝鮮經濟의定型的性格때문에 其發展에는 거의볼만한것이 업섯다 在來의機業 製紙業 釀造業等에잇서서 段分近代工業化한것이잇스나 그것도 鮮內의

自家消費 를主로한것으로 서內地의封建制下의手工業이 資本主義의 洗禮를바드면서도 中小工業으로서의 地步를 再確保하고 例컨대 各地織物 生絲 陶磁器 漆器等이 多年 藩政下에 培養된 特產物로서의 特技를 近代的機構에 依하여 全國的商品 乃至는 輸出向商品에까지 轉化向上한것에比較할것이 못된다.

그러나 朝鮮經濟가 單純한內地의 從屬經濟로서의 段階에서 日滿支經濟ブロック―特히 大陸配給基地로서의 新任務를 負荷하게된今日 特產物에 對하여서도 單純한 自家消費向 乃至는 土產品程度 以上의것이 되게하기를 再檢討가 必要한時機로 되엇다하겟다 一面 物資―就中 輸入諸原材料 不足缺乏을補充키爲한 代用品으로서도 在來特產物의 活用이 着目되기에至하엿다.

如斯히 여러特產物의 在來生產機構를 近代的工業의 그것에轉化할수잇슨 與否가 重要한포인트로된것을 相當할수잇는데 그에는 于先 充分한 原材料의供給이 可能한가 其生產機構는 如何히 合理化할수잇느냐 ……

原材料는반드시 朝鮮內에豐富히 現存치안타 從來

主要產業 인 農產關係와는기픈 關心이잇고 또 關心을 가지게 되엇스나 이에 反하여在來特產物關係의 그것이閑却된데 依한것이다 工業化의基礎的條件에 充키爲하여서도 寂寞한 感이 업지 안타 今日輸出向 ……製酒原料用의 藁草가 朝鮮內에서는 매잇는 狀態이오 朝鮮紙의特徵도하는 楮의不足에依하여 減殺되고 南朝鮮에서는 竹製品의 原料인竹材를 內地로부터 移入하고 輸入漆의 杜絕로 內地로부터의 漆配定確保에 苦心치안흐면 朝鮮內漆關係業者의 死活이 制約되어 螺鈿漆器의 原料貝가 內地로부터 移入되는等 一一이枚擧할수업슬만한 實例를 想起하면 寒心하다고 생각이난다 勿論 林檎의加工에依한 林檎酒와 化粧水等의製造 乾海苔 ……

協同組合 的生產方法을選擇하는것이 조흔것이다 其點은 從來의 產業組合의 特產物生產分野에잇서서의 活動 或은 金融組合의 그것에 對한 支持等이 엇스나 販賣機關으로서의 强力한結合 乃至는 有力한 販賣機關의 確立이 업섯기때문에 姑息의感을 免할수업섯다 從하여 中小工業이라기보다 참아리 家內工業의 狀態에 跼蹐한채 가시히 餘喘를保하는 程度의것이만핫섯다 이에다가活을 ……

特產物의工業化가 輸出產業에의 捐同作을가진것이엇은 前述한바와가튼데 輸出工藝品으로서의 新分野의開拓은 가장適應한것이다.

時局下 軍需와生產力擴充資材의輸入力을增加키爲하여 第三國向輸出을振興하고 外貨獲得에努力하는것이 至上命令인것은 이에重言을要치안흐나 其輸出商品으로서는 軍工業 ……

二、輸出工藝振興具體策

[illegible]

輸出工藝 ……

朝鮮婦人 의 傳統的妙技 ……

半島의金鑛業 (下)

殖產局產金課事務官 桂珖淳

四、半島金鑛業界의一斷面과鑛業精神

金鑛業은 本質上 資本主義的企業이다 小資本으로 小規模의 手堀式經營을 하여서는 반드시 最後까지 金山을 完全히開發치 못하고 中途에서 挫折敗北하기 쉬운것이다 充分한 機械的設備와 卓越한 技術的知識을 具備한 大金山會社의 金鑛經營內容을 보든라도 充分히 調査한後 着手한 金山中 成功하는山은 十中一二에 不過하다 그러나 그들은 資本에 餘裕가잇스므로 다시 다른山을 探鑛開發하여 十中一二에 成功하는 ……

……

五、半島金鑛家에對한希望

……

水產物生產擴充

② 平北產業技師 鄭文基

東海岸篇 (四)

明太魚

東海沿岸의 重要漁業으로는 명태어 外에 明太魚가잇다 明太魚는 정어리와 相異하여 朝鮮東海沿海가 產卵場인同時에 棲息場이라 朝鮮이單獨으로 蕃殖保護하여가면서 漁獲利用할수잇는 魚族이라 其漁業은 距今三百餘年前부터 시작되어 朝鮮漁業中가장 오랜歷史를가지고잇는同時에 朝鮮一般民衆生活에 가장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잇는 水產物이다 ……

……

我經濟界動向

東銀會長 閔奎植

……

賀正

甲山繁榮會

金炳燁
柳志爀
金性濟
電話一九番

金昌林

甲山邑內
食料料理 朴丙道商店
錦華園

甲山
日の丸カフエー
主 朴明赫

甲山邑內
李連和

甲山邑
中央麵屋
主 金明煥

甲山邑
木材 三共商會
金蓮龜 朴英洙
李仁和 崔鍾萬
電話二四番

甲山邑中央通
松月堂本店
主 沈明松
電話二三番

甲山邑
共信商會
主 金炳赫

甲山邑
吳秉國

甲山
綿布實業 金和順商店

甲山郡內
雜貨 協成興

甲山
德和利

甲山魚物商組合

甲山
醫學士 趙來炳
電話二〇番

白鍾喆

甲山
菊地正志

甲山
李熙台

甲山
金瑒在

甲山邑中央通
日用和洋雜貨 崔鳳永商店

金熿鉦
電話一四番

朴和秉
電話一四番

朴俊秉
電話一四番

甲山
綢緞綿布 德慶長
主 孫佩之

甲山邑內
面協議員 高濟潤

甲山
鄭基翼

甲山邑
司法書士 林承喆

甲山邑
安鳳源
電話一六番

甲山邑內
京友寫眞館
主 朴周秉

甲山邑
和洋雜貨 池昌吉商店

甲山邑內
綿布 川合商會
主 朴建春

甲山邑內
李柱元

甲山邑內
中經堂時計店
主 金中經

甲山邑
海產物貿易 金物古鐵買入毛皮物商
南明鎭商店
電話一五番

甲山邑
和洋百貨 金秉湧商店

甲山邑
新元商店
主 姜中根

甲山邑
東昌堂菓子店
主 金弼憲

甲山邑內
新豐堂菓子店
主 李龍國

甲山邑
醫生 金秉七

甲山邑
成一食堂
主 劉成德

甲山邑內
綿布 趙承顯商店

惠山邑
朝鮮料理 華食洋食 中華料理
第一館
電話一八番

惠山郡
長延面職員一同

惠山
トラック株式會社
電話一三番

文光小校
職員一同

甲山邑
中央理髮館
主 張昌熹

甲山邑
李允來商店

甲山邑內
朴寅焞商店

甲山邑內
平和旅館
主 張學實

甲山邑內
三和鐵工所
主 鄭在植

甲山邑內
大成鐵工所
主 玄成吉

甲山邑
中華料理 維新園
主 劉永祥

甲山邑內
中華料理 平和園
主 嚴吉喜

甲山邑
朴相俊冷麵屋

甲山邑
大成旅館
主 嚴大浩

甲山邑內
安亨源商店

甲山邑內
金庚禧商店

甲山邑內
半島旅館
主 洪淳善

甲山邑內
綿布 吳炳直

甲山邑
中華料理 昌敍園

甲山邑
長平麵屋

甲山
唯一洋服店

甲山邑
咸興旅館

上篭面
面長 金鎭禹

惠山郡佛項面牧渡里
朝鮮料理 東洋館
主 沈在天

沼德面
面長 金壽河

牧渡郵便所
所長 李漢榮

鎭南浦

鎭南浦府漢頭里
鎭南浦煉瓦株式會社
專務取締役 象山郁次郎
電話 四二七番
工場 鎭南浦府大頭里

鎭南浦府後浦里
中樞院參議 李鍾燮

鎭南浦
平南道會議員 黃潤

鎭南浦府會第二部副議長
鎭南浦金融組合長 趙定鎬
電話一二二番

鎭南浦府龍井里
公和商會
代表 尹致權

朝鮮海苔販賣株式會社專屬仲介員
黃海道漁業組合聯合會指定仲介員
鎭南浦府碑石里
海産物貿易商 海陸物産社
長 電話一三七番
取扱種目（乾玉筋魚(카나리)、改良及在來式海苔、混布(미역)、乾蝦、멸치(イリコ)、明太魚、青魚、漁業用筵、叺製造販賣其他海産物委托賣買）

鎭南浦各公立學校職員一同

鎭南浦各私立學校職員一同

鎭南浦府會議員 前田貴

鎭南浦府會議員 小西仙吉

鎭南浦府會議員 康完用

鎭南浦府會議員 金明漢

鎭南浦府會議員 武本仁平

鎭南浦薪炭組合

日本鑛業株式會社
鎭南浦製錬所

鎭南浦
齒科專門 文化醫院
電話八一四(齒醫師)
院長 京城齒科 醫學士 柳成璡
副院長 京城齒科 醫學士 朴泰植
技工部 四名 外總九名

鎭南浦
株式會社 和信鎭南浦支店
代表 電話五七〇番

鎭南浦
三和券番
電話 五二一 八四三番

鎭南浦府廳職員一同

鎭南浦警察署職員一同

鎭南浦商工會議所

鎭南浦府龍井里
金秉根
電話 三三二番

鎭南浦府漢頭里
金化鏞
電話 八五九番

鎭南浦府碑石里
長老敎會

鎭南浦
丸ナ穀物協會

鎭南浦韓白米組合

鎭南浦府漢頭里
吉善精米所
電話 八一〇 八二九番

鎭南浦
齋藤精米株式會社

鎭南浦碑石里
織物貿易商 白南薰商店
電話 五四六 五四七番

鎭南浦府廠沙里八二番地
新光織物株式會社

鎭南浦
半島被服工廠
電話 一五四番

鎭南浦府碑石里八十四番地
東和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相
專務取締役 朴文
常務取締役 柴田
取締役 金致宜

鎭南浦
平安木材株式會社
社長 高泰和

鎭南浦府明峽町三五
東和木材商店
電話 特二九番

鎭南浦
百貨店 萬貨昌

映畫劇場 衆樂館
電話 八一八番

鎭南浦府三和町
義和製材所
代表者 金殷玉

鎭南浦
仁山商會
代表 李鳳喜
電話 一六〇三 三三番

鎭南浦産業組合

鎭南浦府會
副議長 佐藤長五郎

鎭南浦商工會議所
會頭 河村國助

鎭南浦商工會議所
副會頭 朴文爀

鎭南浦府龍井里
魯起元

鎭南浦
尹基元

鎭南浦府會議員
黃致秀

鎭南浦漢頭里
劉泰豹
電話七一七番

道立鎭南浦醫院

鎭南浦
三和醫院
院長 金養植
電話 五〇九番

鎭南浦
龍井醫院
院長 李顯柱
電話 五四四番

鎭南浦
張內外科醫院
內科 張晦善
外科 張益禧

鎭南浦
海東醫院
院長 林鎭海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鎭南浦支店

鎭南浦
株式會社 三和組
社長 姜偉情
電話 一二一 三六二 五六八番

鎭南浦府月見町二〇
鎭南浦汽船株式會社
支配人 來田晉三郎

朝鮮鎭南浦府三和町七十八
朝鮮商工株式會社

東一商店 電話 一五七番
三和牧場 電話 三一二番

鎭南浦府後浦里十七番地
府物問屋 金斗玉本店
電話 特三五六番 三八七番
出張所 平壤府八千代町 海州府南旭町 新義州驛前

鎭南浦府三和町
共成社
電話 長 八七六四 五二四一 八二七一番

鎭南浦碑石里
殷成洋服店
主 鄭基洽
電話 二七六番

鎭南浦府後浦里
朝鮮料理 常春館
電話 五一〇番

鎭南浦府後浦里
朝鮮料理 明月館
電話 三四九番

鎭南浦府後浦里
社交場 金剛會館
電話 九五七番

御料理 江月
電話 二二五番

鎭南浦後浦里
中華料理 鎭江樓
電話 五五一 二九番

鎭南浦明峽町
松丸太薪炭委托販賣 白新炭商店

鎭南浦府龍井町三四
小林久男

鎭南浦府龍井里
永和材木商會
電話八一一番

鎭南浦府碑石里六五
德濟醫院

鎭南浦府億兩機里
永合製材所
電話一〇三四番

鎭南浦碑石里驛通
齒科專門 光州醫院
電話五七四番

鎭南浦府後浦里
利和洋服店
電話七五一番

鎭南浦府碑石里
光成堂藥房
電話八二八番

朝鮮鎭南浦府三和町
末永淳
電話三〇九番

大同醬油店
張時雲

鎭南浦府三和町
昭和洋行

鎭南浦
漁業組合

平南無盡株式會社
鎭南浦支店

朝鮮製粉株式會社
鎭南浦工場

公州

鑛業 權鷄龍

李華珍

公州邑大和町
尹甲善

公州邑本町
綢緞布木 三星商會
主 成樂鵬
電話 二三

皇紀二千六百年ノ新春ヲ賀シ奉ル
昭和十五年一月一日
忠淸南道公州郡公州邑內
公州公立學校職員一同

公州和信連鎖店
共榮商會
電話五五番

公州邑錦町一〇八ノ五番地
南宮梁

忠南公州郡公州邑本町一四二
南鮮興業株式會社

公州邑山城町一二二
合資會社 忠南タクシー
代表者 朴龍來
電話一一三番

公州邑旭町
回生醫院
院長 金縉圭
電話三六番

公州邑本町
李興元材木店
電話一三九番

公州邑錦町一
公濟醫院
梁載淳
電話五十一番

第一生命保險會社
公州支所長 金喆鎬

錦湖醫院
白昌基

文友堂
電話一七二番

金壯應

公州邑會議員
李福文

公州邑錦町
河昌淳

朴用男

化粧品各種 花香堂
金容熙

洪冠杓

永明實修學校
職員一同

無名氏

公文堂印刷所
沈泰鎭
電話一四六番

長岐面長 李元浩
會計員 朴鍾烈

長岐面醸造場
錦春釀酒場

公州邑本町
丸田洗布所
取次 電話二十三番

公州郡公州邑本町三七二
京城洋服店
主 金容福

方榮根

朝鮮料理
錦樂園
電話二三五番

公州金融組合

公州邑本町
高級調製 富元洋服店

タイヤヤキツキ
大和自轉車店
主 李龍出

南一商會
電話一三一番

趙國元

吳昌先

李成汝

兪昌植

公州印刷所
電話二八番

各種雜貨問屋
金興三
電話一三三番

廣成木工場
梁善一

黃元淑
孔憲釗

朴元默

公州稅務署
公州朝鮮酒造組合

(コ)吳精米所

高原公州邑長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大田支店
公州出張所

李義東

朝鮮中央無盡會社公州代理店
主任 河遠澤

朝鮮日報

新年號 其七

開拓民積極後援은 民族發展의礎石

新京 申基碩

滿洲國이 建國된以後 在滿朝鮮人은 滿洲國의 重要한構成分子로서 滿洲國의 生成發展에協力貢獻하고 他民族과 協和하여 가면서 均等한條件으로 各方面에 堅實한 發展을하도록 指導하는것이 그指導方針이 되여잇으며 就中 每年移住하는 開拓民에 對하여는 康德三、四年(昭和十一、二年)頃부터는 指導統制方針을 樹立하여 滿洲國自體의 要請이라는것보다도 朝鮮內의人口問題 農村問題의 解決의 한方策으로서 一定數의 移民을入植하여 定着安定되도록 指導하여왓던것이다。

滿洲國의 朝鮮人開拓民에 對한政策도 其間屢次의 修正을보앗으며 그中에서도 昭和十三年末頃부터 日滿兩國의 根本國策으로서의 開拓政策을 再檢討하게되어 滿洲開拓政策 基本要綱에依하여 朝鮮人開拓民도 國策의一部分으로서 取扱하게되어 [illegible]

滿洲移住의原因과 移住民歡迎의限界

朝鮮人開拓民의 滿洲移住의原因에 對하여는 새삼스리 檢討할 必要를 늣기지안는다 朝鮮內에서 開拓民의 選定에 當하여 一面勸誘募集의 形態를 取하는것을 보고 또는 日滿兩國의 開拓民에 對한 여러가지補助와 助成의 現實을보고 朝鮮人에게도 積極的으로 滿洲移住를 奬勵하는 方針을 取하는것가치 보이기쉬우나 一部에서생각하는바와가치 滿洲移住를 奬勵하는것이라 적어도 滿洲側으로보아서는 每年一萬戶라는 制限을 두어 그限度內에서는 助成을하되 그以上은 移住시키지 안는다는것이 根本方針으로 되어잇다 그런데 每年四十數萬이라는 自然增加를 가진 朝鮮의 人口問題를 解決하기爲하여는 過剩人口의 大量의 國外移住가 絕對로 必要한것이 事實이며 國家에서 指導統制를 안트라도 朝鮮人의 滿洲進出은 모든方面으로보아 必然的事實이것이다 이것이 朝鮮人開拓民의 가장特殊한 現狀이다. 現在二千三百萬의 朝鮮人口로써도 年年數萬의 國外移住가 必要하거늘 十年後에 三千萬이되고 二十年後에 四千萬이 된다면 그때의 過剩人口 [illegible]

開拓民의使命偉大 非常한覺悟가必要

以上에서 朝鮮農民의 滿洲移住의 必然性을 보앗거니와 그러나 朝鮮農民의 滿洲移住를 單只經濟的移民 即生活의 觀念에 [illegible]

滿洲國農民에協力 大陸에뿌리를박자

[illegible]

開拓民將來에對한 樂觀悲觀의兩觀察

[illegible]

民族發展의大據點 積極的後援이緊要

[illegible]

(寫眞은 申基碩氏)

建設的開拓民의 大陸進出을要望

天津 韓普容

緖言

北支來住者의 한사람으로서 余個人으로는 多少의 所感도 업는바는아니나 『北支同胞의 現地要望』이라는 커다란 課題下에 現地同胞의 代表的 意見을 提示하라함에는 그實任上 自然나의 붓끄틀 무거워지지안흘수업다 그것은 各個人의 格別한體驗은 各別한 意見을 胚胎하는것이며 이各樣 各異한 意見을 綜合的으로 表示하기에는 余自身의 現地生活이 넘무도 日淺한까닭이다 따라서 以下敍述하려는 몃가지 意見은 現地在住의 한사람으로서의 余一個人의 所感에 不過하다는것을 먼저 明記하여둔다.

『北支現地』라는말은 同時에支那事變을 聯想케하는말이니만치 『北支同胞의 現地要望』으로는 爲先事變處理에 對한 조그마한希望또는 意見이라도 업을수업다 그러나 現下國策의 大宗이되어잇는 支那事變對處策에 關한軍事行動은 大本營의 最高方針에 無條件으로 信任一任하여 余의이글中에서는 이點에 關하여는 全然不觸하기로하고 다만現地社會에잇서서 特히 우리들에게 直接關係잇는 當面問題에 對하여 若干記錄하여보기로한다.

現地人의二個要望

우리 北支現地人의 要望은大別하여 두가지로볼수잇다 하나는 興亞院, 朝鮮總督府또는 外務省現地機關等 當局에對한 要望이요 다른하나는 一般朝鮮內地同胞에게對한 北支再認識에關한 要請이다.

朝鮮內地에잇서서는 南總督赴任以來 始政의 主要根幹을 內鮮一體에두고 이것으로써 半島同胞의 銃後報國的 推進力의源泉을 삼게되엇다 그리하여 內鮮一體의 完全實現을爲한 새로운政策은 社會各方面에 具現되게되엇다 가까운例를들면 內鮮人共學을目標로 朝鮮敎育令을改正하여 高等普通學校를中學校로 普通學校를尋常小學校로 名目부터統一하엿고 國民三大權利義務의하나인 兵役의權利義務를 半島人에게도 均享케 하기爲하여 그準備工作으로 朝鮮人志願兵制度를 實施하게되엇다 또最近에 이르러서는 朝鮮家庭의 姓本位制度를 氏本位制度로改革하여 今年二月부터 그實現을보게되엇다 이것은 뚜렷한 몃가지 擧例에不過한것이나 이와 同一한趣旨의 數多한大小政策은 一一이枚擧할바 못되어 社會各方面에 發現되어 그리고 內鮮一體의政策은 政策에그치지안코 實際行政上에 잇서서도 漸次 具現을 보게되어 滿足할 程度에는 가지못하엿다 하더라도 朝鮮人取扱待遇란 點에잇서서도 從來에比하여 적지안흔 改善을 보앗다 이에따라서 半島同胞의 銃後報國的赤誠表現도 豫想以上의 實績을나타내고잇슴은 當局에서어미認定하고잇는줄안다.

北支行政當局에 對한要望

이러한 情勢下에 우리北支現地半島人으로서 한가지 遺憾으로 여기는바는 現地行政機關의 朝鮮人取扱待遇가 朝鮮內의 行政當局의 그것에 比하여 遜色이 만타는點이다 勿論여기에는 여러가지 理由가잇는줄안다 抽象的으로만하면 周圍環境의 相違도 잇을것이요 半島人自體의 欠點에도 由緣할것이다 後者의 境遇를 좀具體的으로말하면 北支半島同胞中에는 아직도 不正業者가 相當히잇을뿐아니라 惡質的不良輩도 相當히 雜居하고잇다 그리하야 此等輩類가 때때로 犇走한 現地當局을 괴롭게하고 잇슴은 吾人도 甚히未安하게 생각하는바이요 아울러이들이 하루바삐 蹤跡을감추어기를 衷心으로 念願하는바이다 그러나 事物現象은 冷情히考察할必要가잇다 나쁜일은모주리 北支半島人만하는것도아니요 半島人은 모주리 낫분일만하는것도아니라는것은 現地留置場에各民族이들어잇는事實이라든가 內地에도 刑務所가잇는 事實에비추어잘알수잇는일이다 國民敎育의 普及과國家社會의 文明에따라 監獄이업서지고 法律이必要업슬것은하지마는 實際現象은 그와는 反對方面으로疾走하고잇는것이 現代社會의實情이다 그리고 需要가强하면 供給이同伴함은 經濟學上의 鐵則이다 支那人이 大麻 모히를 外國人의茶나煙草와가치 가벼운觀念으로使用하는以上 此에由緣한 犯罪一掃는期待할수업다 따라서不正業者消滅政策은 支那當局의整頓覺醒을 기다려徹底될것으로믿거니와 方今話題되는것은 그것은 그러타하더라도 現在에잇서 왜不正業者中에 半島人이特別히만흐냐하는點이다 이것을 한마디로말하면 그들의 貧弱한經濟狀態가 그들로하여금 그러케만들엇고 또第三者로하여금 他民族에比하여 特別히만흔듯이 印象을주고잇는 까닭이라할것이다 다시말하면 不正事件을하나들어서 徹底的으로 推窮한다하면 그結局에가서는 반드시 非半島人이 나아질것인同時에 半島人의 經濟는 知識狀態가 他人視線을 避할만한實力과 技能을 갖지못한까닭이다.

朝鮮人不正業者 跋扈의原因

다음不良輩의 跋扈에關하여一言을要한다면 當局의 말과가치 支那人에對한 根據업는 優越感이 그主要理由의 하나가되는것이 事實이나 大體로말하면 어떠한 民族이든지 初期에잇서서는 여러가지 不安과 危險에 逢着하게되는것이다 그리고 어느不安危險을 問題삼지안코 自險을自負하고 나아가는 사람中에는 氣質이溫順한 模範靑年은 稀하겟을뿐아니라 이러한 結果로 보더라도 初期開拓의 役割한善良國民은 커다란實績을 내지못하는것이 實際事情이다 現在北支에 話題에 오르는 多大數의 不良輩는 內鮮人을勿論하고 本國에서도 許이 조치못하던 分子들일뿐아니라 오래前에 이미 滿洲方面에 轉轉流浪하면서 반갑지안흔 過去를가진者들이 만타 此等不良輩中에半島人이 特히 만흔것은 아니지마는 一般이 그러라고 생각하게되는것은 무슨事件이하나잇을때에는 現地和文新聞에서 그題材中에 반드시 半島에 限하여는 반드시『半島人』이라고 明示하는까닭인가한다.

如何間 이러한 事情下에 北支에잇서서는 半島人의 評이 甚히 조치못한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爲政當局은 以上指摘한北支半島人의 特殊事情을 十二分參酌하여 그에 適應한 政策을 實施하는 同時에 一般에 浸潤한 半島人에 對한 偏見을 一掃하는것이 內鮮一體의 大目標에 符合할뿐아니라 北支半島同胞의 感化工作에도 絕對必要한것으로 思惟된다 假使以上諸事情을 公然無視한다 하더라도 施政은 公正을 爲主삼는것인 以上, 그리고 北支半島人 全部가不良 不正業者가아닌以上 黑白을가려서 對處하는同時에 正業方面에進出하려는 半島人의 便宜를圖하여 그들로하여금 原籍地에따른 不快한氣分을 느낌이업시 興亞建設의 現地役軍으로遺憾업시 技能을 發揮하도록留意하기를바라는바이다.

以上은 現地當局에 希望을 促하는同時 이러저러事情을 充分 [illegible]

朝鮮人中小商人을 保護하라

또한가지의 要望은 北支中小商業者의 保護에關한要請이다 [illegible]

內地同胞는北支를 再認識하라

다음 北支現地의 半島人으로 朝鮮內同胞에 對한要望을 一言으로 表示한다면『北支事再認識』 [illegible]

資本的實力을가진 資格者의進出歡迎

[illegible]

(寫眞은 韓普容氏)

强力的輔導機關과 金融機關施設이急先務

上海 金環載

머릿말

나는 中安에온지 겨우 六朔에지나지못하니 朝鮮人의狀況이거나 其他 中國全體問題의動向을 說明할만한資料와 信念을갓지못햇다. 그러나 上海는 中國의心臟部이고 中南支의 朝鮮人의進出은 上海를根幹으로하고때더진枝葉이며 上海가 中國의中心市場이요 經濟 文化의震源地이니 上海의朝鮮人의 現況이中南支에散在한 同胞의現狀이라고規定하여도 大差가업을것이요 上海의動態가 中國全體의動態이라고하여도 망발은아닐것이다.

그러면 話題의順序를

1、그들同胞는 무슨職業에從業하는가。

2、그들同胞는 무엇을생각코잇는가。

3、그들同胞를爲한 施設로는 무엇을생각코잇는가。

4、方今樹立過程에잇는 中國의新政權과 半島同胞에게 잇치는影響은어떤것일가。

무엇 무엇이要急한것일가。

中南支라고해도 上海가爲主이요 다음에는 南京、漢口、杭州、蘇州、九江、濟南、靑島、威海衛、香港、廣東等地가 重要都市이며 同胞의進出도 거기에 發展의餘地가잇고 現在도 날로 달로增進하는곳이며 그外에 軍隊의移動을따라서 여기 저기에 同胞의 그림자가 뵈이기는 하나 그一時的現象이다.

從事하는職業

그들은 무엇을해서 異域에서 生計를하는가 率直히말해서 두가지種類의職業이니 하나는 阿片장사이요 다른하나는 慰安所經營이다 [illegible]

이곳兄弟의생각

[illegible]

(寫眞은 金環載氏)

非常時保健의指針

四海僉位는必讀하시라

新東亞創建의 昭和十五年의新春을마지함에際하야 四海諸賢께삼가歲首之禮를드리오며아울러 國民保健運動促進의新課題를提出하나이다。國民保健의目的을達成함에는 여러가지方法이잇겟지마는 藥品의撰擇을똑바로하는것도 그重要한方法의하나입니다。弊社가從來로新聞雜誌、紙上病院、또는柳韓保健、家庭寶鑑等의刊行物을通하야그實現에努力해온重大目標의하나도藥品撰擇의正當한知識養成이엿사오나 非常時局의出現以後、最近數年에이르러서는 原料難으로 品質과效果가薄弱한藥品이만히나오게된關係로 藥의撰擇은一層더困難하게되엿고 따라서藥品撰擇의正確한知識도 更一層그必要를늣기게되엿기로 아래에藥品撰擇五則을들어大方諸賢의參考에供하나이다。

一、信用잇는製造元은 첫재로民衆保健을擔當한무거운責任感에서、둘재로自家百年의大計를爲하야 恒常優秀한藥品産出에專念하고、決코目前의小利에汲汲하야粗惡品을濫造치안사오며오랜年祚와豐富한經驗은藥의純度와큰關係가잇사오니 藥을撰擇하실때는반드시 그藥의製造元의信用과經驗과年祚에注意하실것。

二、藥의性質은醫師諸位가잘아시는것이므로 醫師가使用하거나推奬하는藥이면信用할수잇사오니 藥을求하실때에는 먼저醫師에게 問議하시여 決定하실것。

三、조흔藥은조흔原料를가저야 비로소맨들수잇는것이라自古로조흔原料는求하기어려웟지만 特히近日가튼物資難의非常時에잇서서는 더욱困難하야大會社나 充分한餘力이잇는製造元이안이면 原料供給의圓滑을期하기極難하오니이點도잘살피시어藥을撰擇하시지안흐면劣惡品을사시기쉬울것입니다。

四、誇大廣告를하는藥品은警戒할必要가잇사오니 어떠한藥의宣傳廣告를勿論하고 그趣旨가合理的인지아닌지를 明察하시고 世評도參考하시여 判斷하실것。

五、藥의眞價는效果에잇사오니 貴下가醫師의指示나親知의勸告로效果가的確한藥을求하실때에 新聞雜誌의誇大廣告나 한둘信用이薄弱한藥房의誘引에依하야 첫재로는成分이同一하다는理由로、둘재로는藥價가싸다는 口實로他種代用藥을 사시지말고 躊躇업시自初에目的한藥을사실것입니다。

昭和十五年一月 日

株式會社 柳韓洋行 保健部 白

戰時食糧과朝鮮米再認識

平時에는 食糧에 걱정이없는나라이다 平時는勿論 戰時에도 重要物資는 不足을 感할지라도 食糧에 對하여는 絶對로 自給自足의 [illegible] 支那事變以來 [illegible] 昭和十二年七月 [illegible]

(一) 過剩對策에서 不足對策

從來朝鮮에있어서 主食物인 쌀에對해서는 어떠케하면 過剩生産을 防止하느냐는것이 問題가되고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朝鮮米增産計劃을 [illegible]

外貨 [illegible]

(二) 大旱災로大減收

南朝鮮의 十四年 一月以來의 降雨는 대단히적어서 水稻移秧狀況이 자못不良하였다. 七月末日現在로 全朝鮮의 水稻移秧完了面積은 豫定面積 百六十三萬餘町步에對하여 百十八萬餘町步에不過하여 豫定面積의 二割七分五厘인 四十四萬九千餘町步가 移秧不能이었고

移秧 하였드라도 枯死、七割以上減收의것이 [illegible] 結局第一回收穫豫想은 水陸稻合하여 一千三百九十九萬九千二百五十二石 第二回收穫豫想은 一千四百三十二萬三千三百四十七石이어서 比前年實收二千四百十三萬八千八百七十四石에 比하면 九百八十一萬五千五百二十七石(四割六厘)의 大減收이었다 이제昭和八年以降의 收穫高를보면如左하다.

昭和八年	一六、三四五、八二五石
同 九年	一六、七一七、二三八
同 十年	一七、八八四、六六九
同 十一年	一九、四一〇、七六三
同 十二年	二六、七九六、九五〇
同 十三年	二四、一三八、八七四
同 十四年(二回豫想)	一四、三五五、七九三

(三) 十五米穀年度供給總量

酒井農相이 某紙에寄稿한것中 米穀事情에對해서보면

昨年 産米의 第二回收穫豫想高는 內地六千五百二十八萬一千石、朝鮮一千四百三十二萬三千石、臺灣九百九萬三千石(十五年一期米를 前年 [illegible]) [illegible]

米穀國家管理와米價問題

(一) 價格政策失敗

米穀 十三年 夏期以來 米價의昂騰을先制는 下半期에 [illegible]

農相 은昭和十五米穀年度 [illegible] 酒井農相은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六日에는 元來內地米 [illegible]

(二) 지나친樂觀이禍根

事變 以來 [illegible] 政策에 [illegible] 過去의對策을 [illegible] 三千石으로했다.

(三) 朝鮮의食糧對策

朝鮮 에있어서는 本年旱害로 因하여 近一千萬石의 減收가 豫想되는 만큼 總督府에서는 [illegible] 官民一致協力하여 萬般의 施設을 講究하여 [illegible] 朝鮮米의 內地移出을 [illegible]

(가)米、麥、高粱等雜穀의輸入稅免除
(나)地主에對한正租出荷適應
(다)米穀金融의圓滑促進 正租 玄米의市場出廻促進
(라)取引所에있어서의 正租上場
(마)全鮮各地의白米小賣價格의公定
(바)七分搗米의勵行
(사)家庭消費米의節約及代用食의獎勵

等모든方策을써서 極力으로 食糧政策의運用上 遺憾이없기를期하고있으나 朝鮮米消費는增加되어十四米穀年度의消費量은 一千七百六十四萬六千二百二十八石으로서 記錄的으로 增大되고 十四米穀年度의 內地

移出 은 六百五十萬石이었으나 前年에比해서 四百六十五萬一千石의減少量을 示하였다. 그리고 또 內地米의價格[illegible]

災害 事變때 [illegible]

(四) 配給調整令實施

總督府에서 客年十二月二十七日에 朝鮮米穀配給調整令을公布하였다.

骨子 는 (一)米穀의買入又는賣渡等의業務를行코자하는者는 朝鮮總督의許可를받을것 (二)朝鮮總督은 必要에依하여 米穀의 配給統制上 必要한 命令을할수있음 (三)米穀의輸出移出은 [illegible] 本組合은 法人으로하고 米穀의 輸移出은 本組合에限해서 可能케함 [illegible]

配給統制에關한條項을 即日施行하였는바 그內容은다음과갔다.

(四) 內外地增米에全力

主要食糧인 米穀의增産은 昭和十五年度에서 一層 그必要가 切實케되었다 [illegible] 米에있어서는 十四年度 內地의 增産計劃四百萬石 (朝鮮臺灣) 에다가 三百六十萬石 [illegible]

一層 [illegible]

(五) 食糧配給方策確立

朝鮮米穀配給調整令實施로 米穀의 配給統制、價格統制가 法的으로 그體制를 確立하고 [illegible]

從來 의 依然한 價格統制令에 依한 玄米價格 [illegible]

(六) 生産、配給、消費一貫統制

同社 [illegible]

需給 [illegible]

苦心 [illegible]

買溜 [illegible]

土地改良事業復活에對한要望

(一) 土地改良의歷史

朝鮮의産米增殖計畫은 大正七年內地의 米騷動을契機로서 大正九年에樹立되어 帝國食糧問題의解決과 國際收支改善에 重大한使命을가지고

內外 明治下에 三十萬町步의改良大量 圖키로하고 立案되었는데 [illegible] 第一期計畫으로 十五年間에 四十二萬七千五百町步의 土地改良과 耕種法改善으로 九百二十萬石의 産米增收를 圖코자 [illegible] 大正十五年에計畫을 更新하여十五個年間에 三十五萬町步의 土地改良及 耕種法改善에 依해서 四百七十一萬石의 增收를꾀하고 [illegible]

移出 [illegible]

(二) 産米增殖의內容

增産 計畫 [illegible] 昭和十五年부터 二十五年까지 約六百八十萬石을 [illegible]

(三) 注意할實行上諸點

食糧 [illegible]

利慾을떠나서 일을하자

忠州 金聲應

全力 [illegible]

棉花 [illegible]

謹賀 漢

東萊順飯店 永昌煤礦 海昌大藥房 柳鎭永 漢口市中山路一〇九號

漢口市中山公園構內 池田兵站指定 第一寫眞館 金鳳洙

漢口市江漢路六八號 松村齒科醫院 東京齒科醫學士 高裕耕

漢口市中山路積慶里八〇號 金泰燮

漢口市中山路二〇二號 貿易商 大陸公司 白雲成

漢口市特二區五族街義品里五號 劉炯

漢口市保華街一四號 貴金屬品 時計及蓄音機販賣 平井時計店 主 崔晶權

漢口市三民路一一八號 客室完備 親切丁寧 金水旅館 主 李泰龍

漢口市清芬路七八號 東和旅館 主 鄭潤熙

漢口 社交界の華 麗人の集團 カフエー ダイヤモンド 漢口市民權路

漢口市文書巷七號 漢口旅館 主 李寅環

漢口市清芬路六〇號 朝鮮料理 明月館 洪麟得 吳昌龍

漢口市中山路二六一號 日用食料 各種雜貨 酒類煙草 都散賣商 田中洋行

漢口市花樓街四十五號 各種看板 圖案設計 塗裝請負 廣告取扱 漢口美術廣告社 工場：漢口生成南里八十六號

營業種目 石版・活版印刷 洋式帳簿製造 印刷機械材料 印刷インキ 各種印材彫刻 ゴム印章 高級文房具 和洋紙類販賣 飯田三寶堂印刷所 漢口市中山路四十二號

貴金屬品 時計眼鏡 蓄音機 ラヂオ 高橋時計店 主 李萬錫 漢口市中山路六十一號

親切丁寧 技術本位 ミナト洋裝店 主 獨孤栗 漢口市特二區五族街六號

漢口市保華街十一號 大和寫眞館 全在鏞

ダンスホール花園 東亞舞跳場 漢口市特二區兩儀街二四號 鎭南浦府龍井里一八三番地 經營者 早見健造 鮮名 鄭義哲

漢口市花樓街永慶里三一號 新水樓 主 金洞立 通稱勇男

春日旅館 春 洪日利

漢口市積慶里二九號 金井館 邊正善

漢口市日本租界新小路三三號 日乃出館 鄭致福

一般貿易 輸出入商 三杉洋行漢口支店 林重鎬 漢口市民權路三三七號 本店 上海ブロドウエイマンション一階

食料雜貨 綢緞布木 軍輸品製作 日昌洋行 宋仲賢 工場 漢口市大董家巷六五號 住宅 漢口市花樓街二二一九號

輸出入貿易商 早見洋行 漢口市特二區五族街二號 鄭義哲

漢口市中山路二八一號 和洋雜貨 食料品 化粧品 小間物 海東洋行 主 鄭澤善

漢口市中山路一二三號 食料品 諸雜貨 高峰洋行 趙京煥 安民豪

軍指定軍需品製作 輸出入貿易商 日興洋行 朴熙紹 貿易部 漢口市黃陂街九號 工場 漢口市嚴家巷二七號

中小產金業者의要望

昭和十四年產金界回顧

一. 產金獎勵는 合理的인가 나
二. 金買上價不引上是非·增產割增金制度是非
三. 產金振興會社·金山開發會社에對한要求

保護獎勵의 顚倒的現象 根本策은金買上價引上

馬山 李鳳洙

이問題는 이時期에잇서 朝鮮의產金業을爲하여 참으로 適切又緊要한것이라할수잇다 다만 要은 爲政者當局에서 眞心으로 產金振興을 爲하여 邁進하려면 우리의 이要求를 馬耳東風으로 돌지말고 政策과方法의 貴重한 參考的資料로 삼어줄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設問에 對하여 첫째로 보아 勿論 合理的이다 그러나 問題는 獎勵의方法如何에 잇다 即 우리中小產金業者가본 現在의 獎勵方法은 不完全 不公平한點이 만치안흔가한다 그것은 우리中小產金者보다 大資本의大企業的產金業을 더욱 擁護, 優待하고 우리들은 너무 푸대접하지안는가한다. 國家의 援助는 그들大金產業者보다 우리들이 必要한데 事實上 援助받기는 그들이 더만히받고잇지안는가 그리고 그들의鑛은 비록 優秀한그것이아니라도 成功, 또裕足하게 援助하여주고 우리中小業者의 그것은 비록 [illegible]的으로보아 참으로 優秀한것이라도 援助의 恩澤을 받지못하여 어떠것은 無盡藏한 地寶를 永永開發지 못하고 그냥 死藏해버리는 例가 非一非再이다. 그러니 爲政當局者가 眞心으로 產金振興에 邁進하려면 우리中小金產業者들은 過去보다 一層더 保護援助해줄必要가 잇슬줄안다.

(나) 增產割增金制度도勿論업는것보다는낫다. 그러나그것보다도 根本的인 獎勵策은 金買上價引上이다고본다.

(다) 產金振興會社와 金山開發會社에對한 要求는 무엇보다도 手續을 簡便하도록하여주면 조켓다. 現在엔 三四個月以上걸리는것도 例事이니 그런不便이어디잇겟는가 그리고 手續料金의 負擔도 過重하다. 우리는 手續을 좀더簡便迅速히하여주며 또料金을輕減하도록하여주기를 兩會社當局에要望하는바이다.

의非常政策이아니면 到底히中小金山業者의 要望을 達成키어려웁다 金增産一路는 多大數를占有한 中小金山에 在한데 中小業者의 自力이 能히 國策에 順應하여 增產을 圖할가 疑問視된다 當局의 非常産金非常指導가 非常體制이아니면 增產不能일것이다 中小業者의 環境을 考察하면 私財投入은 鑛者도잇고 私財貧弱者도잇고 盲目的經營者도잇슬것 當局이서 이것을 等閑視할바아니오 嚴格히 調査하여 經營者엔 援助를 하고 經營不能者엔 指導하고 投資無能者엔 斷乎處分하여 이러케 徹底히 監督하면 業者나 政策上에나 好成績을 擧할것이니 이에對하여 當局의 考慮를 促한다.

(가) 產金獎勵는 合理的이냐? 產金獎勵는 何時代何國家를 不問하고 一日이라도 等閑視할바 아니다. 金의 自給이 國家社會에 對하여 어떠한 地位에잇는가 金의 重要性이 强大하거든 況現下時局에 處하여는 激增을 切望하는 時期에 到達하엿다하겟다.

(나) 金買上價不引上是非 增産割增金制度是非 金價引上要求는 一般業者의 要望이다 各項物資는 漸騰하는 反面에 金價만 釘着不動한다하면 業者의 損失은 무엇으로補充하라. 이것을 不顧하고 引上? 例外의 事情도 잇겟지만 大部

金價의引上은 密輸의防止!

開城 王性淵

現下非常時局에 處하여 當局 [illegible]

金의增産은 現下戰時經濟下에잇서서 가장緊要한 [illegible]

產金開發의 功勞者는 中小業者가아닌가

平北 許德初

을要치안는바 政府에서 產金獎勵는 積極的增産을加하여 劃期的振興을圖함은 物動計劃遂行上 重且大한 政策이고 合理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事變勃發以來 諸設資材의統制와 物價暴騰으로 因하여 鑛業者는 到底히 堅忍키어려운 打擊을바더 斯業은 點倒的不振狀態에 잇스니 要는 收支問題요 收支問題는 物價高에 順應하여 合法的으로 金買上價를引上해야 解決된다고 確信한다.

그러나 此際 政府는 金買上價를 不引上하고 金增産割增金制度를 發布하엿스니 果然 熱向의效果가잇슬가 當業者는 多少緩和性을 느끼나 大體論 鑛山을 綜合하여본다면 低品位鑛山이 大部分을 占하엿스니 增産上 必要한要는 一, 低品位中小鑛業者의 保護策이라 하겟다. 그런즉 中小鑛業者를 擁護하여 低品位鑛山開發을 促進하고 有助하는데에는 其適切한 指導方法과 探鑛上問題에 殺到되는것이니 무엇보다 眞合의策으로 爲政當局은 消極的인 增産割增金制度를 革新하여 一層나아가서 金買上價引上을 斷行하며 元來 中小鑛業者는 鑛山開設上 功勞者이므로 기피認識하는同時 增産에 重大한使命과 其役割에當한 產金振興會社 金山開發會社에서는 加一層 中小鑛業者의 保護에 嚴重하고 助長하여써 產金에 拍車를加하는 自發的勇往邁進케하여 產金의 緊急策으로 思料하는同時 速히實現되기를 要望한다.

金買上價引上으로 鑛業者의士氣를鼓舞하라!

京城 金麗華

于先金買上價不引上에 對하여 所感을論하여보려고한다. 이問題는 鑛業者로서는 誰某를莫論하고 困難을當하는 問題라고생각한다. 年產三億圓을 目標로하는 金增産五個年計劃을當하여 現下時局은 各鑛業者가 周知하는바 이나 아직도中島鑛區內에 睡眠鑛區가介在함은 如何한緣故일가 ? 例外의事情도잇겟지만 大部

分은 諸般物價騰貴에 起因하여 採掘하여도 收支가 맛지안는緣故라고생각한다. 事實上 鑛業生活四十餘年을 回顧하여보건데 至今가지 鑛業者에對하여 多難한 時代는업슬줄로생각한다. 各物價가 數年前에比하여 至今은約三倍의 騰貴를보이고잇는데 金價의騰貴는如何한가? 稍히微微함에不過하니 資本에餘裕를가지지 못한 鑛業者로서는 數年前가트면 能히採掘할만한鑛도 只今은 經費問題로 自然採掘을停止케되는것이니 至今形便으로 產金獎勵에萬全을期하기는 到底히至難하다고본다. 近例로 鑛夫의賃金을보더라도 最少限度로 一圓五十錢以下로서는 到底히 使用할

수업스니, 이와가치諸般物價에比하여 金價의低下로因하여 鑛業者에 士氣를阻止하니 只今形便으로는 金價를引上치안는限 國策에順應코저하는 有志의山積이나 力不及이니 實行까지는어렵다고생각된다. 이 問題에對하여 近者에 金增産割增金制度가생기엇는데 이는 그리神通한對策이못될줄 안다. 現在는 大部分의 金이나 德大制度인데 德大는 自己의 地主에 名義로賣渡하니 各德大에게는 餘波는잇슬지모르나 直接으로는影響이업슬것이니 現下形便으로는 于先急先務로 良好鑛山에對한開發會社에 補助金보다도金價를引上하여 鑛業者에게士

氣를振興하여 停止鑛山採掘에發手케하는것이보다 나흔產金獎勵가되지안흘가 생각하여 마지안는바이다.

大鑛山偏重主義의是正

順川 全永一

產金獎勵는 平常時에도 어느意味로든지 不斷的實行이 絶叫되는 現今非常時에處하여 國策上見地로 急切又急切임에 合理的이됨은 再論을不俟할지오 金買上價不引上에對한理論은 아모리 應突할지라도 엇재든 國際水準價格과 國際의差로써 保有金物實情과 散生金不集中으로 當局出路行等 多角的弊端이 厲生할을奈何리오 그리고 增産割增金制度는 全面的金價引上을 안는對策으로는 가장 適宜한措置라고보게되나 以若小限解決하면 上述한 滯滯性缺陷과 大鑛山買收價格과 富又는 鑛權者에게만 偏益이될따름이라 何故오하면 中小鑛界의 狀態를 通觀하면 鑛權者보다오

(다) 產金振興會社金山開發會社에對하여 要求 社內外를 [illegible] 代行하는지 營利를 目的하는지 國策을 一方으로 代行하다 一方營利도 代行하면 [illegible] 各金山을 調査하고 一方經營도 代行하면 國策上이나 業者에나 多大한 效果를 收할지오 裏若會社自體가 營利的이라하면 一考도 加할必要가업다.

不能이라하나 增産하는 것은 現增産의 前途는 日益 發展될지니 反面에 減産이 잇다하면 國策上 損害가아닌가 當局에서 十分考慮할것이다.

이러분 鑛業者側의 金價의 收受過去의 利益이 尤多함 그네에게 原則的이아닌 正히 疑問이라 이에잇서서 全面的 買上價引上 制度보다도 現下非常時國策에 順應하여 產業에 機能을 發揮하는바이다.

產金, 金山兩會社에注文

京城 金基德

振興과金山開發의重大使命을띠고나선 兩大會社에 對하여 우리로서의 企待는 在來當局의助長策인 大鑛山偏重主義를 是正하야 中小鑛山을 積極的으로扶植指導하되 모든手段의 便宜와 援助의·救濟를 切望하며 못드로도 一金額하는

(가) 產金獎勵의 要項은·探鑛坑道掘進과 機械의設備及 低品位含金鑛物處理에 對한것이다 其中 探鑛坑道掘進에 對하여는 반드시 機械力에 依한掘進坑道이어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機械的施設을 要함으로는 中小產金業者의 希望으로는 可能한限度로 機械力에 依치안는 探鑛坑道掘進이도 獎勵의 恩典을바란다.

(나) 諸物價와 勞賃昻騰과 諸機材供給이 圓滑치못한等 計畫事務의 缺陷이各般의 悶係件으로 因하여 生產費가 增大함으로 產業도 其採算이 漸漸縮小하여 가는 此際에 될수잇스면 金買

一, 會社의 營業科目中의 一인 金製鍊을 實施할것
一, 含金鑛產物의 買入實行
一, 產金事業에 必要한機材供給에 對하여 더욱迅速과 圓滑을 圖할것

一金鑛山에 關하 調査文作鑑定에 對한 委任을 더욱힘써줄것
一, 探鑛受託金山의 賣山時에 條件을 좀더 鑛山主에게 有利케할것
一, 探鑛資金貸付의 金額을 좀더 增額하여줄것
一, 技術的指導를 더욱 希望하여 마지안는다

自然的 動作을 反復하여 不自然的 同業界의 不評을 除去하는 行하야 擇所에서 業界를 代表하야 出鑛成績을 前에 試掘制度를 當局에 [illegible]

開發會社의 使命은 [illegible] 當局指導와 [illegible]

賣鑛機關의設置 이로써「뿌로커」를退治하라

長箭 金翼之

一, 大金山偏重傾向防止 元來 制度上으로는 大中小金山의差別이업고 單只增産이目的이나 實際運用上에는 各種條件과 價關係等 여러가지가 모두 大金山에偏重하게되어 本末이 顚倒된感이不無하다 事實上 大金山은 補助와 獎勵를 하지아허도 其自力으로써도 能히 [illegible]

의하여 絶對的必要한것이다 中小金山이라고 반드시 其自體가 不良한것만이아니라 施設과經營이如意치못함에 因由함이만타. 補助와獎勵의 趣旨가 金增産에잇고 實際金이아닌以上 中小金山에厚할이 效果的이오 合理的일것이다. 이厚함을防止하고 中小金山本位로써 獎勵指導하여주기바란다.

一攫千金은 꿈꾸지마라

釜山 李泰午

世界各國을 通하여 [illegible] 金이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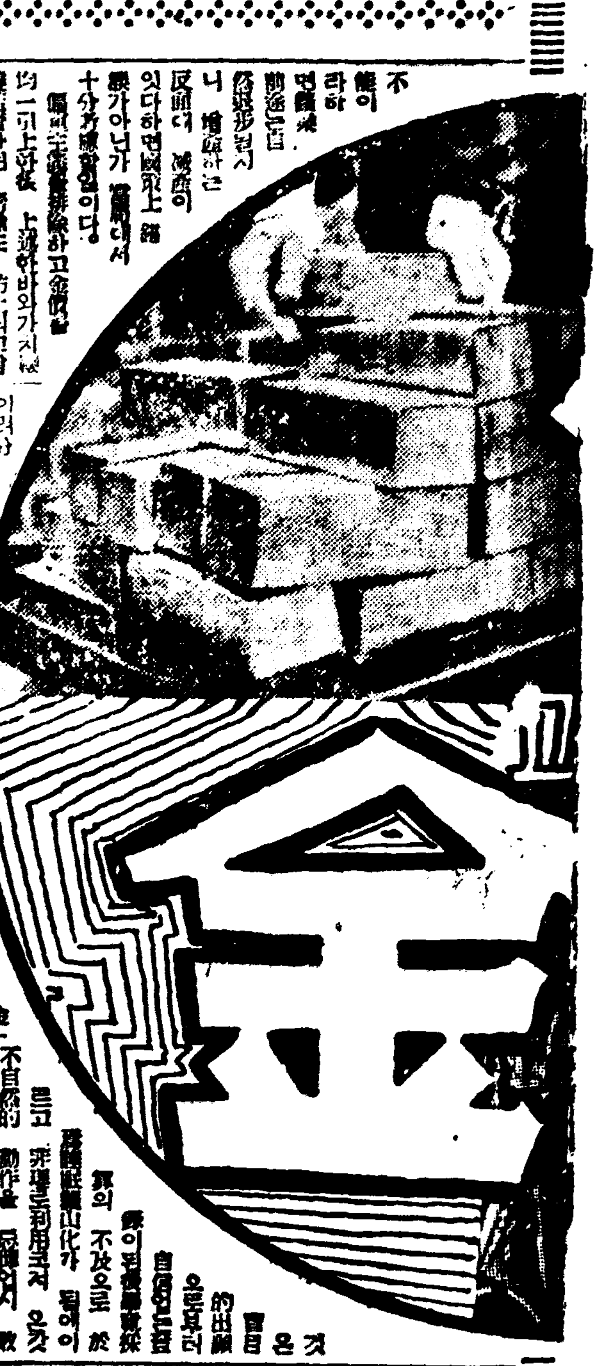
當局의徹底한指導를바란다

大邱 金鍾遠

砂金鑛探掘에 地料를업새라

大田 金珍捌

一, 產金獎勵는 合理的으로 産金業者에 [illegible]



新年 漢口

在漢口朝鮮人會役員一同
會長 曺應道
副會長 柳鎭永
理事 吳利成
會計 張贊植
評議員 孫枝煥
同 李泰龍
同 鄭義哲
同 鄭澤根
同 李萬錫
同 韓秉瑞
同 金淳一
同 張贊植
同 吳利成
相談役 高田穗積

中支漢口市民權路一九八號
輸出入貿易商 金泰洋行
金萬石
李基盛
支店 天津日本租界明石街一ノ九號 永安公司 電話二六四〇

漢口市保華街十一號
寫眞機及材料 寫眞撮影營業 大和洋行
朝鮮日報漢口支局長 張贊植

漢口市日本租界新小路一五號
李華盛

漢口市交通路一八號
李自勳

漢口市統一街大江家院八三號
曺應道

漢口市特二區五族街義品里一〇號
洪昌河

合資會社 三興公司
漢口市交通路六十二號
代表社員 桂澤洙
支配人 原田實
相談役 金子達雄

寫眞材料 寫眞撮影部 レコード部 吉野公司
漢口市中山路四三九號
張正燁

寫眞材料卸 大華洋行
漢口市民生路三一四號

朝日寫眞館
漢口市淸芬路一三五號
金寅九

高木寫眞館
附設材料部 李英傑
漢口市中山路四七八號

食料品雜貨商 高武商店
漢口市民生路二六七號
金正麟

仲買·紹介·及委托 食料雜貨 日昇洋行
漢口市民生路一三二號
韓秉善

吉本洗染公司
漢口市淸芬一路五號
文興雲

サロン美鳥
漢口市淸芬路一〇〇號
朴源學

春香園
漢口市中山路文書巷五一號
李道濟

朝日館
漢口市日本租界新小路十八號
李炳奎

東洋館
漢口市日本租界大和街八七號
金瑞粉

日用品雜貨商 金井洋行
漢口市中山路二七一號
金壽天

堀江洋行
寫眞部 漢口市中山路一六五號
食料品部 孝感縣孝感驛前
同 花園市
同 安陸縣安陸城內
食堂部 孝盛縣花園市
姜國範

寧安

洋品雜貨 寧安百貨店
主任 崔命燮 電話二二番

圖佳線寧安驛前
食料雜貨 合成泰
鐵道貨物取扱 ○大同運送部
主任 李春華 電話一一五番

寧安街 義信時計店
主任 李宗星 電話五二番

滿洲國圖佳線寧安街
食料雜貨 穀物精米 農產機械 薪炭販賣 寧光商店
主任 李鍾極 電話一三八番

滿洲國圖佳線寧安街
綢緞布木 日用雜貨商 ゴム靴 農具 永滿洋行
主任 金鍾遇 電話一二三番

牡丹江省寧安街南關
中和病院
院長 尹治三郎 電話二三五番

精米業 協成社
主任 李時坤

綢緞布木 鮮滿洋行
主 韓國輔

綿絲布 丸信百貨店
主任 河仁西 電話二〇八番

光成精米所
電話二二六番

綢緞布 合信洋行
主任 邊理仲

鷄林旅館
主 金相勳

吉原洋服店
主任 李鉉洙

平南冷麵屋
主 辛仁善

滿洲國牡丹江省寧安市公署正門前路南 洋服雜貨文房具和洋品商 五和商店 主任 黃桂乘

圖佳線寧安城內 旅館
主任 金泰山 電話三一二番

新義州
金基鴻

新義州府本町四番地
國境商事社
代表者 金義明

新義州府內
公立學校長一同

新義州私立日新學校

平安北道
高等官食堂

新義州府眞砂町
內科 小兒科 濟衆醫院
院長 李熙遇
電話三三三番

新義州府眞砂町
姜海龍醫院

新義州府榮町
秦外科病院

布木商
玉商會

新義州府梅枝町二ノ一
東一貿易社

新義州府若竹町九番地
綢緞布木 信商會
主 金器鍊

新義州府榮町五ノ四
株式會社 光城農場

新義州府鴨川町一番地
新義州製材合同株式會社

平安北道各金融組合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平安北道支部

老松町四番地
義山材木店
金基德

新義州府彌勒洞
龍灣精米所

新義州府初音町
金海材木店
金鳳梧
電話一一〇三番

新義州府榮町五丁目一
米穀商 藤原商店出張所

新義州府若竹町六
安全自動車工場
成正甲
電話四二番

義州府彌勒洞九九
興商會
金承默

新義州府眞砂町六丁目七ノ二
朝鮮高粱酒株式會社
電話長一九〇三番
振替京城一三五〇五番
京城府阿峴町一三三ノ四
朝鮮高粱酒株式會社京城出張所
電話光化門(3)七一五番
振替京城一三五〇五番

新義州府眞砂町六丁目
東亞藥局
藥劑師 李根瀗
電話一〇〇九番

新義州圓大組合

李熙廸

新義州金昌産業社
金洙一

新義州府榮町六丁目五
平安北道土木建築協會
會員一同

新義州府
新興德商店

新明號
高粱酒釀造場

新義州府眞砂町七丁目
貿易商 信一商會
奉天市大和區十間町
貿易商 信一洋行
新義州府眞砂町七丁目
雜貨卸商 太陽商會

新義州共榮會
利和時計店 白志燁
二隆商店 白世彥
新光百貨店 趙仁國
白商會 白基東
大昌洋品店 白學燁
三共百貨店 高一清
牧一商會 宋根命
高麗洋行 車均輪
泰信洋品店 安泰浩
大東書林 崔瑛祺
文元堂 洪龍德

新義州府彌勒洞
張觀斗

白基肇

多田榮吉

義州郡光城面
姜利璜

新義州商工會議所
會頭 加藤鐵治郎

新義州府老松町
朴榮徽

新義州
土曜會

新義州
全基欽

新義州
鄭元燮

新義州府老松町
李漢俊

新義州府老松町五
崔允鼎

新義州府彌勒洞一五六
宋啓夏

新義州府榮町七丁目二十一番地
趙尙鈺
電話一〇〇番

新義州商工會議所議員
(卜)國境通運社
李載奎
新義州府本町
電話六一八番

龍川郡外下面
李天柱

新義州
飛部佳松

全國鉉

新延サービス工場

株式會社 新延鐵工所

新義州府彌勒洞一四九番地
製材 履物 義信製材所
電話一一三一番
電略キシン

京義線南新義州驛前
株式會社 商工鐵工所
取締役社長 李東洙

綿絲布綢緞物卸商
東亞織物商會
新義州府老松町一七
電話五二三番

新義州眞砂町
東福洋行

新義州眞砂町
永順祥

木材商 三榮商會
主 金亨洙
營業所(新義州府老松町九ノ二 電話長五八二番)
製材工場(新義州府敏浦洞 電話長五三七番)
發電略(ミエ)又ハ(ミエイ)

雜木ベニヤ板製作
合資會社 豐林商會
新義州府櫻町
電話三六九番

信成材木店
田泳霖
營業所(新義州府綠町二ノ七番地 電話六七七番)
製材工場(新義州府敏浦洞 電話六〇七番)

高級綢緞人絹毛織絹布商
ツヨナール(織物保温剤)特約店
野村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崔商會
本店所在地 新義州府老松町六ノ六 電話四一六番
支店所在地 新義州府眞井町四一ノ一 電話(取次)九三二番

カフェー赤玉

新義州府
朝鮮券番

新義州
上田稔

新義州府眞砂町
神保信吉

新義州府會議員
桂淳

新義州府彌勒洞
金益鎭

新義州府眞砂町七丁目
黃明坤

新義州府老松町
李明和

新義州府老松町四番地
桂明壽

高秉哲

新義州府眞砂町三丁目四
蔡廷弼

新義州府彌勒洞
高有日

表谷佐平

新義州彌勒洞郵便所長
高有崙

新義州府眞砂町
白基東

安用善

新義州府若竹町
劉正煥

龍川郡內中面道峰洞
李世泓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一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西鮮支社
支社長 崔孔峻

新義州府梅枝町二〇
金卿疇

新義州府初音町
鄭宗成

新義州府彌勒洞
金承鎭

新義州府南町
朴龍洙

新義州府麵屋消費組合
張龍熙

新義州府彌勒洞一五三番地
直手號
白敬普

新義州府眞砂町三ノ四ノ三
鄭載曜

新義州府彌勒洞
丸五機械商會本店
宋駿洙

新義州府老松町四番地
朴天一

新義州府麵屋營業組合
組合長 韓奎燦

新義州府

平安北道立
新義州醫院

新義州稅務署

新義州府眞砂町三丁目
益隆商會
電話七二〇番

新義州酒造組合

新義州府老松町
新光布木商

新義州府榮町
平北産業株式會社

國華堂支店
原口清

新義州府
洋品雜貨 順興商店
電話一六二番

新義州府彌勒洞新岩堂醫院
黃昌善

新義州府若竹町六
李東治

新義州府彌勒洞
光城精米所
電話九六四番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
三和堂藥局
電話三八番
振替京城一二七二三番

新義州府彌勒洞
精米業 龍成號
電話八〇一番
電略〇ナリ又ハ(ナリ)

新義州府榮町五丁目三ノ四
鮮滿交通株式會社

新義州朝鮮人旅人宿組合

新義州府梅枝町
韓永麵店

義州郡
光城面事務所

義州郡威化面中之島
碧潼商會

新義州府老松町
二隆商店

新義州府老松町
金滿商行
金相謙

義州郡
威化面事務所

新義州府眞砂町
自轉車商 英輪社

新義州府本町四番地
新義州石炭商組合

平壤地方專賣局
新義州出張所

新義州府榮町四丁目
新興商會

新義州府
多獅島鐵道株式會社

新義州府彌勒洞一二七ノ九番地
共林製材所
電話八二二番

新義州府彌勒洞
南滿公司

新義州府眞町一ノ四
義昌材木店
電話一三〇番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三
光城煉瓦工場
電話三七四番 九五一番

新義州府眞砂町五丁目一
青山病院

新義州府本町二ノ五番地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新義州支店

新義州府綠町二ノ三番地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新義州支部
支部長 金應元
電話九二八番

新義州府彌勒洞一四〇番地
三星精米所
電話一〇一四番

新義州府老松町
文化堂
電話七一三番
振替京城二七五五番

新義州府彌勒洞
新義州第一産業組合

新義州府初音町
新義州第二産業組合

新義州府常盤町九丁目
新義州金融組合

新義州府眞砂町五丁目一ノ一四
和義金融組合

新義州府義州通路
綢緞布木 雜貨貿易
大隆商會
電話五九四番

野田式農機販賣店
新義州府梅枝町三三番地
動力農機機械工具
野田商會
主任 野田重雄
支店 安東市

新義州府彌勒洞八六
西北精米所

初音町七
龍山古物商

新義州府錦町一〇
朝鮮石油販賣(株)運送部
金星商會
店主 具益均

古城

木材運送
北川商店
李應在
端豐線古城驛前

各種木材製材 丸太及電柱
元興商會
崔在汝
端豐線古城驛前

諸般木材海陸運輸
李衡默 古城出張所
端川運輸合資會社
本店 端川邑本町
電話一二七番
振替京城二五五〇四番
端豐線古城驛前

有名賣藥 各種漢藥
杏堂藥房
崔丙翰
端豐線古城驛前

高級既成服 和洋雜貨
金秉珥商店
端豐線古城驛前

綢緞布木
富榮商店
端豐線古城驛前

端川郡水下面獨德里
木材商 金鵬淵

端川郡水下面獨德里
木材商 李康伏

朝鮮日報
新年號 其八

◇커트說明 (上)勤勞奉仕作業 (中)朝鮮隊의雄姿 (下)分列式光景
◇寫眞說明 (上)訓練所全景 (中)朝鮮前의感激 (下)父母에게드리는片紙

生活은感謝로차고 一擧一動이報恩誓

육군병 지원자훈련소의 훈련은장래에 육군의병역에복무하기를 지원한조선청년에게 참으로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심신을 단련시켜서 장래에그들이제국의군인으로서훌륭히충절(忠節)을 가질수잇게 하려는것이목적이다 그럼으로 훈련소는 그설비나 교육방법에 군대생활을 만히 따고잇다 그러나군대는 모든것을 전투를 표준으로하고 잇지마는 훈련소는 어디까지든지 규률파실천으로 황국신민의 역사에 다거운 훈이 밝인교육을 시켜서「우리는황국신민이란」는 신념을 명확히가지게한다 다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든기회와 시설을통하여서 국체관념을 밝히고 그들의의지를 단련하여 실행력을 갓게하고 생활의전반을 지도하여 규률파 봉공의습관을 기르며 염보해의를 가르치고 병영생활에적합하도록 일상훈련시킨다。 그럼으로 이훈련소의 하루행사는 공사히 수양도장의 실천행사와갓다 청년의 일시적기분으로나 호기심으로서는 도저히 그훈련에 견될수업슨것은 물론이다 참으로 기뜬한각파 경의로 가진 여러생활파 단체생활은 두번잇기 어려운 유쾌한맛이잇는것이다 하루하루의 생활에참으로 뜻이잇음을 느끼고 자미스러움을 느껴서 여섯달동안의 훈련을 마치는때에는 참으로훌륭한 어나 마음이 황국군인에 전한할 당당한 사람이된다。

훈련소에서 정한과목은 훈육(訓育)및 보통학과(국어 국사 지리 수학 이과)와 술과(術科)(교련 체조 무도)로 나누어잇다 그교수는 지식파 기술을이키기만하는 때단을 극력으로훌리치고 어디까지든지 교수를통하여서 정신을 단련하는데 치중한다 이런교파의 지도가 그들의 장래생활에 곳 소용될수잇는 실제의재료를 택하야서 교수한다 이것은 일반학교에서하는 교수와는 좀 취지가다르다 교파목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본것은 훈육 국사 국어의세파목이다 이것이 직접 그들의 정신교육에 소용되는것은 말할것도 업다 교련에는 그정도와 그밧게가 상당히 놉다 봉사하는 군대와 마찬가지의 관념으로써 보는이도 잇스나 기술의 지엽말절에 기우러지지 안토록 경계하며 한가지 동작에서도 그안에 흐르는정신을 부착하게하도록 힘쓴다。

……

교파목의 교수가 끗나면 한정은 물론이지마는 여기서는 다시아침 청상에서 일어날때부터 저녁에 사람들을 끄기까지 하루동안 훈련소안의 생활도 만흔교파를 기대한다 여기거하는사이에 그들의 생활태도를 지도하고 의지를단련하여 … 에 가장엄숙한행사이다 어세(伊勢)의 황대신궁(皇大神宮)을 요배하며 「황국신민서사」를제창하고 「바다로가면」하는노래를 합창한다 밤에는 영중이 강당에모여서 정좌(靜座)를하고 성찰(省察)을 생각하며 묵상한다 효혼 청상에 들어가기전에 일동이 고향쪽으로 향하여 부모의 평안을빌며 하루 동안의 훈련소생활을 감사한다 아침저녁 밥을먹을때에는 반상 감사하다는인사를 하게하고 활잇어먹는 습관을 기르며 … (日常)파 사사로운일을 정리정돈하며 손질하는 상황을 검사하여서 물건에대한 존중애호의 정신을 기른다 근로봉사를 하게하여 정원이 … 을 양성하기위하여 도랑에 들어가고 나올때나 마루로 걸어가고 … 생도서로끼리는 물론이요 통신도모두 국어로써하게하며 회화할때에 경의가 잇거나 그릇된것은 곳그당장에서 지도하여 고치게한다 공부휴식하는여가에 여름어가는것파 저녁밥먹은뒤 한동안파 휴일 고향에서 온 통신을 받는때는 유쾌하기 비할데업는 모양이다 도기…군가연습등 오락회 좌담회 회합에는 모두기뻐하며 명랑한 기분이떠도는것을 보게되는데 이것은 규률생활을하는사람만이 맛볼수잇는기쁨이라하겟다。

……

훈련소에돌어오는즉시로 대변검사를하고 여러가지 예방주사를하며 기생충을 업새게한다 월말에는 반드시 체중을 달아보고 무게가 더하고 덜한것을 비교한다 밥먹은뒤에는 크레오소트를 희울먹여서 위장병을 예방한다 나체체조와 마찰을하게하며 일광욕 시켜서 건강이 더조트록하게한다。

……

매월일일에는 반드시 조선신궁에참배한다 수료하기 전에는 내지에 여행하여 직접 황대신궁에 참배하게한다 경성부내의 여러가지 문화시설을 가음 구경시켜서 견문을 넓히며 수차행군을하게하여 체력을 단련시키기도한다。

志願兵制度의今後發展
徵兵程度로飛躍
地域과階級을超하여每町每洞에서뽑도록
精動聯盟이認識徹底에邁進

조선인이 황국신민으로서 가장최대의무를 발휘하다고 할수잇는 조선의지원병제도는 실로총독부의 획기적사업인데 총독부에서는 십오년도부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조선에잇서서는 적더라도징병제비슷하게 균형적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하기로되엇다 이와가치 대확충을 단행하는 내용은 물론 인원을 대증원하는동시에 응모(應募)상 대방면을 총라(總羅)주의로 하여 빈부귀천 상하를 물론하고 지원병에 몰어오도록하여가지고 참다운 제국신민으로서황군의 자격을갓도록 하려는것이다。

이에대하여 십이월하순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주재 전도의지(川島義之)대장은 어문제가 정신련맹으로서 가장 그사명이중하고 도큼을깨닷고 다음과가튼 통첩을 각도지사에게 발송한사실이잇다。

이번 사변을계기로 반도민중의애국지성은 왕성하음게도 천황폐하께옵서 도차유시고 명예노픈 제국군인되여므를 주옵서다 작년사월육군 특별지원병(陸軍特別志願兵)제도의실시를 보게되고 지원자 후원소가 계설되게된것은 실로기쁜에 다지는바이다 다시전조선으로부터 선발되어 가지고입소(入所)된지원자의 성적은 극히양호하여 그일부는 이미제일선에서 역전 분투하야 전국의중망에응하고자 현역무공을 세우고잇는것은 실로국가를위하여 경하하여마지안는바이다 근래당국에서는 그실적에 비추어 내년도부터는 현총당수한 지원자채용의 게획도잇는듯이들리는데 어경은 조선장래에크나큰파명을 줄것으로기대되어 거괴감격하는동시에우리조선민중으로서 그취지의완전한달성을기하도록 지력할필요가잇는것은 물론 당연한일이다。 그래서 우리연맹에서는 이제도의사명 달성에대하여전력을기우려서 협력하기를 바라는바이다 그런데 종래의응모자 중항을보면 지방적으로 편재한느낌이잇고 도회동학교이상의졸업자와 중류이상의 가정자제가 비교적소수인것은 어제도 애한 일이아직 보급되지 못햇다고 생각되어서 실로유감만어다 어와가튼 실정에 비추어 어떤맹은 문맹하여건 조선반도구석까지 어취지의보급철저를 도모하는동시에 종래보다 수배나되는 응모자를 환영하는바이다 이제 어에대하여 그취고될만한것으로 각도지사에게 보낸통첩의 내용은 또한 다음과갓다。

一、志願兵制度趣旨의普及徹底를圖하기爲하여

가、各愛國班又는 最下級聯盟에서 本件에關한 座談會를 엄마든지 開催할것

나、更히上級聯盟의 主催로서 講演會를開催할것

다、家族中 特히 主婦及老人의 認識을기과할것

라、專門學校生徒 兒童 特히中等學校以上의 生徒의 認識을 기피할것

마、社會的相當地位에잇는家庭의子弟로서 率先應募 시켜서 一般에게 模範을보일것

바、一般靑年의 憧憬心을涵養할것

사、포스터印刷物等을 配布할것

二、志願兵應募者의增加를圖하여

가、全朝鮮에 亘하여 町洞里 部落聯盟으로부터 最小限度 一人以上의 志願者를應募하도록 相勸할것

나、府、邑、面聯盟理事長은 町洞里部落聯盟理事長으로 하여금 其連絡을 保持할것

다、府、邑、面聯盟理事長은 警察官及 在鄕軍人會、靑年團婦人會와連絡하여 適應의 應募를勸誘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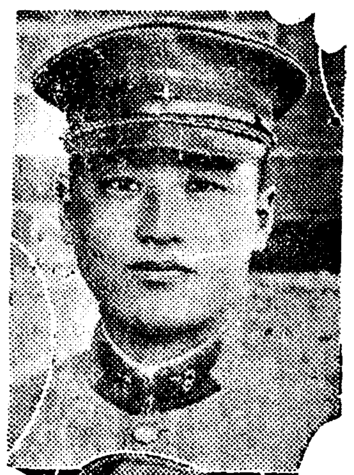
라、上級聯盟主催로서 下級聯盟理事長又는 本件에 盡力하는中인 役員의 打合會를開催하며 相互連絡을 激勵할것

마、應募者의 家庭에對한 社會的敬意及其保護에關하여는各地志願兵 後援會其他 團體와協力하여 其徹底를期할것

대개이상파가튼 내용의통첩을 발하여 신년도부터는 지원병을 질적양적으로 대확충하는동시에 조선련맹으로서는 어에대하여적극적협력하기로된것이다。

勇躍出征篇

第一線에서운武勳
李仁錫、李享洙兩君의忠魂과戰傷諸君들의
銃後에보낸感激의奮戰美譚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서 육개월동안 정신단련의 훈련을 바든뒤에는 조선안 각부대에 당당한군인으로서비로소영문에들어가게된다 맹렬한군대 훈련을 밧고서 이미 작변부터 북지산서전선에 출정하여 그동안 그들의 벗난 무훈을 내어 조선에 잇는 총후동포에게 만흔 감격을 일으키고잇다 포연탄우속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충북출신 옥천(沃川)이인석(李仁錫)일등병은 작년칠월에 최초로명예스러운전사를 하엿다 이장렬한소식을듯고 총후민중의 치하와 감격은오늘까지도그칠줄을모르고잇는것이 이인석군은전지에 뛰어드러가다가 적군의수류탄조각에 배를상하여죽은것인데 그는숨을거두는 순간에도좀더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지못하고 죽는것이 원통하다고말하고전우들에게 부디 지나군에게 지지말고 이겨서 동양평화를확립하기를 바란다고 굳센한마디말을남기고 눈을 감엇다한다。

이린석군이 전사한뒤에 전남순천(順天)출신 이향수(李享洙)상등병은 작년팔월에 제일선에서 용감히 전투하다가 상처를입은것이 마침내 낫지 안허서 전상사를 하엿다 어와가치 지원병들이 전장에서 명예스러운죽음을 이루게되자 제일선부대의용기는 한층 더나게 되엇다 전우의 원한을 자기들이 반드시 갑고리라는 굳은결심을하게된것이다 그뒤로 전상자도 더러 낫다 그들가운데는 이미신문에 여러번 보도된바와 가치여러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만타 상처를 그냥참고서 소속부대를 따라가면서 그냥 치료를한일도잇고 두번째나 상처를바더서도 그냥 뒤로도라오기를실허하고 부대에 남아잇서서 치료하여 꿋꿋내 행동을 가치한 용사도 잇섯스며 상처가낫자마자 병상에서 뛰어일어나서 다시 전선에 나가서 훌륭한 공적을 내엿도 잇다 중상을입고 후방으로 도라온 용사가운데는 병상에 누어 알코잇스면서도 자기가 전선에서 물러나오게된것을 작구 원통히 여기고잇는 용사도 잇다 저 평륙작전(平陸作戰)에서나 로안(潞安)작전에서나 우리조선지원병의분투한 성적은 황군일동에게나 총후의 조선민중에게 만흔감격을 일으켯다 또는황군일동에게 모범될이 만허다 지원병훈련소교관일동이나 … 또한 조선의 청년정전무국장은 더욱이 기뻐하고잇는 들은 모두들 주먹을불끈쥐고 이용감한 지원병들의 활동상을 칭찬하며 항상 어야기거리로삼고잇는것이다。

回顧의一年
精動理事 鄭僑源

昭和十四年은 우리精神總動員聯盟에서도 相當히多事多難한해이엇다 卽聯盟은 聯盟自體의組織機能의擴充을 圖謀함과共히其本來의使命인 國民精神의 發揚에向하여 活動行進을開始한것이다 聯盟이생긴것은 昭和十三年七月이나 全鮮에亘하여 七萬의部落聯盟과 三十五萬의 愛國班을擁護한 大家族을 整備함에若干의時日을要하는것은 果然不得已한事實이다 特히中南朝鮮地方의大旱害는 精神運動上에도 其影響되는바 至大한데 聯盟은自發的으로 其克服及善後措置에進出하여 耕耘期의 早害對策以外에도米의節約、混食의獎勵、獻穀의勵止、副業用藥의貯藏及 罹災民에對한義捐金募集等에까지 進出協力한것이다 又其他 戰時經濟의協力으로서 貯蓄의獎勵、金의政府集中、石炭、電力及瓦斯의消費節約、廢品回收等에도 參加努力하여왓는데 此等運動은모두國民精神의 發揚으로서 現下時局에잇서서 銃後의努力을 第一義로하는見地에 處하야 暫時라도放心할수 업는것이다 모든 愛國的行事에는 聯盟은自進하여 企畫하며 또는 參畫하는中이나 事業이 精神的이며且 無形的인만치 보는境遇에따라서는 其影域이 判然치못하고事績도 顯著하지 못할는지도모르나 그顯著하지 못한곳을 不斷히 押進하여 國民의腦裏를剛毅할만한 確乎不動의 어떠한本據를 植付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過去一年間의 其植付된收穫이 果然 얼마나되는가 이제正確한數字를 具體的으로 말하기어려우나 新年부터는 一層活潑하馬力을 加할터이므로 國民各位의 眼前에 明瞭히 發現될것은 無違의事實일것이다

(사진은 정교원씨)

穀物特産 貿易合名會社 鐵嶺公司
本工場 電話長五八一番
第二工場 電話長六〇一番
第三工場 電話長四六二番
第四工場 電話長六一五番
第五工場 電話長五五二番

鐵嶺

崔君楫 電話七四五番

絹織布木 日用百貨 革新商會 主 金炳龍 電話長七三〇番

賀正

鐵嶺金融會 會長 李用錫 理事 金谷文夫

平安商會 李榮球 電話五五三番

百貨店 東洋商會 主 鄭寬堯 電話六四七番

鐵嶺市北大街 鮮滿公司 主 張濟鎬

支那料理 玉海樓 電話七一六番

鐵嶺市 朝鮮料理 光成屋 主 金晶徠

朝鮮料理 月星舘 主 李東臣

新鮮料理 海東樓 主 金永岳 電話四九三番

北五條通六 農業 韓用琳

鐵嶺市廣裕大街 米穀販賣 鐵嶺商會 電話五一五番

廣裕大街 各種賣藥 德一大藥房 主 宋之洛

中島利藏

代書行政 黃輔相事務所

廣裕大街 朝鮮麵店 主 金炳汶

李順嬉

李順明

金仲三 朝日町二丁目一ノ三

鐵嶺市 第一冷麵店 主 李用昇

鐵嶺廣裕大街 支那料理 便宜坊 電話八〇九番

鐵嶺市廣裕大街二ノ三 回春醫院 院長 朴圭玉 電話四一四番

鐵嶺市廣裕大街一ノ三 中興飯館 主 金寧祚

平原旅館 主 鄭聖烈

三益精米所 電話六一〇番

金永錫

賣藥行商 邊德明

廣裕大街三番地七 海産物 雜貨 大興商店 主 李時雨

白米 精米 打直シ 大一商會 主 李昌弘 電話八〇九番

新溪

新溪邑內 新溪和信連鎖店 池永斗 韓昌禧

本店新溪邑內 穀物貿易 肥料官鹽 一般貨物 自動車業 合資會社 新溪貿易社 支店 南川驛前 出張所 新南川新幕谷山

新溪中央公立尋常小學校

新溪面長 趙重卨

新溪郡沙芝面 職員一同

新溪郡多美面 職員一同

新溪郡古面 職員一同

新溪郡赤余面 職員一同

新溪郡麻西面 職員一同

新溪郡多栗面 職員一同

新溪邑內 黃海自動車運輸株式會社 主任 金德奎

新溪邑內 新昌旅舘 主 韓昌禧

新溪邑內 信盛精米所 鄭龍燮 吳壹善

新溪郡多美面芙蓉里 小林石綿 芙蓉鑛業所

新溪郡多美面歌舞里 半島石綿鑛山

新溪邑內 各種蓄音機ラヂオレコード販賣 新溪樂器店

新溪邑內 和洋雜貨 絹ゴム靴 共信商店 康斗仁

新溪郡古面丁峰市 絹織布木 綿ゴム靴 裕興商店 朴祥奎

新溪郡古面丁峰市 自家用貨物自動車經營 穀物貿易 日用雜貨 大成商會

新溪郡古面丁峰市 食料雜貨 廣盛商會 李昌祿

新溪郡沙芝面南營市 古物商 鄭子龍

新溪金融組合

新溪學校組合 管理者 門田辰治

新溪郡麻所長 諸越賴興 外職員一同

新溪邑內 善興精米所 主 金亨善

新溪郡沙芝面南營市 天一釀造場 主 金致彦

新溪郡古新恩市 新恩釀造場 李基福

新溪邑內 李燦英

新溪邑內 洋品百貨 圖書雜誌 文化堂

中島自動車特約販賣 天下一 新溪農機商會 吳壹善

新溪邑內 東濟藥房

新溪郡麻西面銀店里 張富興

新溪郡古面丁峰市 飲食店 木工所 韓炳斗

新溪郡沙芝面石橋里 朴祀卨

新溪郡沙芝面南營市 鄭宗海

新溪郡沙芝面南營市 張完範

新溪邑內 東濟醫院 院長 金善奎

新溪郡古新恩市 韓光錫

新溪郡麻西面草川里 朴義卨

新溪邑內 新興機械商會

新溪邑內 韓錦善商店

新溪邑內 崔永鎭

新溪邑內 鶴巢旅館

新溪邑內 齒科病院

原州

原州郡農會

江原道原州邑本町 履物專門都·散賣 原州ゴム商會 辛德善

江原道原州邑上洞里 京城吉田醬油商會 原州出張所 李命煥

發動機及 農工機械 殖産商會 鄭富吉

災地의우리는이러케싸운다

七道旱害現地報告【其二】

旱害民들과하루밤, 寢食을가치하고

酒幕에도"自肅精神" 積年弊風을矯正

救濟事業謳歌하는村有力者

本社特派員 吳在東

災地夜話

기자는 지난이십일 재민의살림사리를엿보고저 경북의 한해지중에 가장우심하다는 달성군 월배면(達城郡月背面)을차젓다 먼저김면장(金面長)을 만나 면내의형편을대강듯고 그의인도로 면면한해대책공사장을 구경하엿는데 모두가 수로개간 착정수보(鑿井修洑)등의 게에대한 일들로써 만일일찌기 이런시설이 잇섯든들 금년가튼 한해쯤은 큰해가업섯스리라고한다 진천동(辰泉洞)아페서 면장과작별하고 기자혼자 그면내에서도 가장 궁민의상태가 심하다는 동리를 차저갓다.

한오십호가량되는 농촌이 물론전부초가이지만 하지도 집웅을새로이은집이 업다 떠러진곡식이 업서서그런지 참새도별로보이지안코 이때되면 동리압들에갈가마귀떼가 석하날터인데 그겻조차 보이지안는다 아마그들도재해를당하여 류랑의길을떠낫나보다하고 혼자적막한 우슴을우섯다.

그동리 중동리(中洞里)이라는시(串)모씨의집을 차젓다 그집사람도한편으로 기우러젓스나 별로 손을 대지아니한 모양이고대로엇든 퇴창문에는 헌신문지를한보를붓나 겨우바람이나막아두엇스며 문앞바람벽우에는 헌집신짝(결코모양잇는 고운것은 아니다)이 주렁주렁 꿰어매달렷는데 그중에 어떤신바닥에는 자전차「다이야」쪼각을 부처노흔것이잇스니 이것이야말로 현대문명이 집신바닥미테서 궁우숨을치는셈이라하겟다.

남자는 모두가 구제공사일터에 나가고 사십여세되어보이는 신씨의부인이바(杵)씨가잇서이치운겨울에맨발로벗어일을 하다가나와서기자를 맛는다 그의 이야기를들으면 남편과 두아들 합세사람이매일 일터에나가서이지음에는 버-러오지만은 원래금년여름에 빗진것도잇고 또장차제한된공사이니 아프로 얼마마니할수업슬것을 생각하여 극도로절약을 주리는터인데매일주식으로는 피(稗)죽을쑤어먹고 두끼식먹는터인데 「오아친에는 우리큰애생일이돼문에 오랫만에 밥을하여먹엇구매」하고기자의

눈아페 보이는생일축하「밥」은 쌀밥물론 구경할수도업고조와보리쌀등분해서섯근잡곡은그것이엇섯다.

「하로 저무도록 일하고 돌라와서 멀-건숙 한목음식을마시고 거리에 씨러저 드러눕어 잠을자는 거룩보든똑 애가터저 죽을누매」

아닌게아니라 주부된 그의주정에 오죽하랴 다시발을옴겨 이마을의 유일한 화락장인 술집을차젓다 예날가튼면 가을추수도 다해노핫것다 도야지마리도잡고 겨울이라해도 그리춥지안은날세니 마당복판에다 웃방석을펴고 종재이옷을 던지는 「사리웃」 소리가 더러 들려올터이언만 물론 시국관계도 잇기야하지만은 오십여호 사는동리에 하로하되의 막걸리가 각금나올때가잇다니 자숙도 이지경이라면유흥에는 더할나위가 업슬것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경남농촌에는이술집이라는 존재가

큰페풍 희존재도되거니와일면으로는 부락의 사교장이며 공론소 주도회처인 동시에오락장이다 이지음 도회지의 요리집이 매일밤은 성율극하는 예비하여 이곳이 비록재지라고 제처노코 보더래도 가난한농촌의구차한풍을여기에서도 엿볼수잇섯다.

——×××——

다시 이곳을떠나장군과 길동무하여 고령군(高靈郡) 다산면(茶山面)으로 향하엿다.

마치예달 대구 사문(沙門)나루터인 화원(花園)유원지에 다다르니근처 주막집에서 사람들이어떠어인이 유원지 빼처우에다생후오개월가량되는 개집아히를갓다버리고갓다고 야단이낫다.

사문나루를건너 김모래사장을거러 약시오리가량되는 다산(茶山)에 다다르니 벌써어둠살이가끼이고 기울기시작한 치운담이동산을너머 비최인다 동리에를어섯때에 별로불비촐 볼수가업서서 동행인에게무르니 요지음엔 석유도귀하고 빗싸서 저녁에 불을켜는집이 그리만치못하다한다

——×××——

동행한 장문이씨(李氏)에게왕길동무가된다음에는 오늘밤저당한숙소를 정해주기를 청하엿다 물론 여관이나 주막집을가르친이아니요 될수잇스면 하루밤이라도 이재민들과 한께자고그들의먹는것을 가치먹고 그들의실생활을 좀더체험해보고 시퍼떠것이다 그는다소의아하엿스나기자의부탁이 진정인것을알고동리에서 제일사람들이만히모혀잔다는 모씨의 초당(草堂)으로인도하여 소개해주엇다 방인면은물론 신분지한조각 바른지아니한 흙그대로이고 삭자리도군데군데 가마니쪼각으로 때운집을햇다 바람구석에까-맛케 끄으름이안즌 등잔불이 깜어어까마자 코구멍이따악하지경인데 천정에다 메주를다라 메주는내음새에 더욱골치가아프다 그러나 이집은그래도 메주라도 끄릴 여유가잇는것을보아 그리저말궁민은 아닌것을알엇다.

주인은 대단히서투르든시 인사를 하고는 저녁을 어찌햇느냐고 뭇기에 처음에는 사양할생각을 하다가 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인가하고 아직못먹엇다고 햇더니 『웅서 신통한어서-』하면서

망서리 는것을 대에서찾고 남은것이거던 무엇이든지조흐니조금만 요기식혀달라고 애원햇다 이윽고네다리소반에 죽한그릇이 나와는데 이야말로 김삿갓(金笠)의

四脚松盤一粥器
天光雲影共徘徊

이도무엇을 너헛는지 약간 씹헙것이잇는데 상긋한내음새가나기에 더더구나무러보니 금년조를보리와즉잡혀먹은비-빼수어끄편것이못한데 이동리에서 그래도첫째나둘째가는 집에서 이러하다면 다른집은 불문가지일것이다 이윽고 「사랑이왓나」『인천이왓나』(사랑과인천은 칭호는 명호(名號)하면서 지견문을 열치려 잡아다니다가 한구석에 기자가쪼구리고 안진것을보고 그들은모두 뒤로주춤주춤하다가 조심조심들어온다 이럿때마다 나는자리를 고처안저그들을 마지할정을 표하기를이저버리지아니하엿다 차차모이사람이 그대저럼 그리넓지못한초당에 여섯사람 주인과기자까지도합여덟사람 꿉비대에서 나오는 뺑나무의새연기 등잔에서나온는그읏름으로 외방안에연기가 자욱해젓다 그동안 물론들어오는차레로 둥서명이마첫다.

기자의 위문하는 의미의 말을할때마다 그들은 하늘이설마사람을 죽이기야하겟소하고 대답한 안색들을보이는것이다 기자는 하루밤사이라도 친목을도모하기 겸하여 일금일원의

연회비 를 지출하여 탁주서되와 북어(明太)여마리를 사오게하엿다.

이동리에는 마침 양조장이가까운데에잇서 한계번에 서되란는대팟을 사올수잇섯다 그들오락이라는 진지이 주연을베푸를에대하여 처음에는 극히안심찬은기색을 보엿스나 그네들만파가치 오래간만에 맛보는술기운이라그런지 서너잔만에 모다취기가 돌기시작하자 그순후하고질박한눈치의 숭숭자들은 새삼스러 삼국지(三國志)에 화룡도(華容道)라면 나오듯 서로 「내서툴은ㄹ면보소」하고나온다.

——×××——

좌중에서 가장나이가만흔 바(朴)영감… 그는 이십여년동남의머슴노릇을 하여 겨우논서너마지기를 사고 식구네사람이소작여석마지기를 지어 지내는터인데 금년엔 대용작물로 단지메물 한섬가웃하고 좁쌀다섯말박게 되지못하엿다가 처남의보증을섯더니 숭숭답 세말가웃지이가 자압을 당하여 수입전경매처분을 당하여버리여서 「명년에는 동녕이든대도 일할밧이내는에 농사는 다지어먹엇소」하고손까락 마디마디가 방충이가튼두주먹을 움켜쥐며 말하는 구의얼굴에는 막걸리의 주기와함께 그러틀어얼굴에 자못상기되여오른다.

「영감이야 보통이라도 서울꺼리가잇스니 다행인줄아시요 금번

여름에 그렁케것까지 가믈어부칠줄아랏스면 동냥이나안맛지요 조금만더하고 밤낫으로업는물을 퍼보앗스나 나종에는 샘에서도물이나오지안엇니까 어쩝니까 허-참기가막혀서」하고 소(蘇)서방이 운는데두리를 더하려고든자

주인이말을 막으며 「만약 예년시절가트면 이만큼한 흉년이 드럿대도 벌써 다늙어죽엇슬것이요 면장이나면치니마을놈들 이번에야 진실로례닭잇소 우리야 무엇을 압겟소만은 거저시키는대로 순종하면넉넉히 사라나갈길이고 압들에도 새로 보를내느니 건너방천을 새로수축하느니 일을 더펴누어 거의다 우리일을 하면서매일 일원내외의 품삯을 주고또 보리와 좁쌀이라도 여기서소출업는것을 일부러 갓다주니이런 고마운데가 어디잇소 한사람씩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늘도 원망스럽고 걱거냄일도따하지만은 대동지한을 격는판이니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려야지요」

말끗마다 기자를 힘붓쳐키쳐다보는데 그순진한 어셍에는한동리를 지도해가는 인격의 저력(底力)이잇섯다 여기에기자도세기대세와 밋비상 시국에 처한우리

국민의 취하여야할 태도 그리고 한해극복의근본적방책과 의의등에 대하여약간의 의견을들어 해첫다 그다음엔소비는 다들어떠케 되엇느냐고 무르니

「명년비야잇겟소 여편네 고무신한커레에는 이원이들대도어더볼수업스니 그런것은 애여단념해지만 딸년의 인조견당기감음이나 한별씩이면 그만이죠 그러나 조상의제사는모서야할터인데 금년에 청어가아죽 그림자조차 볼수업스니큰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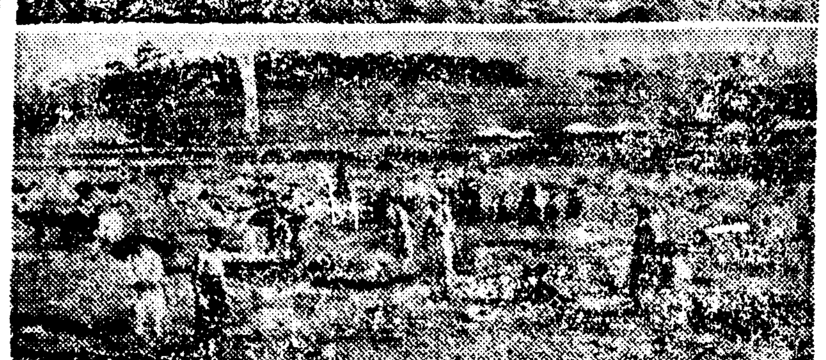
「대략 제사비용은 얼마씌이나잡습니까」

「각각다 다르겟조만은 금년에는제미(祭米)에도 입쌀은다씨고먹는대로 잘될터이니까 한이삼원이최고이리다 제사란원래정성이 제일이닛가요」

그러타 이조이래허례에만저젓던이백성들도 인제야 완전히눈을떠구나하고 생각하면 일면깃거운일이다

——×××——

이러자 그들도 내일다시일터에나가기 위하여잘시간이 느저감을 기자는미안스럽게 생각하고그만자기를 청하엿다.



寫眞說明 사진은 전남도내의 한해공사 상으로부터 화순군동면(和順郡東面) 국도개수, 중은 나주(羅州)군하의 노동공사, 하는 함평 해보면(咸平海保面)금덕(錦德)수리조합의 한해공사

穀倉全南의强點

災民은바뿌게지낸다

各地의救濟工事相當히進捗

本社特派員 崔仁植

=下=

도당국에서 이구제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기는 재지농민이 대용작으로 식량을의지하여 오다가 그식량이 떠러질때부터가 문제이므로 시기를잡어보아서 노동임금을 산포할밧침하에 이미공사를 착수한곳도잇스나 전체적으로는 공사시기에도 각별 세심한 주의를하고잇다 이재민의부업장려는 죽세공(竹細工)송지채취(松脂採取)가마니제조등 기타 여러가지를장려하고 토지개량은 한해의

항구대책(恒久對策)으로 소규모의 저수지를만드는것이요 토목공사는 각군에분산적으로 도로수선을하여 각자의통행을 편케할것으로 이재민들도 자진하여 분투하고잇는광경이다.

——××××——

한해지에잇서서 이재민들을 단순히 국한된 노동임금으로만구제한다는것은 한해대책의 만전을 다한것으로 볼수업는것이므로 예년에잇서서 어느곳보다도 소작쟁의가 제일만흔 전남에서는대중소지주들을 각각 소집하여이난국을 돌파할협력으로써 지주와 소작인이 일치협조할것을요망한바가 누차 잇섯고 재해지소작료 사정에 잇서서 당국에서 지시한바가 철저하여 전년도 십월말까지의 소작쟁의건수는 이천이백구십의건에 비하여 오백칠십이건이 감소된것을보드라도 지주소작인의 협력이상당히 효과를나타내고잇는 현상을 엿볼수잇다.

그리고 종래에는 논에다보리가는것(이모작)을 소작인의전수확으로한다하여 지주측에서 이모작(二毛作)을 금지하여왓섯스나 금번에는 도당국의알선으로논보리를 만히갈게되어 이모작만 그런적이 예년의두배정도이든것을 이상만정보로 확장하여이재민

식량확보 에주력하여섯슨데지금가라서는 맥작의발육이 양호하여이재민들에게 더할수업는기쁨을전하여주고잇다.

救濟工事場踏査

한해지를 일일히 차저볼수가업는관계로 전남의곡고(穀庫)라고불르는

나주평야 에속한나주군 삼도면(羅州郡三道面)과 작변의 대한재에도 한재의 피해가 만흔 함평군해보면(咸平郡海保面)이두곳을 찻기로하엿다.

——××××——

나주군삼도면(羅州郡三道面)은영산강(榮山江)유역에 속한 장성(長城)으로부터 내려오는 황룡강(黃龍江)유역으로 례년에는그다지 한해를 보지안는곳이 이번에 심한 한해의피해를 보게되엇든곳이다 더욱흥미잇서서 위선 면장을차자 인사를하고보니 송정순(宋貞淳)씨란 오십남짓이되는분이다.

닥자곳자로 동면한해상황을무르니 상당면적에 항상보고하고잇던 통게가튼것을 불러주는데 대략다음과갓다

全南

▲旱害被害戶數 八四八戶
▲旱害被害面積 五一七町步
▲救助戶數 六二三戶

그리고 한해에대해서 어떠한대책을 취하고잇는가하고물으니국민정신총동원 연맹과 각부락애국반이 지도기관이되어 대용작장려며라거나지주소작인간이라거나 맥작의장려라거나 [illegible] 한재를만난이때 조선에 오십명내지이십오명 만주이민에이동을 할십오명의

노동알선 을하여야한다 한해지에잇서서 무엇보다도 중한것은의량문제인데 이면의상황은 어떠한가 조사한즉 십이월말현재각집에가지고잇는 각종곡식의 수량은 다음과갓다.

▲米 三七九石 ▲籾 六二六石
▲粟 五七六石 ▲麥類 一三六石 ▲甘藷 一五七石 ▲公共倉庫分 玄米四六二石 ▲籾三四〇石
計三一九二石

總人口七、四五五 (昭和年米穀年度)인 八十二月부터五月까지所要食糧四〇九〇石 大人一日平均四合五勺、小人一日平均二合五勺 一人平均、六個月所要食糧五斗四升六合

마침그날이 동면각부락 애국반이사들의 좌담회가 그곳소학교에서 열린다기에 가보앗더니시국에관한것과 한해극복에관한것등긴요한 사항을상세하게 조목을실행하라고하고 잇섯는데 그중에사항중에는 매일조석후 십오일이십일 이십오일등 한달에오일간은반드시 죽을쑤어먹으라는사항에 드러서는 참석하엿든일동은 이상한 표정으로 웃는다 그리유는 나종에 아라보니 그들한재민들은 한달이면 매일파가치죽을쑤어 먹는데 무슨의미로 그와가튼 사항을 좌담회에서 결의하엿는냐 하는 우슴소리엿다한다 그사항에대하여 좌장장은 대답하기를 대다수는물론죽을쑤어먹는줄 잘 알고잇스나간혹개중에는 생활이 여유잇다고 그를실행안할까바 그사항을너은것이라고한다.

——××××——

그곳을떠나 동면내의 한해구제토목공사장을 차자가 보앗는데 삼도면(三道面)으로부터 나주(羅州)읍내에 통하는 삼거리(三巨里)에잇서 도로를 확장하는것이엇는데 당일출역한 노동자수는 약육십명으로 노동자중한사람을붓잡고 이곳사정을 물어보니 그곳삼거리사는 이봉호(李鳳鎬)라는 청년으로 본래 소작답팔두락가량 농사하여양친과 처자동생이

근근생활 하여왓는데 한재로인하여 벼는하나도 이앙을못하고 조와메밀을 심어 그들먹고 지내고잇서 쌀구경은 만일년이 넘는다한다 이노동은 면시부터 몃시간까지하며 노동임금은 얼마나밧느냐고 무르니 오전여섯시가량인가 해가뜨는때부터오후해가질때까지 일하고칠십오전을밧는다한다 그때마침점심시간이되야 그들이먹는밥을 보니륙십명노동자중한사람도쌀을섞근밥이라고는 볼수업고 전부좁쌀파보리 콩등을섞근잡곡밥이엿섯다.

——××××——

이곳을떠나고 함평군 해보면(咸平郡海保面)을 들러서 동면내에한해구제사업으로 공사가진행되고잇는금덕수리조합(錦德水組合)공사장을 들러보니 공사비가사만원에 노동임금으로 지출될예정액이 일만칠천원인데 당일출역한사람수는 약이백여명으로 그중 노동자한사람을 붓들고 정황을 물어보니 그는동면문장리(文場里)사는 노양봉(魯良奉)이라는 삼십이삼세보이는청년인데 농사는 자작농 엿마지기에 소작네마지기를지여 어머니와 처자동생등여섯식구가갈려먹고잇는데 예전가트면 그리곤난업시 농조합으로서는 지내갈수가잇섯는데 못된재로인하야 올해에는 대용작수확한것으로 겨우연명한다고한다.

그 공사장에 일하는사람들은전부가 저고리 아페다 먹으로자기가 살고잇는 동리이름과 자기성명을 써부치고 일하는것을본 기자는 그이유를무른즉 여러동리에서 다수일군이나오면 이재민인지 아닌지를 알기위하야표적으로 부친것이라한다 이곳을떠나 기자는 다시 함평군나산면(咸平郡羅山面)을 들러 동면내의 한해공사를하는 고막천(古幕川)개수공사장을 차저들어가니 공사하는곳이 여러곳으로분산되어잇서 각각부락애국반이동공사를 제일구 제이구로 청부하여 공사를 하고잇섯다.

南市
ヤンマーデーゼルエンヂン
キセキ籾摺機、スピー籾摺機
精米機、七分搗、籾摺機、モーター用發動機、揚水用ポンプ各種
新義州老松町四
動力農具商 龍新機械商會支店
電話四三〇番
電略(リユシン)
本店 京義線南市驛前
電話五二番

南市和信連鎖店 東光商店 電話一六番

石松旅館

朝鮮日報社南市支局

京義線南市驛前 黃元憲

龍川郡外上面西鉢洞 南市金融組合長 李甲曾

賀正

鐵山郡西林面 李命坤

京義線南市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南市代行營業所 電話七番 振替京城一五六〇五番

京義線南市驛前 協同商會 原皮仲買人 金鳳江 電話三九番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滿洲山米 精白米及 委託販賣 新光商會 電話五三番 電略(シンコウ) 取引銀行 朝鮮殖産銀行宜川支店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商 委託 崔用甫商店 電話一八番 電略(サイ)

朝鮮京義線南市驛前 穀産組合 長 電話一九番

京義線南市驛前 內外國蔘 草根唐藥 材製造部 濟生保元局 漢方醫生 任學萬

工業原料 穀物貿易 大陸商會 電話二二番 取引銀行 宜川殖産銀行

産婦人科 內科小兒科 皮膚性病科 一般外科 南市醫院 院長 許元 電話三四番

京義線南市驛前 精米業 南市穀物商組合 電話三六番 電略(ナ)

京義線南市驛前 高等料理 新迎樓 卓潤洙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石拔玄米商 五成商會 電話二七番 電略五又(五セイ)

京義線南市驛前 中國料理 復興飯店 曲葆禮

京義線南市驛前 中國料理 永合園 電話三三番

京義線南市驛前 綢緞布木 雜貨其他 永合祥

京義線南市驛前 綢緞布木和洋雜貨 李善德商店

京義線南市驛前 和洋雜貨 メリヤス類 化粧品 崔舜玉商店

和洋雜貨 百貨洋行 李炳

京義線南市驛前 綢緞絹布商 鄭鳳文商店

鐵山郡餘閑面道德洞 餘閑面協議員 車運泰

平北龍川郡內中面 李麟源

京義線南市驛前 永興商店 電話五四番

龍川郡內中面 李得英

南市農業倉庫

外上面事務所 職員一同

京義線南市驛前 各種고무靴布雜貨一式販賣 金龍錫商店

京義線南市驛前 靴類貿易商 第一고무商會 朴一泳

京義線南市驛前 洋服 洋品販賣 宣興製服店 主 鄭亨

京義線南市驛前 高級洋服 紳士服調製 星林洋服店 主 趙延鉉

京義線南市驛前 高級洋服調製 兄弟洋服店 主 金七星

布木商 明山商店 安宅

廣岩鐵工所 電話三三番

京義線南市驛前 永信材木店 主 李時健

京義線南市驛前 セメント販賣 永信モルタル工場

京義線南市驛前 各種自轉車及附屬品ミシン販賣 銅鉉商會

京義線南市驛前 龍江麵屋 主 吳錫炳 電話二一番

京義線南市驛前 三和精米所 玄基泰 金承謙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委託販賣 新盛商會 電話三五番

龍川郡外下面 益昌精米所

京義線西山驛前 龍成精米所

京義線南市驛前 玄白米 穀物貿易 三信精米所 取引銀行 宜川殖産銀行 新義州商業銀行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商 永隆商會 張基正 金竹霖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玄白精米 三協三會 李元鎬 趙國潤 趙斗鉉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委託販賣 金昌商會 電話四二番

京義線南市驛前 共大商會 代表者 李錫坤 電話二八番

南市驛前 新安齒科醫院 本院宜川明治町 電話二一三番

昌慶醫院 院長 李壽源 電話四六番

東信商會 電話一〇番

南市 金尙應

李允錫商店

三合成商店

欽谷 東海北部線欽谷驛前 ◉欽谷和信連鎖店 周京燮

沛川驛前 成局

韓商鏞

李成福

沛川驛前 李熙萬

林允炯

東海北部線欽谷驛前 ⊕荷主運送店 代表 李基鴻

欽谷面 姜道錫

欽谷面 姜澈琳

欽谷面 康俊敏

欽谷 金昌熙

金有聲

沛川驛前 金在星商店

沛川驛前 金鹿浩

沛川驛前 張仁

欽谷金融組合

沛川驛前 布木雜貨 洪信商店

沛川郡欽谷驛前 公醫診療所 公醫 李禧億

金斗寬

郭道天

東海北部線沛川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沛川代行營業所

薛允禧

ツキ板問屋
開城府滿月町
東光ツキ板商會
工場 開城北本町二三四番 電話四四六番
京城營業所 光化門通(都染町入口) 電話光化門三〇六番

洋品百貨
北本町通(高麗車部側)
大洋商店
電話六六四番

人蔘鹿茸唐材乾材都散賣商
開城府北本町三〇三
延壽堂藥房
電話六三八番
振替京城二八八二二番

一五一七〇 一五一八三 アームベット專門製作
クラウンミシン製作元
サンライスミシン製作元
コリアーミシン機械製作所
朝鮮開城社稷町三一六
電話四〇番
振替京城二六三二一番
電略(コ)又ハコリアー

ヤマトミシン鮮滿總發賣元
高麗洋行
開城府北本町通

西本町六
千草茶房
主 金点孫

開城商工會議所
會頭 孫洪駿

西本町通
東亞製油所
電話七〇六番

西本町四一
松京精米所
電話二四二番

洋品百貨
順天堂洋品店
南大門通

滿月町沙峴
仁術本位
東亞醫院
金仁錫

南大門内
洋品毛絲
中央毛絲店

開城府北本町
開城人蔘販賣組合
組合長 孫洪駿

開城人蔘同業組合
理事 高漢承

北本町通
中央人蔘商會
主 田在玉

開豐人蔘貿易社
主 金東獻
電話五五八番

高麗人蔘元祖社
電話五五二番

東本町
開城蔘業社
電話二五二番

池町五五九
開城人蔘貿易社
主 李元杓
電話六六六番

大和町通
白馬茶房

東本町通リ
自動車タイヤ修理專門
OKタイヤ商會
主 金文基
電話五六〇番

開城印刷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二鉉
取締役支配人 李漢元

開城南山町二六
開城護謨工業社
電話一五四番

開城府東本町都橋川邊
美術紙函 機械製 折箱 針箱 パッキングケース
第一紙器商會
主 韓英錫
電話七〇九番

開城蔘業株式會社
電話五六八番

開城醫師會

開城蔘業組合
電話五〇五番

開城府南本町
金在鉉百貨店
電話四三三番

北本町通
高麗齒科醫院
吳廷龍

朝鮮開城府南本町八八番地
順安堂新藥部
電話一六六番
振替京城五〇九〇番

開城府社稷町一四二
白松 松露 釀造元
開城釀造株式會社
電話二二番

南本町
支那料理
第一樓
電話四〇〇番

朝鮮料理
天一館本店 電話一三五番
天一館支店 電話二一〇番

開城府會議員 金正浩

開城府會議員 林漢祖

開城府會議員 權容洛

開城府會議員 金永漢

開城府會議員 黃性顯

開城辯護士 孔鎭泰 電話四〇一番

有志 朱德鍾 電話四三三番

開城警防團 副分團長 禹相用

朴尙恩

朴尙裕

朴永韶 電話六三八番

李根泰 電話三三六番

尹南鎭

孫懷遠

馬玄圭 電話三三九番

東本町 朴大源

開城府西本町二四三番地
三光商會
金奎晃

專賣局開城出張所
電話六番

金基永

開城大和町
大和旅館
電話五四二番

高等たきつけ 煉炭代理店
開城府西本町通リ
大和木炭商會
電話 振替京城二六九〇三番

東本町
崔應九

西本町通
株式會社 京西自動車部
電話一四六番

開城人蔘商會

松都中學校
校長 金俊玉

朝鮮開城北本町
合資會社 高麗蔘業社
電話長四十八番
振替京城三三九九番

京町
開城 靈松自動車部
電話一四九番

西本町通
(二)開城運送株式會社
電話三四二番

(三)三成運送店
任熙永
電話一七番

中京洋服店
主 李鍾源
電話三二七番

ラヂオ及電氣器具材料
放電工務所
主 朴宗基

中京尋常小學校
校長 黃中顯

開城府 [illegible]
松南書館
電話一六一番

開城府 [illegible]
開城舘
電話長三六番

南大門内
文成堂書店
主 李皓永

開城府滿月町
高麗商會
電話三四五番

開城府會議員
林漢瑄
電話一四一番

開城府會議員
朴鳳鎭

開城府北本町一四〇番地
司法書士 金鎭洙
電話五二八番

北本町三二四
藥劑師
漢一藥房

株式會社
松高實業場
電話三一六番

ライオン印靴下製造元
合資會社 東洋工業社

開城果物同業組合
理事 禹相烈

朝鮮產業株式會社
電話三四番

大和町
大和洋家具店

大和町
司法書士 張波漢
電話五一五番

大和町
司法書士 吳世玉
電話三五九番

和洋食おでん
スズラン食堂

順天醫院
高柄稹
電話三〇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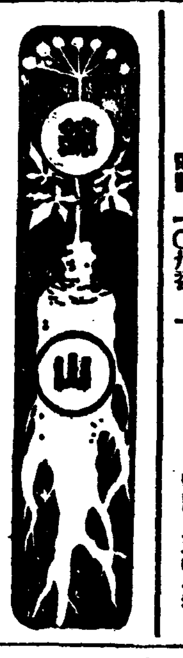
開明劵番
電話一〇九番

[illegible]
李漢炯商店
電話五五五番

開城少年刑務所

石椿社
電話五二六番

大和町
支那料理
會昇舘
電話五〇七番



全北錦山邑内
藥用人蔘貿易販賣
昌信人蔘社
高盛玉

錦山產業組合
電貳九番

全北錦山邑内
各種人蔘貿易都散賣商
三共人蔘社
主 金炳球

錦蔘耕作 其他乾水 蔘尾蔘種 子郭散賣
全北錦山邑内
大興人蔘商會
李君佐

朝鮮全北錦山邑
人蔘都散賣商
南信人蔘社
郭在燮

全北錦山邑
月星人蔘社
社長 白樂吉
振替口座京城三〇八一六番
私書函 錦山局第九號

朝鮮全北錦山邑
人蔘專門
信興人蔘商會
主 朴太玉

錦山郡教育會

錦山郡廳
職員一同

私立錦山心光學校

錦山警察署

錦山砂防事業所
親睦會

錦山稅務署

錦山面
金組理事會

任泰熙 電話三九番

全北道會議員
寺井政次郎
電話四番

錦山邑内 李輔允

錦山邑内 朴允鳳

雲波

錦山運輸株式會社
電話八番

日本生命保險錦山代理店
肥料商 森伊三郎
電話四〇番

錦山布木商組合

朝鮮全北錦山市
永興人蔘社

朝鮮全北錦山邑内
錦山人蔘商會

全北錦山市場
百貨店 和信連鎖店

吉鮮精米所
金震鍾

錦山大本寺
寶石寺

錦山郵便所長
赤星赤水

秋富郵便所
所長 前原定

錦山煙草耕作組合
電話四番

濟原面
三友契

錦山邑内
趙炳順

珍山面邑内里
李鍾玉

錦山邑内 李永讃

錦山邑内 白昌基

支那料理 錦和樓

錦山邑内 金兌圭

錦山郡錦山面中島里
朝鮮南倉庫株式會社
錦山支店

全北トラック運輸株式會社錦山出張所
森川茂作
電話一七番

錦山邑内
人蔘商 中泳善

文化印刷所
電話三五番

錦山面職員一同
南一面職員一同
錦城面職員一同
南二面職員一同
濟原面職員一同
珍山面職員一同
富利面職員一同
福壽面職員一同
郡北面職員一同
秋富面職員一同

錦山人蔘同業組合

全北錦山邑内
各種人蔘貿易販賣
安一人蔘社
安權洙

守山家具店

富利釀造場

南一釀造場

富國釀造場

所長 山下政規

所長 李昌馥

秋富面金融組合
理事 金東尹

秋富面
公醫 崔東漢

錦山
京城屋洋服店

錦山邑内 金容虎

濟原面 許光石

錦山邑内 金容沙

南二面 金光奎

錦山邑内 任炯宰

濟原面 李泰善

錦山醫院 李 [illegible]

金寬洙

錦山面陰地里 金斗星

朝鮮料理 錦山舘

漁大津

咸北漁大津港
濟衆醫院

咸北漁大津港
漁大津市着共同組合
組合長 崔承萬
電話四〇番

咸北漁大津港
漁大津醫院
院長 李周燮

咸北漁大津港
中川回漕店

咸北漁大津港
咸北電氣出張所
許根榮

咸北漁大津港上松市
東一商會
崔用萬

咸北漁大津港
東花百貨店

咸北漁大津港
共興商店
主 吳鳳煥

咸北漁大津港
海產業 咸亨達
電話五〇番

咸北漁大津港
漁大津魚糧組合
組合長 金利 [illegible]

咸北漁大津港
北鮮漁業株式會社
漁大津出張所
電話一一〇番

咸北漁大津港
廉仁熏漁業部
電話五八番

咸北漁大津港
合資會社 共信商會

咸北漁大津港
東興商會
電話六十二番

咸北漁大津港
金在洙商店
漁大津出張所
電話二十二番

咸北漁大津港
食料品都賣商
大安商會

咸北漁大津港
海產業 張文述

咸北漁大津港
司法書士 金東燮
電話三九番

咸北漁大津港
諸雜貨 食料一切 有名藥
[illegible]商店

咸北漁大津港
[illegible]

咸北漁大津港
李重權食料品店

咸北漁大津上松市
明誠商店

咸北漁大津港
丸金食品店

朝鮮咸北漁大津港
十字 [illegible]

咸鏡北道漁大津港
キング洋品店